

O'zbeklar
u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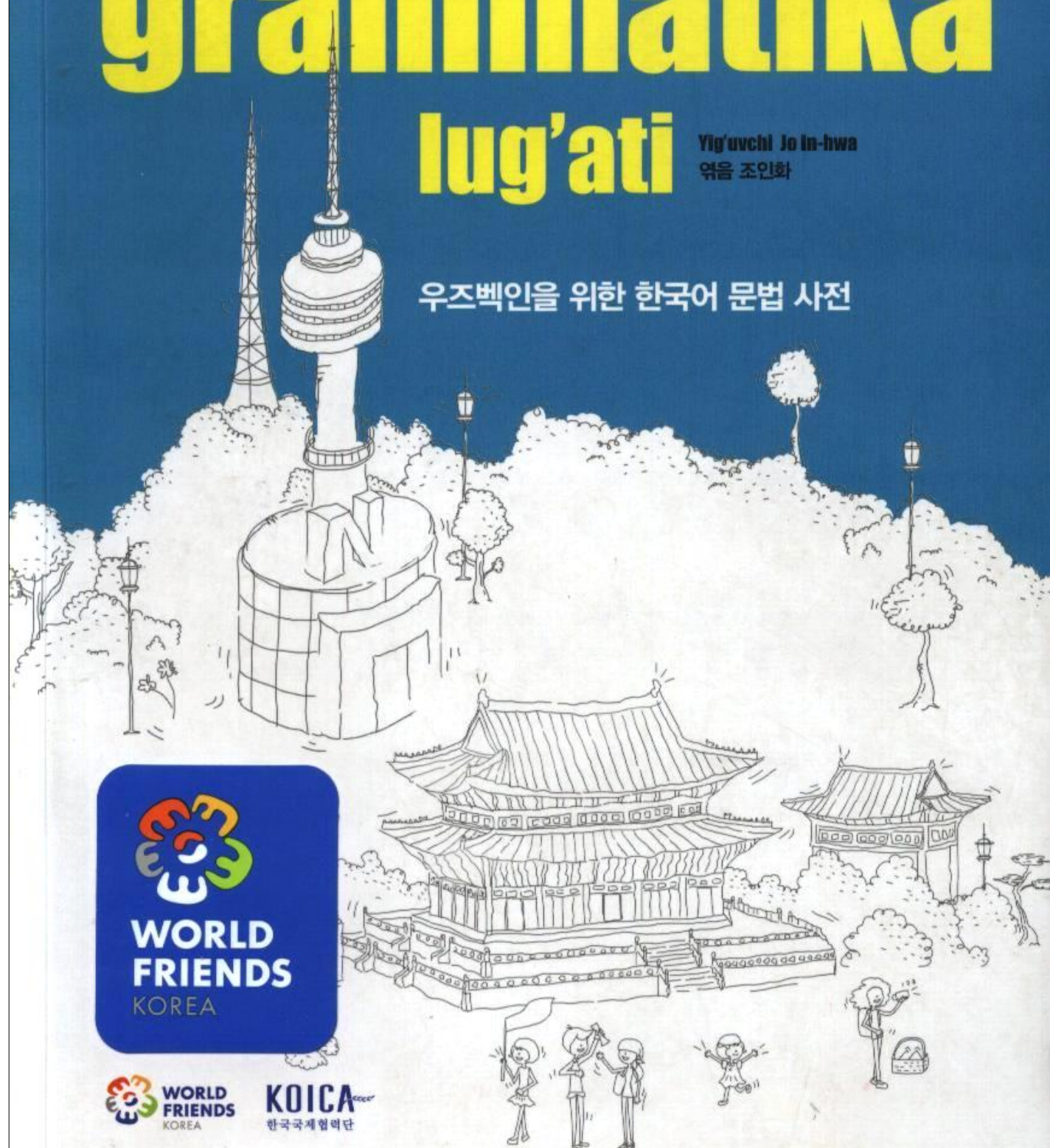
Koreys tili grammatika lug'ati

Yig'uvchi Jo In-hwa
엮음 조인화

우즈베크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KOICA
한국국제협력단



I. 조금 문법 Boshlang'ich daraja gramatikasi

1 -거나 / 10	21 -부터 / 21	41 -(으)러 가다/오다 / 32
2 -게 하다 / 10	22 -습니까?/-하니까? / 21	42 -(으)려고 / 33
3 -겠- / 11	23 -습니다/-합니다 / 21	43 -(으)려고 하다 / 33
4 -고 / 11	24 -아/어 보다 / 22	44 -(으)면 / 33
5 -고 싶다 / 12	25 -아/어서 / 22	45 -(으)면 안 되다 / 35
6 -고 싶어 하다 / 13	26 -아/어야 되다/하다 / 23	46 -(으)면서 / 35
7 -고 있다 / 13	27 -아/어 주다/드리다 / 23	47 -(으)십시오 / 35
8 -기 때문에 / 14	28 -아요/어요 / 24	48 -(으)세요 / 36
9 -기로 하다 / 14	29 안 / 25	49 -(으)세요? / 36
10 -기 전에 / 14	30 -았/었- / 26	50 -(으)시- / 37
11 -까지 / 15	31 어때요? / 26	51 -(으)십시오 / 37
12 -는/-(으)니/-(으)르 / 16	32 -(으)니 후에 / 27	52 -(이)는데요/-(으)는데요 / 38
13 -는(으)니(으)르 것 같다 / 16	33 -(으)니/는데 / 27	53 이/가 아니다 / 38
14 -님 / 17	34 -(으)니까 / 28	54 이/그/저 / 38
15 -다가 / 17	35 -(으)르 거예요 / 29	55 -이에요/-예요 / 39
16 -들 / 18	36 -(으)르지요 / 30	56 -입니다/-입니까? / 39
17 -때문에 / 19	37 -(으)르까요? / 30	57 -지만 / 40
18 -마다 / 19	38 -(으)르 때 / 31	58 -지 말다 / 40
19 -밖에 / 20	39 -(으)르 수 있다/없다 / 31	59 -지 못하다 / 41
20 -보다 / 20	40 -(으)러 / 32	60 -지 않다 / 41

II. 중급·고급 문법 O'rta va yuqori daraja gramatikasi

1 -거늘 / 44	10 -결코/절대로 / 48	19 -고서라도 / 52
2 -거니/-겠거니 / 44	11 -경 / 48	20 -고서야 / 52
3 -거든 / 45	12 -고 나다 / 49	21 -고자 / 53
4 -거든요 / 45	13 -고 나서 / 49	22 -고 해서 / 53
5 -건 -건 / 46	14 -고 나서야 / 50	23 -곤 하다 / 53
6 -건마는/건만 / 46	15 -고 말고요 / 50	24 -구테여 -(으)르 필요가 없다 / 54
7 -게 / 46	16 -고 말다 / 50	25 -균요 / 54
8 -게 되다 / 47	17 -고 보니 / 51	26 그다지 / 55
9 -게끔 / 48	18 -고서 / 52	27 그래도 그렇지 / 55

28	그런대로 / 55	62	-ㄴ/는 다기에 / 69	98	-다기보다/-(이)라기보다 / 83
29	그렇지 않아도 / 56	63	-ㄴ/는 다니/-(이)라니 / 70	99	-다나요? / 83
30	-기 / 56	64	-ㄴ/는 다면 / 70	100	-다는 / 84
31	-기가 / 57	65	-ㄴ/는 다면 하나같이 / 70	101	-다(냐, 라, 자)는 말이다 / 84
32	-기 나름이다 / 57	66	-ㄴ/는 다면서요? / 71	102	-다니(요)? / 85
33	-기는 / 58	67	-ㄴ/는 다면야 / 71	103	-다든지 / 85
34	-기는 하되 / 58	68	-ㄴ/는 답시고/-(이)랍시고 / 71	104	-다면 / 85
35	-기는 하지만 / 58	69	-ㄴ/는 동안(에) / 72	105	-다 못해 / 86
36	-기는데요 / 59	70	-ㄴ/는 중 / 72	106	-다 보면 / 86
37	-기는커녕 / 59	71	-나 보다 / 73	107	-다시피 / 86
38	-기도 하고 -기도 하다 / 59	72	-나 싶다 / 73	108	-답다 / 87
39	-기라도 하면 / 60	73	-나요? / 73	109	-더니 / 88
40	-기란 / 60	74	-냐고 / 74	110	-더라/더군요 / 89
41	-기로서니 / 60	75	-네요 / 74	111	-더라고(요) / 89
42	-기게 마련이다 / 61	76	-느니 / 74	112	-더라니 / 90
43	-기만 하면 (되다) / 61	77	-느냐 -느냐 / 75	113	-더라도 / 90
44	-기 십상이다 / 61	78	-느라고 / 75	114	-던 / 91
45	-기 짝이 없다 / 62	79	-는걸요 / 75	115	-던가요? / 91
46	-기 위해(서) / 62	80	-는 길 / 76	116	-던데 / 92
47	-기(가) 일쑤이다 / 63	81	-는 대로 / 76	117	-던데(요) / 92
48	-기에는 / 63	82	-는 데 급급하다 / 77	118	-던지 / 92
49	-기에 달리다/-느냐에 달리다 / 63	83	-는 데 좋다/나쁘다 / 77	119	-데(요) / 93
50	-기에/-(으)니 망정이지 / 64	84	-는 바람에 / 77	120	-도록 / 93
51	-길래 / 64	85	-는 법을 알다/모르다 / 78	121	-도록 하다 / 94
52	-깨나 / 65	86	-는 수가 있다 / 78	122	-도무지 / 94
53	-껏 / 65	87	-는 중 / 78	123	-도 (이)거니와 / 94
54	-끼리 / 65	88	-는 중이다 / 79	124	-도 -(이)려니와 / 95
55	-ㄴ/는 김에 / 66	89	-는 통에 / 79	125	-되 / 95
56	-ㄴ/는 다고 하다/-(이)라고 하다 / 66	90	-는 한 / 79	126	-든 -든 / 96
57	-ㄴ/는 다고 하더라도 / 67	91	-는 한이 있더라도 / 80	127	-든지 / 96
58	-ㄴ/는 다고 할지라도 / 68	92	-다(가) 보니까 / 80	128	따위 / 96
59	-ㄴ/는 다고 해도 / 68	93	-다가는 / 81	129	-마저 / 97
60	-ㄴ/는 다고 해서 / 68	94	-다가도 / 81	130	마치 -처럼/-와/과 같이 / 97
61	-ㄴ/는 다고들 하다 / 69	95	-다고 치다 / 81	131	만에 / 98
		96	-다고 할까?/-(이)랄까? / 82	132	-만큼 / 98
		97	-다고 해도 / 82	133	-만 하다 / 98

134 -만이 아니다 / 99	170 얼마나 -(으)니지 모르다 / 114	204 -(으)니/는 반면(에) / 129
135 뭐니 뭐니 해도 / 99	171 -에다(가) / 114	205 -(으)니/는 법이다 / 129
136 -보고/더러 / 100	172 -에 대하여/대해(서)/대한 / 115	206 -(으)니/는(으)리 사이에 / 130
137 -씩 / 100		207 -(으)니/는(으)리 셈이다 / 130
138 아무 -도/아무 -(이)나 / 100	173 -에 따라(서) / 116	208 -(으)니/는 셈 치고 / 131
139 아무리 -다손 치더라도 / 101	174 -에 따르면 / 116	209 -(으)니/는(으)리 일이 있다/없다 / 131
140 아무리 -아/어도 / 101	175 -에 불과하다/지나지 않다 / 117	210 -(으)니 적이 있다/없다 / 132
141 -아/어 가다/오다 / 102	176 -에 비해(서) / 117	211 -(으)니/는(으)리 지 알다/모르다 / 132
142 -아/어 가지고 / 102	177 -에서 볼 때 / 117	212 -(으)니 죽(습)/인죽(습) / 133
143 -아/어 감에 따라 / 103	178 -에 의하면 / 118	213 -(으)니 지 / 133
144 -아/어 내다 / 103	179 -에 의해(서) / 118	214 -(으)니 채 / 134
145 -아/어 놓다/두다 / 103	180 -여 / 118	215 -(으)니/는 체 하다 / 134
146 -아/어 대다 / 104	181 여간 -지 않다 / 119	216 -(으)니/는 탓 / 135
147 -아/어도 / 104	182 -(으)니가 보다 / 119	217 -(으)니/는 탓에 / 135
148 -아/어도 과언이 아니다 / 105	183 -(으)니/는 가운데 / 119	218 -(으)니/는 커녕 / 136
149 -아/어 버릇하다 / 105	184 -(으)니/는가 하면 / 120	219 -(으)니/는 한 / 136
150 -아/어 버리다 / 106	185 -(으)니/는 감이 있다 / 120	220 -(으)나 마나 / 137
151 -아/어 보이다 / 106	186 -(으)니/는(으)리 경우에는 / 120	221 -(으)니 -(으)니/-느니 -느니 해도 / 137
152 -아/어 빠지다 / 107	187 -(으)니/는 걸 보니(까) / 120	222 -(으)니까 말인데 / 137
153 -아/어져 그런지 / 107	188 -(으)니/는 게 고작이다 / 121	223 -(으)니까 이왕이면 / 138
154 -아/어서야 어디 / 107	189 -(으)니/는 관제로 / 121	224 -(으)니만큼 / 138
155 -아/어야 / 108	190 -(으)니 나머지 / 122	225 -(으)니 할 수 없지요 / 139
156 -아/어야지 (되다) / 108	191 -(으)니/는(으)리 대로 / 122	226 -(으)리걸 그랬다 / 139
157 -아/어 있다 / 109	192 -(으)니/는 데 / 123	227 -(으)리걸요? / 139
158 -아/어 죽다 / 109	193 -(으)니/는 데다가 / 123	228 -(으)리 것이 아니라 / 140
159 -아/어지다 / 109	194 -(으)니/는 데도 (불구하고) / 124	229 -(으)리 겸(해서) / 140
160 -아/어 치우다 / 110	195 -(으)니/는 데 반해 / 124	230 -(으)리까 말까 / 140
161 -았/었다가 / 110	196 -(으)니/는 들-(이)니들 / 124	231 -(으)리까 봐 / 141
162 -았/었더라면 / 111	197 -(으)니/는(으)리 듯(이) / 125	232 -(으)리까 하다 / 141
163 -았/었던들 / 111	198 -(으)니/는(으)리 듯싶다 / 126	233 -(으)리 나위가 없다 / 141
164 -았/었던지 -던지 / 112	199 -(으)니/는(으)리 듯하다 / 127	234 -(으)리 듯 말듯 / 142
165 -았/었/었- / 112	200 -(으)니/는 마당에 / 127	235 -(으)리 따름이다 / 142
166 -았/었으면 하다/좋겠다 / 112	201 -(으)니/는 만큼 / 128	236 -(으)리라 / 143
167 어디 -뿐인가요? / 113	202 -(으)니/는 모양이다 / 128	
168 어차피 -(으)니까 / 113	203 -(으)니/는(으)리 바 / 129	
169 -어치 / 114		

237 -(으)르래(요) / 143	271 -(으)라마는 / 156	304 -을/를 막론하고 / 168
238 -(으)르 리 / 143	272 -(으)려거든 / 157	305 -을/를 무릅쓰다 / 168
239 -(으)르 리 만무하다 / 144	273 -(으)려나 (모르겠다) / 157	306 -을/를 비롯해서 / 169
240 -(으)르 만큼/정도로 / 144	274 -(으)려나 보다 / 158	307 -을/를 위하여/위해(서)/위한 / 169
241 -(으)르 만하다 / 144	275 -(으)려니 하다 / 158	308 -을/를 통해(서) / 170
242 -(으)르망정 / 145	276 -(으)려다가 / 158	309 -이/가 다 뭐예요? / 170
243 -(으)르 무렵 / 145	277 -(으)려던 참이다 / 158	310 -(이)나 -(이)나 할 것 없이 / 171
244 -(으)르 바에는/바에야 / 145	278 -(으)련마는 / 159	311 -(이)나마 / 171
245 -(으)르 법하다 / 146	279 -(으)럼 -(으)려무나 / 159	312 -(이)든지 / 171
246 -(으)르 뻔하다 / 146	280 -(으)로는 -이/가 그만이다 / 160	313 -(이)라고는 / 172
247 -(으)르 뿐 / 146	281 -(으)로는 -이/가 제일이다 / 160	314 -(이)라도 / 172
248 -(으)르뻔더러 / 147	282 -(으)로 말미암아 / 160	315 -(이)라야 / 172
249 -(으)르 뿐만 아니라 / 147	283 -(으)로 미루어(보아) / 160	316 -(이)란 / 173
250 -(으)르 뿐이다 / 148	284 -(으)로 보아서는 / 161	317 -(이)야 / 173
251 -(으)르 성싶다 / 148	285 -(으)로 볼 때 / 161	318 -(이)야말로 / 173
252 -(으)르세라 / 148	286 -(으)로 삼다 / 162	319 -(이)요, -이다 / 174
253 -(으)르수룩 / 149	287 -(으)로 인해(서) / 162	320 -(이)자 / 174
254 -(으)르 는 수밖에 없다 / 149	288 -(으)로 인하여/인한 / 162	321 -자 / 174
255 -(으)르 양으로 / 150	289 -(으)ㄴ / 163	322 -자고 하다 / 175
256 -(으)르 적에 / 150	290 -(으)ㄴ에/나에 따라서 / 163	323 -자니 / 175
257 -(으)르 정도 / 151	291 -(으)ㄴ직하다 / 164	324 -자마자 / 175
258 -(으)르 줄 알다/모르다 / 151	292 -(으)며 / 164	325 -자면 / 176
259 -(으)르 줄 알았더라면 -(으)르결 / 152	293 -(으)면 -는 법이다 / 164	326 -잖아요 / 176
260 -(으)르 지경이다 / 152	294 -(으)면서 까지 / 165	327 -적 / 176
261 -(으)르지라도 / 153	295 -(으)면서 라도 / 165	328 -조차 / 177
262 -(으)르지언정 / 153	296 -(으)면 얼마나 더 -겠어요? / 165	329 -중 / 177
263 -(으)르진대 / 153	297 -(으)면 -(으)르 수룩 / 165	330 -지 / 177
264 -(으)르 터이다 / 154	298 -(으)면 으레 / 166	331 -지 그래요? / 178
265 -(으)르 턱이 없다 / 154	299 -(으)므로 / 166	332 -지요 / 178
266 -(으)르 테니까 / 155	300 -(으)시오 / 167	333 -짜리 / 178
267 -(으)르 텐데 / 155	301 -은/는 고사하고 / 167	334 -썸 / 179
268 -(으)르 필요가 있다/없다 / 155	302 -은/는 -대로 / 167	335 -썸 해서 / 179
269 -(으)라고 하다 / 156	303 -은/는 말할 것도 없고 / 168	336 -처럼 / 180
270 -(으)라 -(으)라 / 156		337 -치고/치고는 / 180

338 -커녕 / 180

339 통 / 181

340 -투성이 / 181

341 하도 -아/어서 / 181

III. 조사 Qo'shimchalar

1 이/가/께서 / 184

2 을/를 / 185

3 은/는 / 186

4 예/에서 / 186

5 와/과, 하고, 랑 / 188

6 도 / 188

7 으로/로 / 189

8 의 / 190

9 에게/께/한테 / 190

10 만 / 191

11 이나/나 / 192

IV. 수사 Son

1 기수사 Miqdor son / 196

2 서수사 Tartib sonlar / 197

V. 부사 Ravishi

1 일반부사

Umumiy ravishlar / 198

2 상태부사 Ovozga va harakatga taqlid so'zlar / 199

3 장소부사 O'rin ravishi / 199

4 시간부사 Payt ravishi / 200

5 부정부사 Inkori ravishi / 201

6 양태부사 Modal ravishlar / 201

7 접속부사

Bog'lovchi ravishlar / 202

VI. 접속사 Bog'lovchilar

1 그리고 / 204

2 그렇지만 / 204

3 그러나 / 204

4 그래서 / 205

5 그러면 / 205

6 그런데 / 206

7 그러니까 /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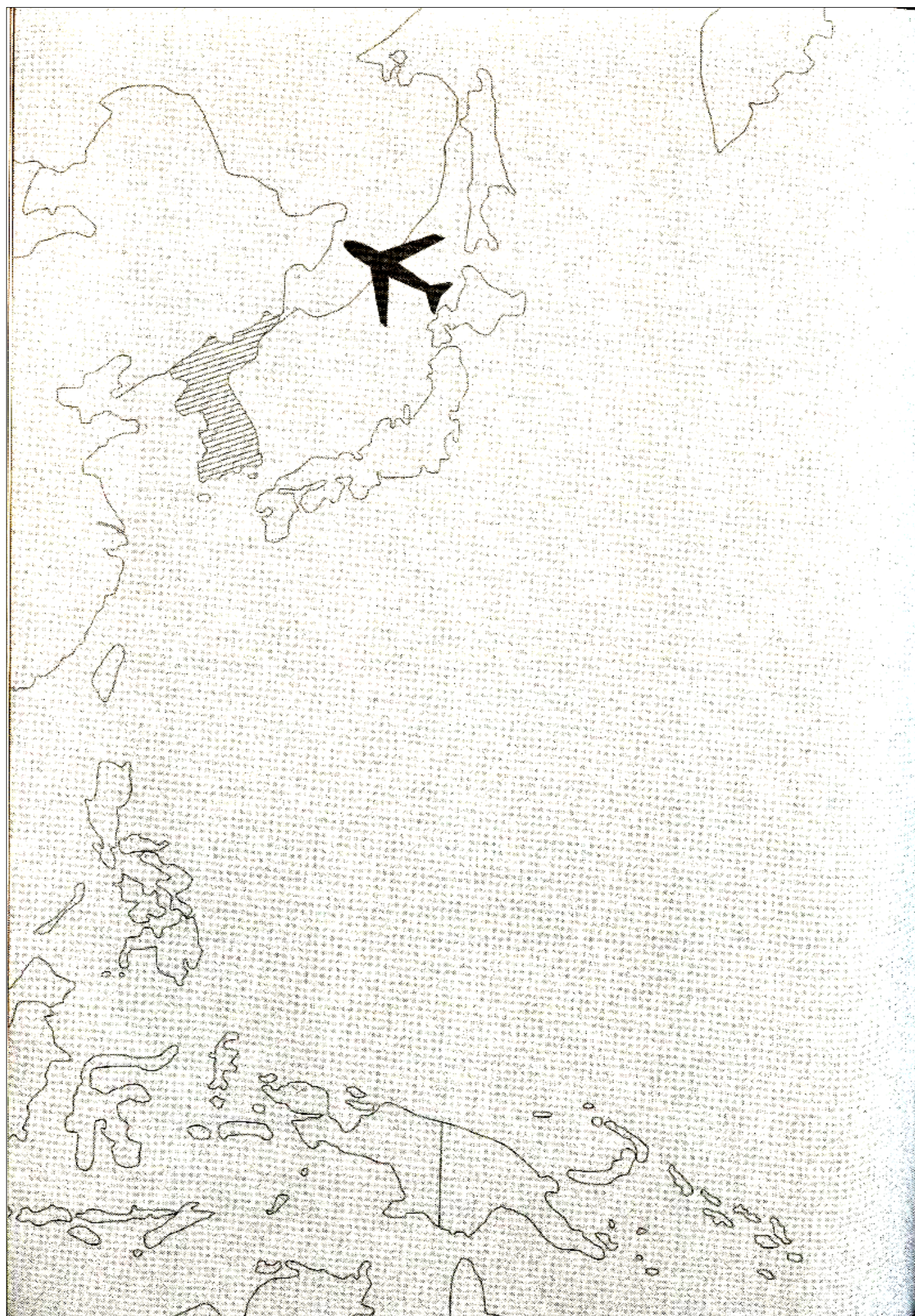
8 그러면서 /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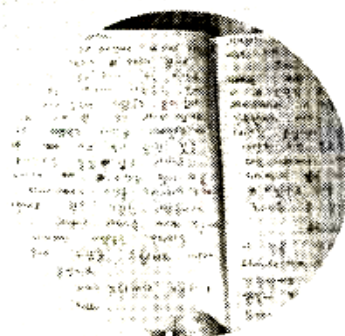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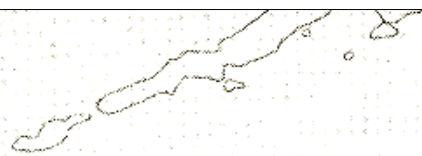
9 그래도 / 207

10 그러므로 / 207

11 그렇지 않으면 / 207

12 그러다가 / 207





I. 초급 문법

Boshlang'ich daraja gramatikasi

초급 문법 Boshlang'ich daraja grammatikasi

1 -거나

-거나 Bog'lovchi qo'shimcha bo'lib fe'l negiziga, sifatga va kishlik olmoshiga qo'shilib ikkita sodda gapdan qo'shma gap yasaydi, bitta yoki bir nechta ish harakatini tanlash ma'nosida keladi. O'zbek tilida -거나 qo'shimchasi 'yoki, yoxud, yoki bo'lmas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대명사 + 거나

→ 예

저는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책을 읽어요.

Men dam olish kunlari sayohat qilaman, yoki kitob o'qiyman.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Men maktabda o'qiyman, yoki sport bilan shug'ullanaman.

2 -게 하다

Ushbu qo'shimcha fe'l va sifatga qo'shilib, asosiy harakatning bajarilishi bilan boshqa harakatga erishishni ifodalaydi.

동사/형용사 + 게 하다

→ 예

그 소식은 나를 기쁘게 했다.

Bu xabar meni quvontirdi.

TV를 볼 때는 방을 밝게 합니다.

Televizor ko'rayotganda xonani yoritaman.

꽃병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Guldonni yiqilmaydigan qilib qo'ying.

3

-겠-

- (1) Ushbu suffiks I -II va III shaxsda qo'llanilishi mumkin, ammo bunda shakllangan kesimlar ma'nosi bir-biridan farq qiladi. I -shaxsga ushbu suffiks qo'shilganda kesim so'zlovchining xohish-istagini ifodalaydi.

→ 예

내일 전화를 하겠습니다.

Men ertaga qo'ng'iroq qilaman.

내년에 한국에 가겠습니다.

Men kelasi yilda koreyaga boraman.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Men bunday ishni qilmayman.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Menga yordam bersangiz yaxshi bo'lardi.

- (2) Ushbu suffiks II va III shaxsda qo'llanilganda kesim taxmin ma'nosiga ega bo'ladi.

→ 예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Ertaga havo bulutli bo'lsa kerak.

이리나가 교실에 있겠습니다.

Irina xonada bo'lishi kerak.

4

-고

동사/형용사 + 고

- (1) Bu qo'shimcha ikki sodda gapdan qo'shma gap yasovchi qo'shimchadir. Ikki yoki undan ortiq bo'laklarni va qo'shma gaplarni bir-biriga bog'lab keladi.

→ 예

새가 울고 꽃이 핍니다.

Qushlar sayrab gullar ochilyapti.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습니다.

Osmon baland, dengiz chuqurdir.

- (2) Ushbu qo'shimcha bir vaqtning o'zida ikki harakat sodir bo'lishini ifodalaydi.

→ 예

저는 기타를 쳤고, 친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Men gitara chaldim, do'stim esa qo'shiq kuyladi.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Bugun yom'gir yog'ib, shamol esyapti.

- (3) Bosh va ergash gapdagi harakatning izchilligini va muntazamligini ifodalaydi.

→ 예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Bir kunlik ishni tugatib uyga qaytyapman.
편지를 받고 답장을 씁니다.
Xat olib javobini yozyapman.

- (4) Bosh gapdagi ish harakati tugaganiga qaramasdan ergash gapdagi harakat davom etgan holatda ishlatiladi.

→ 예

형이 새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Akam yangi kiyimini kiyib ko'chaga chiqib ketdi.

5 -고 싶다

동사/형용사 + 고 싶다

- (1) Yetakchi fe'ldagi so'zlovchi yoki sub'ektning sodir bo'lishi kerak bo'lgan harakat va holat to'g'risidagi istagini bildiradi.

→ 예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Men albatta mashhur inson bo'lishni xohlayman.

- (2) -았/었으면 qo'shimchasi yoyiq gapda ta'kidlangan faktdagi so'zlovchining umid yoki xohishini ifodalaydi.

→ 예

오늘을 꼭 일자리를 찾았으면 싶다.
Bugun albatta ish topsam yaxshi bo'lardi.
이젠 그 일에서 손을 뗐으면 싶다.
Endi bu ishga aralashmaslikni istayman.

6 -고 싶어 하다

Ushbu -고 싶어 하다 qo'shimchasi fe'l negiziga qo'shilib, III-shaxsdagi eganing xohishini ifodalaydi.

동사/형용사 + 고 싶다

→ 예

어머니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Onam koreyaga borishni xohlaydi.
모두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Barcha insonlar urushni tugatishni xohlaydi.

7 -고 있다

-고 있다 qo'shimchasi fe'l negiziga qo'shilib hozirgi zamon davom fe'lini ifodalaydi. 계시다 (bor, bo'lmoq) 있다 ning hurmat ko'rinishi bo'lib, o'zidan katta bo'lgan kishini hurmat qilishda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고 있다

→ 예

자밀라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Jamila hozir uxlayapti.
나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Men hozir uyga ketyapman.
어머님께서는 청소하고 계십니다.
Oyim hozir uy yig'ishtirmoqdalar.

8 -기 때문에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uchun,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Ergash gap dagi ish harakatining sababini bosh gap dagi ish harakati orqali ko'rsatishda ishlatildi.

동사/형용사 + 기 때문에
명사 + (이)기 때문에

예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었어요.

Pulim yetmagani uchun u narsani sotib ola olmadim.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고 있습니다.

U kishi bilan munosabatlarim yaxshi bo'lmagani uchun uchrashmayapman.

그 사람은 범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U odam jinoyatchi bo'lgani uchun jazo oldi.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봐야겠습니다.

Yeyishga hech narsa yo'qligi sababli, bozorga borishim kerak.

9 -기로 하다

Ushbu -기로 하다 qo'shimchasi fe'l negiziga qo'shilib, muayyan harakatni bajarish uchun qaror qabul qilishni ifodalaydi.

동사 + 기로 하다

예

내일 대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Ertaga universitetga borishga qaror qildim.

오늘 아침 밥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Bugun nonushta qilmaslikka qaror qildim.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Bu ishni qilishga qaror qildim.

10 -기 전에

Ergash gapdagi ish harakati bosh gapdagi ish harakatining boshlanguniga qadar so-dir bo'lish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기 전에

예

점심 먹기 전에 이 일을 끝냅시다.

Tushlikni yeyishdan oldin bu ishni tugataylik.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Gapirishdan avval o'yla.

운동하기 전에 체조부터 해야지요.

Sport bilan shug'ullanishdan oldin tanani qizdirish kerak.

집에 가기 전에 숙제를 하세요.

Uyga ketishdan avval uy vazifasini bajaring.

만나기 전에 전화하세요.

Uchrashishdan oldin qo'ng'iroq qiling.

11

-까지

명사/부사/조사 + 까지

- (1) -까지 qo'shimchasi mavjud cheklangan vaqt va joyning oxirgi nuqtasini bildiradi. Ot, ravish va turli qo'shimchalarga qo'shiladi. O'zidan oldin turli qo'shimchalarni olishi mumkin.

예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보았습니다.

Kecha yarim tungacha kitob o'qidim.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Yana uchrashguncha yaxshi qoling.

- (2) 'Buning ustiga, bilan birga, nafaqat, hattoki, ham' ma'nolarini beradi.

예

비가 오고 바람까지 불어요.

Yomg'ir yog'ayapti buning ustiga shamol ham esayapti.

밥에다 커피까지 마셨어요.

Nafaqat ovqatni hattoki kofeni ham ichdi.

- (3) 부터~까지 juft qo'shimchasi bo'lib boshlanish nuqtadan keyingisiga qadar bo'lgan vaqt va joyni, jo'nab ketish va yetib kelishni anglatadi va '-dan... -gacha' deb tarjima qilinadi.

예

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걸어 다닙니다.

Uydan metrogacha piyoda qatnayman.

12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Soat 12dan 2gacha tushlik vaqti.

12 -는/-(으)ㄴ /-(으)ㄹ

Ushbu qo'shimchalar hozirgi, kelasi va o'tgan zamon fe'llari negiziga, sifatga va otga qo'shilib sifatdosh yasaydi. Bunda ushbu qo'shimcha aniqllovchidan keyin turadi.

so'z turkumlari	qo'shimcha	Ma'nosi	Masalan
fe'l	-는	hozirgi zamon, harakat vaqti	가는 사람 ketayotgan odam
	-(으)ㄴ	o'tgan zamon, harakat tugaganligi	간 사람 ketgan odam
	-(으)ㄹ	kelasi zamon, taxmin	갈 사람 boradigan odam
sifat	-(으)ㄴ	hozirgi zamon, holat	예쁜 꽃 chiroyli gul
ot	-(이)ㄴ		7학년인 안드레이 7-chi sinf o'quvchisi Andrey

예

저기 오는 사람이 저의 친구입니다.

Anav kelayotgan odam mening do'stim.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Hozir dam olish vaqti.

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Bugun qiladigan ish ko'p.

이것이 어제 산 책입니다.

Bu kecha sotib olingan kitobdir.

한국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Koreyada chiroyli tog'lar ko'p.

13 -는/(으)ㄴ/(으)ㄹ 것 같다

Biror bir ish harakati yoki asosga nisbatan taxmin ma'nosini bildiradi. -것 같다

o'zbek tilida 'ga o'xshab', 'o'xshaydi' degan ma'noda keladi.

Shakl	Zamon	Misol
fe'l negiz + ㅆ/은 것 같다	o'tgan zamon	비가 온 것 같습니다. Yomg'ir yog'ganga o'xshaydi.
fe'l negiz + 는 것 같다	hozirgi zamon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Yomg'ir yog'ayotganga o'xshaydi.
fe'l negiz + ㄹ/을 것 같다	kelasi zamo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Yomg'ir yog'adiganga o'xshaydi.

14 -님

Ushbu qo'shimcha koreys tilida hurmat ma'nosini bildiruvchi qo'shimcha hisoblanadi. -님 qo'shimchasi ko'p hollarda tarjima qilinmaydi, ba'zan 'janob' yoki 'hurmatli' degan ma'noni beradi.

- 아버지 + 님 → 아버님 Otajon
- 선생 + 님 → 선생님 Hurmatli o'qituvchi
- 총장 + 님 → 총장님 Janob rektor
- 부모 + 님 → 부모님 Ota-ona
- 형 + 님 → 형님 Akajon

예

우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Bizning o'qituvchimiz juda oq ko'ngil inson.
형님은 산에 자주 갑니다.
Akam toqqa tez-tez borib turadilar.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Otamning mazalari yo'q.

15 -다가

Ushbu qo'shimcha boshqa ish harakatning boshlanishi tufayli tezkor tugatish yoki to'xtatishni bildiradi. Ergash va bosh gapning ish harakati bir shaxs tomonidan amalga oshiriladi. Ba'zan -다 qisqartirilgan shakli qo'llaniladi.

동사/형용사 + 다가

→ 예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Maktabga ketayotib, do'stimni uchratdim.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Kitob o'qiyotib, uxlab qolibman.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습니다.
Berilib ishlab, ozgina dam oldim.

16

-들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lar' ya'ni ko'plik ma'nosini bildiradi.

명사/부사 + 들

- (1) Bu qo'shimcha otga qo'shilib uning ko'plik ma'nosini anglatadi. Agar otning ko'pligi aniq bo'lsa, ko'plik qo'shimchasi qo'llanilmaydi. Sanalmaydigan va mavhum otlarga nisbatan ushbu qo'shimcha qo'llanilmaydi.

→ 예

그녀는 딸기에 설탕을 많이 넣었다.
U qulupnayga ko'p shakar soldi.
이 자동차는 기름을 조금 먹는다.
Bu mashina yoqilg'ini kam sarflaydi.
이 서점에 책이 제일 많아요.
Eng ko'p kitoblar shu kitob do'konida.

- (2) Qolgan barcha holatlarda, hattoki xalq (국민), millat (민족) kabi umumni bildiradigan otlarga ham -들 qo'shimchasi qo'shiladi.

→ 예

우리 가족들은 모두 타슈켄트에 삽니다.
Oilamizning barcha a'zolari Toshkentda yashaydi.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만들거나 기다리고 삽니다.
Odamlar o'z baxtini yaratadi yoki kutib yashaydi.
학생들이 다 모이면 같이 산에 갈 거예요.
O'quvchilarning barchasi yig'ilgach birga toqqa ketamiz.

*Koreys tilidagi -들 qo'shimchasi ko'plikdagi olmosh hisoblanadi. Ushbu qo'shimcha biz (우리), siz (너희), barcha (모두), shuningdek, ravishlar, sifat va fe'llarga ham qo'shilib kelaveradi. -들 qo'shimchasi kesim va ikkinchi darajali bo'laklarga qo'shilib eganing ko'pligini anglatadi.

→ 예

모두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Barcha u odamni yaxshi ko'radi.

어서들 오세요.

Hush kelibsiz.

재미있게들 보세요.

Vaqtingizni quvnoqlik bilan o'tkazinglar.

17

-때문에

때문 ko'makchi so'z bo'lib o'zbek tiliga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Otdan keyin ishlatilganda o'sha otni o'ziga qaram qiladi.

명사 + 때문에

→ 예

비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Yong'ir sababli bora olmadim.

공부 때문에 바빠요.

O'qish sababli bandman.

머리가 아픈 것은 감기 때문입니다.

Bosh og'rishining sababi tumovidir.

18

-마다

Ushbu qo'shimcha otga qo'shilib 'har-, har bir' degan ma'noni beradi, matnga qarab ba'zi boshqa ma'nolarni ham beradi.

명사 + 마다

→ 예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Har kuni sport bilan shug'ullanaman.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Har bir odamning fe'l-atvori turlicha.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Har bir davlatning madaniyati turlicha.

19

-밖에

Bu qo'shimcha doimo inkor so'zlar bilan qo'llaniladi. Ot so'z turkumlari va sifat bilan qo'llanilib 'boshqa, faqat, yolg'iz, atigi, xolos', kabi ma'nolarni beradi.

명사 + 밖에

→ 예

너 밖에 없다.
Sendan boshqa hech kim yo'q.
저 사람은 자기 밖에 몰라요.
U odam o'zidan boshqani bilmaydi.

20

-보다

Ushbu -보다 qo'shimchasi ikkidan ortiq so'zlarni bir-biriga taqqoslaganda qo'llaniladi.

명사 + 보다

→ 예

수학보다 역사가 더 재미있어요.
Matematikaga qaraganda tarix qiziqroq.
겨울보다 봄에 비가 많이 와요.
Qishga qaraganda bahorda yomg'ir ko'p yog'adi.

21 -부터

Bu qo'shimcha vaqtni yoki dastlabki nuqtadan jo'nab ketish, boshlanishni ifodalaydi.

명사 + 부터

→ 예

오늘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Bugun ertalabdan boshlab ovqatni tayyorladim.

손부터 씻고 먹어.

Birinchi qo'lingni yuvib ovqat ye.

22 -습니까?/-ㅂ니까?

Ushbu qo'shimcha so'roq gaplarda ishlatiladi. -습니까? ko'rinishi undosh harf bilan tugagan, -ㅂ니까? ko'rinishi esa unli harf bilan tugagan fe'llarga qo'shiladi.

동사/형용사 + 습니까?/ㅂ니까?

→ 예

돈이 있습니까?

Pulingiz bormi?

그 친구가 옵니까?

Do'stingiz keladimi?

23 -습니다/-ㅂ니다

Ushbu qo'shimcha darak gaplarda ishlatiladi. -습니다 undosh bilan tugagan fe'lga, -ㅂ니다 esa unli bilan tugagan fe'llarning oxiriga qo'shilib yoziladi.

동사/형용사 + 습니다/ㅂ니다

→ 예

한국 친구가 많습니다.

Koreys do'stlarim ko'p.

학생이 질문합니다.

Talaba savol berayapti.

24 -아/어 보다

Bu ko'makchi harakatni bajarishga urinish, sinab ko'rish, qistash, buyruq kabi ma'nomlarni ifodalaydi.

동사 + 아/어 보다

→ 예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Yana bir bor qaytarib ko'ring.

30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Yana 30 daqiqa kutib turamiz.

25 -아/어서

동사/형용사 + 아/어서

- (1) Bosh gap kesimiga qo'shilib undagi harakat ergash gapdagi harakatning vaqtiga nisbatan oldin bo'layotganini bildiradi. U bir-biriga o'zaro bog'liqdir. O'zbek tiliga ravishdosh '-b(ib)' tarzida tarjima qilinadi.

→ 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옵니다.

Kutubxonaga borib kitob olib kelaman.

줄을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Navbatga turib kuting.

- (2) Bosh va ergash gapdagi fe'llarni bir-biriga bog'laydi, va ergash gapdagi tugallangan harakatning sababini ifodalashda foydalaniladi. Bu qo'shimcha qo'shilib kelgan bosh gap negiziga o'tgan va kelasi zamon qo'shimchasi qo'shilmaydi va ergash gap kesimi buyruq va undov gaplarning tugallovchi qo'shimchalarini olmaydi.

→ 예

표가 없어서 그 영화를 못 보았습니다.

Chipta bo'lmagani uchun bu kinoni ko'ra olmadim.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Bola yiqilib tushgani uchun yig'layapti.

26

-아/어야 되다/하다

Ushbu qo'shimcha albatta qilish shart va kerak bo'lgan ish va talabni ifodalaganda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아/어야 되다/하다

→ 예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Yoshi kattalarga albatta hurmat ma'nosida gapirish kerak.

외국에 여행을 갈 때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Chet elga sayohatga borayotganingizda albatta pasportingiz bo'lishi kerak.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으면 표를 예매해야 해요.

Dam olish kuni kino ko'rishni xohlasangiz chiptani oldindan sotib olishingiz kerak.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야 됩니다.

Tamaki chekishni xohlasangiz albatta tashqariga chiqishingiz shart.

27

-아/어 주다/드리다

Yetakchi fe'llar bilan birikib, kimningdir manfaatini ko'zlangan ish harakatini bildiradi. 드리다 so'zi 주다 so'zining hurmat shaklidir.

동사 + 아/어 주다/드리다

→ 예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Do'stlarim menga yordam berishdi.

이 책을 형에게 가져다 드리세요.

Bu kitobni akangizga olib borib bering.

28 -아요/어요

- (1) Norasmiy-hurmat so'zlashuv uslubi ko'p hollarda notanish insonlar suhbatida rasmiy-hurmat uslubidan foydalanish zarur bo'lmaganda, shuningdek yaqin tanishlar orasida lekin hurmat bilan 'siz' so'zining ishlatilish zaruriyati bor hollarda qo'llaniladi. Mazkur uslub fe'l negiziga -아요/어요 qo'shimchasi qo'shilib yasaladi.

예

가다 : 가 + 아요 → 가요
 먹다 : 먹 + 어요 → 먹어요
 믿다 : 믿 + 어요 → 믿어요
 높다 : 높 + 아요 → 높아요
 예쁘다 : 예쁘 + 어요 → 예뻐요

- (2) Agar fe'l yoki holat fe'lining tuslanishi oqibatida asos va oxirgi qo'shimcha o'zgar-may qolsa yoki Koreys tilining umumiy fonetika qonuniga muvofiq o'zgarsa, bunday fe'l yoki sifat to'g'ri hisoblanadi. To'g'ri fe'llar va sifat-larning turlanishi natijasida o'zgarishlar asosda bo'lgani kabi qo'shimchada ham bo'ladi.

①-jadval. Qo'shimchalarning o'zgarishi.

O'zgarishlar turi	Misollar
Agar fe'l yoki sifatning oxirgi bo'g'ini tarkibida 'yumshoq' un-lilar (ㅏ, ㅑ) bo'lsa, -아요 qo'shimchasi ishlatiladi, agarda 'qattiq' unililar (ㅓ, ㅕ, ㅣ va hokazolar.) bo'lsa, unda -어요 qo'shimchasi ishlatiladi.	잡다 → 잡아요 먹다 → 먹어요 길다 → 길어요 Quyidagilarni eslab qoling. 가다 : 가+아요 → 가요 오다 : 오+아요 → 와요

②-jadval. Asosning o'zgarishi.

O'zgarishlar turi	O'zgarishga misollar matsiy	Misollar
1. -으 tushib qolishi. Tuslanuvchi fe'l asosidagi -으 qo'shimcha tushib qoladi, agar asosga -아/어 yoki 앓/엇 qo'shim-chalar qo'shilsa.	쓰다 : 쓰+어요 → 써요 따르다 : 따르+아요 → 따라요 기쁘다 : 기쁘+어요 → 기뻐요	쓰다 끄다 크다 다다르다 슬프다 기쁘다
2. ㅁ tushib qolishi. Tuslanuvchi fe'l asosidagi ㅁ qo'shimcha tushib qoladi, agar asosga ㅁ, ㅂ, ㅅ, ㅈ, ㅊ, ㅌ, ㅍ qo'shimcha-lar qo'shilsa.	살다 : 살+ㅂ니다 → 삽니다 살+아요 → 살아요 알다 : 알+ㅂ니다 → 압니다 알+아요 → 알아요 멀다 : 멀+ㅂ니다 → 멀니다 멀+어요 → 멀어요	울다 물다 알다 돌다 길다 달다

③ Noto'g'ri fe'l va sifatlarning tuslanishi.

Agar fe'l va sifatlarning tuslanishi natijasida asos va qo'shimcha o'zgarsa, bunday o'zgarishlar Koreys alifbosining umumiy fonetika qonunlari orqali tushuntiriladi va bunday fe'l yoki sifat noto'g'ri hisoblanadi.

Noto'g'ri fe'l va sifatlarning asosida turli xil o'zgarishlar sodir bo'lishi mumkin.

O'zgarishlar turi	O'zgarishga misollar matsiy	Misollar
1. ㅁ ga fe'l sifatlar. ㅁ Asosning oxiri unli tovushlar oldida -ㅁ/ ㅍ ga o'zgaradi. (ㅁ, ㅍ ga faqatgina ikkita so'zdagina o'zgaradi: 돕다, 굽다).	돕다 → 도와요 덥다 → 더워요 춡다 → 추워요 고맙다 → 고마워요 눅다 → 누워요	입다 → 입어요 잡다 → 잡아요 뽀다 → 뽀아요 씹다 → 씹어요 줍다 → 줍아요
2. ㅎ tushib qolishi. Asos oxiridagi -ㅎ tovush -아요/어요 asosli qo'shimchaga qo'shilganda tushib qoladi.	하얏다 → 하예요 노랗다 → 노래요 빨갡다 → 빨개요 까맡다 → 까매요	좋다 → 좋아요 낱다 → 낱아요 놓다 → 놓아요 싫다 → 싫어요
3. ㅅ ga fe'l va sifatlar. ㅅ asosning oxiri unli tovushlar bilan boshlanuvchi qo'shimchalarning asosiga qo'shilganda tushib qoladi.	잇다 → 이어요 짓다 → 지어요 긋다 → 그어요 낫다 → 나아요	벗다 → 벗어요 빋다 → 빋어요 숫다 → 숫어요 씻다 → 씻어요
4. ㄹ ga fe'l va sifatlar. ㄹ asosning oxiri unli tovushlar oldida ㄹ unli tovushni yo'qotadi va ㄹ qo'shilishini ifoda etgan holda ㄹㄹ undoshini tashkil etadi.	흐르다 → 흘러요 고르다 → 골라요 가르다 → 갈라요 나르다 → 날라요 다르다 → 달라요	따르다 → 따라요 치르다 → 치러요 들르다 → 들러요

29

안

Koreys tilida inkor gaplar ikki turga bo'linadi: qisqa inkor ma'noli gaplar hamda to'liq inkor ma'noli gaplar. Qisqa inkor ma'noni beruvchi ravish 안 fe'l oldiga qo'yiladi. Qisqa inkor so'zda muhim o'rinni 명사+하다 ya'ni (masalan: 공부하다) 안 ni ot va fe'l o'rtasiga qo'yib yoziladi. (masalan: 공부를 안 합니다)

안 + 동사/형용사

→ 예

지금 비가 와요? / 아니요, 비가 안 와요.

Hozir yomg'ir yog'yaptimi?/ Yo'q, yomg'ir yog'mayapti.

숙제를 했어요? / 아니요, 숙제를 안 했어요.

Uy vazifasini bajardingizmi?/ Yo'q, uy vazifasini bajarmadim.

30 -았/었-

Koreys tilida o'tgan zamonni bildirish uchun fe'l negiziga -았/었- qo'shimchasi qo'shiladi. Agar fe'l unli harf bilan tugasa ya'ni -아-, -오- unda -았-, -아/오- qoidadan tashqari holatda -었- qo'shiladi. Yani 하다 bilan tugagan fe'llarning o'tgan zamon ko'rinishi -했-, -하였- bo'ladi. Rasmiy uslubda -았/었습니다, -했습니다, norasmiy uslub esa -았/었어요, -했어요 ko'rinishida bo'ladi.

예

ㅏ, ㅑ	→	지난 주말에 소포를 받았어요. O'tgan dam olish kuni posilkani oldim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Kecha kinoteatrga bordim. 무슨 영화를 봤어요? Qanday kino ko'rdingiz?
ㅏ, ㅑ bun dan tashqari unli negiz	→	어제는 숙제가 없었어요. Kecha uy vazifasi yo'q edi. 저 식당 음식이 맛있었어요. Ana u oshxona taomlari mazzali ekan. 지난달에 수영을 배웠어요. O'tgan oy suzishni o'rgandim. 그 편지를 보냈어요? U xatni yubordingizmi?
-하-	→	어제 오후에 뭘 했어요? Kecha tushdan keyin nima qildingiz? 그 사람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U kishi juda mehribon edi. 집에서 한국어 숙제를 했어요. Uyda koreys tilidan uy vazifasini bajardim.

31 어때요?

Biror bir kishidan narsa-buyum, insonlar yoki biron bir vaziyatning qandayligi haqidagi fikrini so'raganda ishlatiladi. Ushbu qo'shimcha rasmiy uslubda 어떻습니까? ko'rinishini oladi.

예

이 운동화 어때요?

Bu oyoq kiyim (krasofka) qanday?

오늘 시간 어때요?

Bugun vaqtingiz qanday? (Bugun vaqtingiz bormi?)

저 옷은 어떻습니까?

Ana u kiyim qanday?

32 -(으)ㄴ 후에

Ushbu qo'shimcha bir gap tugab ikkinchi gap boshlanganligini bildiradi. Bosh gapdagi ish harakati tugagandan keyin biron bir ish harakatini boshlanish ma'nosini bildiradi. Bosh gapdagi ish harakati tugagandan so'ng ergash gapdagi ish harakati yuzaga keladi. -(으)ㄴ o'tgan zamon ma'nos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ㄴ/는 후에
명사 + 후에

예

빌리 씨는 수업이 끝난 후에 대사관에 갔다.
Billi dars tugagandan keyin elchixonaga ketdi.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한 후에 질문하세요.
O'qituvchi buni tushuntirgandan keyin savol bering.
영화를 본 후에 저녁을 먹읍시다.
Kinoni ko'rib bo'lgandan keyin kechki ovqatni yeymiz.
이 약은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Bu dorini ovqatdan keyin iching.
나는 영화를 본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Men filmni ko'rgandan so'ng ko'chaga chiqdim.

33 -(으)ㄴ/는데

동사/형용사 + ㄴ/는/는데
명사 + ㄴ/인데

- (1) Agar bosh gapdagi harakat va holat ergash gapda ifodalanilayotgan gap bilan bog'liq bo'lsa -은/는데 shakli holat va jarayonni bildiradi.

예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Havo sovuq issiqroq kiyining.
아기가 자는데 조용히 하세요.
Chaqaloq uxlayapti jim bo'ling.

- (2) Agar bu shakl otga qo'shilsa -인데 tarzida yoziladi.

→ 예

어제 산 우유인데 벌써 상했어요.

Kecha sotib olgan sutim-ku, bir pastda achib qolibdi.

오늘은 일요일인데 집에서 쉬세요.

Bugun yakshanbaku uyda dam oling.

- (3) Bosh gap va ergash gap o'rtasidagi ko'makchi ma'no aloqasi zidlik, vaqt va sharoit kabi aniq ma'nolarni bildiradi.

→ 예

계속 치료를 하는데 감기가 낫지 않아요.

Uzoq vaqt davolansamda shamollaganim tuzalmayapti.

동대문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Tongdemungacha borishga necha daqiqa ketadi?

- (4) Ba'zan kesimning tugallovchi shaklida foydalanilib so'zlovchi boshqa kishining fikrini tinglash holatini ifodalaydi.

→ 예

그것은 제 것이 아닌데요.

Bu narsa meniki emas.

맛이 괜찮은데.

Mazasi bo'ladi.

34 -(으)니까

동사/형용사 + (으)니까

- (1) Bosh gapdagi harakat va holatning sababini ko'rsatganda qo'llaniladi. -아서 sababni ifodalasa, -니까 esa so'zlovchining fikri yoki shaxsiy hissiyotini ifodalaydi. Bunda, keyingi gapning tugallovchi shakli asosan buyruq gap (명령문) va taklif gap (청유문) bo'lib keladi.

→ 예

그 영화는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

Bu kino qiziq bo'lgani uchun albatta ko'ring.

네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해.

Sen xato qilganing uchun birinchi kechirim so'ra.

- (2) Bosh gapdagi harakat ergash gapdagi harakat bilan tasdiqlanganda yo ochib berilganda vaqtinchalik asos ma'nosini beradi. Bosh gapda so'zlovchi harakat sub'ekti sifatida keladi. Keyingi gapdagi sub'ektning ko'p qismi izoh ma'nosida keladi.

→ 예

좀 쉬니까 몸이 좋아지더군요.

Biroz dam olganim uchun ancha tetikman.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Tarixni o'rganganim uchun odamlarni tushuna boshlayapman.

35

-(으)ㄴ 거예요

- (1) Ushbu qo'shimcha biror bir narsa, asos, obraz, va xususiyatni bildiradi. Fe'l negiziga qo'shilib kelasi zamon ma'nosini ham bildiradi. O'zbek tiliga narsa yoki u qo'shilib kelgan so'z harakat nomi tarzida tarjima qilinishi mumkin. Bu qo'shimchanning to'liq va qisqa shakllari mavjud:

* -거예요 → -ㄴ 것이예요 걸 → 것을
 건 → 것은 게 → 것이

동작동사 + ㄴ/ㄹ/은/는/을 것
명사 + 것

→ 예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Kasalxonaga borib ko'rsak nima deysan?

이 가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Bu sumka kimniki (Kimning sumkasi)?

어제 그 사람과 약속한 걸 잊어버렸어요.

Kecha u odam bilan uchrashuv belgilaganimni unutib qo'yibman.

- (2) 것 qo'shimchasi so'zga qo'shilib, so'zlovchining o'tgan zamonda bo'lgan hozirgi zamonda bo'lib o'tayotgan biror bir ish harakatining holat, ishonch, afsus kabi munosabatlar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ㄴ/ㄹ/은/는/을 것 같다
동사/형용사 + ㄹ/을 걸(요)

→ 예

밖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Ko'chada qor yog'ayotganga o'xshaydi.

약속을 잊을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Kelishuvni unutadiganga o'xshaganing uchun qayta telefon qildim.

지금 안바르는 집에 없을 걸요.

Hozir Anvar uyda yo'qqa o'xshaydi.

그 음식은 외국인에게는 좀 매울 거예요.

Bu ovqat xorijliklarga biroz achchiqlik qilsa kerak.

36

-(으)ㄴ게요

So'zlovchi biror bir kishi bilan qandaydir bir ishga kelishganligi yoki va'dalashgan vaqtd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Ushbu ergashgan qo'shma gapda ega doim birinchi shaxsda bo'ladi.

동사 + ㄴ/을게요

→ 예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지각하지 않을게요.

Kechirasiz. Ertadan boshlab kechikmayman.

내일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같이 갈게요.

Ertaga men Tongdemun bozoriga birga boraman.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Ozgina kutib turing. Men yordam beraman.

37

-(으)ㄴ까요?

동사/형용사 + ㄴ/을까요?

- (1) Ushbu -(으)ㄴ까요? qo'shimchasi suhbatdoshining fikrini bilish uchun so'zlovchi tomonidan savol tarzida qo'llaniladi. Ushbu qo'shimcha rasmiy-hurmat va norasmiy-hurmat uslub tarziga kiradi.

→ 예

뭘 도와 드릴까요?
 Biror nimada yordam beraymi?
 같이 갈까요?
 Birga boramizmi?
 안드레이를 만날까요?
 Andrey bilan uchrashamizmi?

'(2) Ushbu qo'shimcha III-shaxsda qo'llanilganda III-shaxsning harakatini savol tahlil tarzida ifodalaydi.

→ 예

그가 올까요?
 U kelarmikin?
 어머니가 집에 계실까요?
 Oyim uydamikanlar?
 선생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O'qituvchi menga yordam bera olarmikanlar?

38 -(으)ㄴ 때

Bu qo'shimcha vaqt ma'nosini bildiradi, ba'zan quyida yozilganidek qo'llanadi. Ushbu qo'shimcha 'vaqtida, -da, bo'lganid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을 때

→ 예

아플 때는 집에서 쉬세요.
 Kasal bo'lganingizda uyingizda dam oling.
 무슨 일을 할 때는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Har qanday ishda ishning boshlanishi juda muhimdir.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세요.
 Vaqtingiz bo'lganida bizning uymizga keling.

39 -(으)ㄴ 수 있다/없다

-수 quyidagi tuzilmalar bilan kelganda biror bir ish harakatiga qodirlilik yoki qodir emaslik, mumkinlik, yoki mumkin emaslikni anglatadi.

동사/형용사 + 리/을 수 있다/없다

→ 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

O'z ishimni o'zim bilib bajara olaman.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U qiz suza olmaydi.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Musobaqada yutish ham mumkin yutqazish ham.

저는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Men iyerogliflarni o'qiy olmayman.

40 -(으)러

Ushbu qo'shimcha fe'lga qo'shilib maqsadni ifodalaydi.

동사 + (으)러

→ 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갑니다.

Kitob olish uchun kutubxonaga boraman.

낚시하러 강가에 갑니다.

Baliq tutish uchun daryoga bordim.

41 -(으)러 가다/오다

가다/오다 so'zlari maqsadni anglatuvchi -(으)러 qo'shimchasi bilan birlashib maqsad yoki istakni o'rin o'zgartirishini bildiradi.

동사 + (으)러 가다/오다

→ 예

동생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Ukam boq'qa sayr qilgani ketdi.

학교가 입학시험 보러 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Maktab imtixon topshiruvchilar bilan liq to'ldi.

저는 좀 쉬러 갔다 오겠습니다.

Men biroz dam olib kelaman.

42 -(으)려고

Fe'l bilan qo'llanilib istak va maqsadni ifodalaydi, sifatga qo'shilib kela olmaydi. O'zbek tiliga maqsadida, '-man deb, uchun deya' tarjima qilinadi.

동사 + (으)려고

→ 예

공부를 더 하려고 대학원에 다닙니다.

O'qishni yana davom ettirish maqsadida, maqistraturaga kirdim.

한국에 가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Koreyaga borish uchun bu kitobni yozdim.

43 -(으)려고 하다

So'zlovchining yetakchi fe'l harakati to'g'risida kelajakdagi reja yoki istagini bildiradi.

동사 + (으)려고 하다

→ 예

오랜만에 집에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Uzoq vaqtdan keyin uyga xat yozmoqchiman.

내일 교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Ertaga professor bilan uchrashmoqchiman.

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Koreyaga ketmoqchi edim.

44 -(으)면

동사/형용사 + (으)면

- (1) Ergash gapdagi shartni ifodalab keladi. Aniq faktni ma'lum narsa haqidagi shartlilik ma'nosini beradi. Ikkinchi qapdagi harakat yuzaga kelishi uchun birinchi gapdagi harakat bajarilishi kerakligini anglatadi.

→ 예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만나요.
Bugun vaqtingiz yo'q bo'lsa, keyin uchrashaylik.
책을 펴면 잠이 온다.
Kitobni ochsam, uyqim keladi.

- (2) Noaniq bo'lgan yoki hali sodir bo'lmagan voqea hodisani ifodalaganda ishlatiladi.

→ 예

복권에 당첨되면 너에게 반을 줄게.
Lotoreyada yutsam yarmini senga beraman.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못 갈거야.
Ertaga yomg'ir yog'sa sayrga chiqolmaymiz.

- (3) -(으)면 va -다면

① -(으)면 : Natijasi aniq bo'lgan ish harakatini aytganda ishlatiladi.

→ 예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Sport bilan doimiy shug'ullanmasa sog'liqqa zarar bo'ladi.
나이가 들면 누구나 흰머리가 생긴다.
Yosh o'tsa hammada ham oq sochlar paydo bo'ladi.

② -다면 : Kelajakda sodir bo'lishi mumkin bo'ladigan voqeani taxmin qilib gapirgand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Odatda inkor ma'nodagi gaplarda ko'proq ishlatiladi. O'zlashtirma gap ma'nosini ham beradi.

→ 예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을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없었을 거야.
Sen yordam bermaganingda ishni bunchalik tez tugata olmagan bo'lardim.
내가 너라면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여행을 갈 거야.
Men sening o'rningda bo'lganimda, bu safar olgan stipendiyamga sayohat qilgan bo'lardim.

45 -(으)면 안 되다

동사/형용사 +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qo'shimchasi biror bir ish harakatining amalga oshishini man qil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biror bir ish harakatini qilish 'mumkin emas' deb tarjima qilinadi. ((으)면-sa, 안 되다-mumkin emas)

→ 예

지금 가면 안 됩니다.

Hozir ketish mumkin emas.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Yolg'on gapirish mumkin emas.

46 -(으)면서

Bu qo'shimcha ikki ish harakati yoki holatni bir vaqtning o'zida bajarilishini anglatadi. Bosh va ergash gapning egasi yagona bo'ladi.

동사/형용사 + (으)면서

→ 예

그녀가 저를 부둥켜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U meni quchoqlaganicha duv-duv ko'z yoshi to'kardi.

전 축구를 보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Men futbol ko'rib tushlik qildim.

47 -(으)십시오

Fe'l negiziga qo'shilib so'zlovchi tinglovchiga harakatini birgalikda bajarishni taklif qilganda qo'sh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Fe'l negizi undosh bilan tugasa -읍시다, unli bilan tugasa -하십시오 qo'shiladi.

동사 + ㅁ/읍시다

→ 예

내일 같이 공부할까요? / 좋아요. 같이 공부합시다.
Ertaga birga o'qiyimizmi?/ Yaxshi. Birga o'qiyimiz.
오늘 뭘 먹을까요? / 갈비탕을 먹읍시다.
Bugun nima yeymiz?/ Kalbitang yeylik.

48

-(으)세요

Buyruq gapni bildiruvchi qo'shimcha bo'lib, so'z oxirida kelgan fe'l yoki sifatlarga qo'shilib yoziladi. Undosh harf bilan tugagan fe'l yoki sifatga -으세요, unli bilan tugagan fe'l yoki sifatga esa -세요 ko'rinishi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으)세요

→ 예

여기에 앉으세요.
Bu yerga o'tiring.
안녕히 가세요.
Yaxshi boring.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Yoqimli ishtaha. (○) yoqimli yeng. (×)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자세요.(×)
Xayrli tun. (○) Xayrli uxlang. (×)

49

-(으)세요?

So'zlovchi o'ziga nisbatan katta yoshdagi kishidan biror narsa haqida so'raganida ishlatilsa hurmat ma'nosini bildiruvchi -시- qo'shimchasi tushib qoladi. - (으)세요 qo'shimchasi -시- va -어요 chegaralovchi qo'shimchalarining bir biriga qo'shilganligidan hosil bo'lgan qo'shimcha hisoblanadi.

동사/형용사 + (으)세요?

→ 예

돈이 많으세요?
Pulingiz ko'pmi?

선생님,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Ustoz, hozir vaqtingiz bormi?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Koreys taomlarini yoqtirasizmi?
 경제대학교에 다니세요?
 Iqtisodiyot institutida o'qiysizmi?

50

-(으)시-

Hurmat-ehtirom qo'shimchasi fe'l negiziga, sifatga yoki kishlik olmoshi -이다 ga qo'shiladi va II yoki III-shaxsga tegishli bo'lgan hurmat-ehtiromni, harakat yoki holat jarayonini ifodalaydi.

→ 예

가다 → 가십니다
 오다 → 오십니다
 받다 → 받으십니다
 예쁘다 → 예쁘십니다
 이다 → 이십니다

51

-(으)십시오

Ushbu qo'shimcha rasmiy buyruqni bildiruvchi qo'shimcha hisoblanadi. Norasmiy buyruq -(으)세요 qo'shimchasiga nisbatan yanada kuchliroq rasmiy ma'noni bildirib faqatgina fe'llarga qo'shiladi. Agar fe'l negizi unli bilan tugasa -십시오, undosh bilan tugasa -(으)십시오 qo'shiladi.

동사 + (으)십시오

→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Bu tomonga keling.
 여기에 이름을 쓰십시오.
 Bu yerga ismingizni yozing.
 매일 운동을 하십시오.
 Har kun sport bilan shug'ullaning.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Mos keladigan so'zni yozing.

52 -(이)ㄴ 데요/-(으)ㄴ 데요

So'zlovchi o'z fikr mulohazalarini boshqa kishiga yetkazish uchun o'sha o'z fikr mulohazasini yetkazish hamda biror bir vaziyatni tasdiqlash vaqtida ishlatiladigan qo'shimchani qisqartirilgan ko'rinishi hisoblanadi. Fe'lga -는데요, sifatga -(으)ㄴ 데요, otga -(이)ㄴ 데요 ko'rinishlari qo'shilib yoziladi.

동사/형용사 + ㄴ/는/은 데요

명사 + ㄴ/인 데요

예

저는 빌리인 데요. 김 선생님 계십니까?

Men Billiman. Ustoz Kim bormilar?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 데요. 사무실이 어디예요?

Men Yaponiyadan kelgan talabaman. Ishxonangiz qayerda?

53 이/가 아니다

-이다 so'zining inkor ma'noda ishlatiladigan ko'rinishi -이/가 아니다 hisoblanadi. Ushbu inkor so'zning rasmiy ko'rinishi 아닙니다, oddiy ko'rinishi esa 아니예요 hisoblanadi.

명사 + 이/가 아니다

예

이 사람이 정은 씨입니까? / 아니요, 정은 씨가 아닙니다.

Bu kishi Chonginmi? / Yo'q, Chongin emas.

여기가 학생 식당입니까? / 아니요, 학생 식당이 아닙니다.

Bu yer talabalar oshxonasimi? / Yo'q, talabalar oshxonasi emas.

그것은 사과예요? / 아니요, 사과가 아니예요. 이것은 바나나예요.

U narsa olmami? / Yo'q, olma emas. Bu banan.

54 이/그/저

Ushbu 이, 그, 저 ko'rsatish olmoshlari ot oldiga qo'shilib otni yanada aniqroq qilib ko'rsatadi. 이 ko'rsatish olmoshi so'zlovchiga yaqin turgan narsani ko'rsatganda, 그 tinglovchiga yaqin bo'lgan narsa yoki so'zlovchi va tinglovchiga aniq bo'lgan narsani ifodalaganda foydalaniladi. 저 ko'rsatish olmoshi esa so'zlovchi va tinglovchiga uzoq bo'lgan narsani ifodalaganda ishlatiladi.

이/그/저 + 명사

→ 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Bu kishi kim?

그 사람은 빌리 씨입니다.

U kishi Billi.

저 사람이 남자 친구입니까?

Ana u kishi yigitingizmi?

55

-이에요/-예요

Inson va narsa buyumni ifodalaganda ishlatiladi. -이에요/예요, -이다 so'zining norasmiy ma'nosi hisoblanadi. Ot negizi undosh bilan tugasa -이에요, unli bilan tugagan otga esa -예요 qo'shiladi.

명사 + 이예요/예요

→ 예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Men Avstraliyalikman.

이 사람이 제 여자 친구예요.

Bu mening yaxshi ko'rgan qiz.

그것은 누구 가방이에요?

U kimni sumkasi?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Mana bu so'z koreys tilida qanday bo'ladi.

56

-입니다/-입니까?

-이다 otga qo'shilib egani ifodalash hususiyatiga ega bo'lib, ot va narsa buyumni ajratishd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입니다 ko'rinishi, -이다 so'zining rasmiy ko'rinishi bo'lsa, -입니까 esa -입니다 ning so'roq formasidir.

명사 + 입니다/입니까?

→ 예

빌리 씨입니다.

Men Billiman.

여기가 교실입니다.
Bu yer o'quv xonasi.
성호 씨입니까?
Song Homisiz?
저기가 도서관입니까?
Ana u yer kutubxonami?

57 -지만

Ushbu qo'shimcha bosh gapdagi harakatga zidlik, qarshilik ma'nosini ifodalashga xizmat qiladi.

동사/형용사 + 지만

→ 예

눈이 오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다.
Qor yog'ayapti ammo unchalik sovuq emas.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U kishini yoqtirsamda lekin sevmayman.

58 -지 말다

-지 말다 taklif va buyruqlarning bo'lishsiz ko'rinishini ifodalashda qo'llan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지 맙시다 taklif ko'rinishi bo'lsa, -지 마십시오 va -지 마세요 ko'rinishlari esa buyruq shaklini yasashda qo'llaniladi. Ushbu qo'shimchalar undov va so'roq gaplarda ishlatilmaydi.

동사 + 지 말다

→ 예

교실에서 떠들지 마십시오.
Sinxonada shovqin solmang.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Sharob ko'p ichmang.
지금은 퇴근 시간이니까 택시를 타지 말고 지하철을 탑시다.
Hozir ishdan qaytish vaqti bo'lgani uchun, taksiga chiqmay metroda ketaqolaylik.

59

-지 못하다

Fe'lga qo'shilib inkor ma'nosini bildiradi. Eganing hech qanday qobiliyati ham imkoniyati ham yo'qligini bildiradi. Fe'lga -지 못하다 qo'shilganda ham yoki fe'ldan oldin 못 qo'shilib keyin fe'l yozilsa ham gapning ma'nosi o'zgarmaydi.

동사 + 지 못하다

→ 예

지금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 지금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 해요.

Hozir oyog'im og'riganidan yura olmayman. = Hozir oyogim og'riganidan yura olmayman.

아직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 했어요.

Hali ham u kishini uchrata olmadim. = Hali ham u kishini uchrata olmadim.

사람이 많아서 영화를 못 봤어요. = 사람이 많아서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Odam ko'pligidan kinoni ko'ra olmadim. = Odam ko'pligidan kinoni ko'ra olmadim.

60

-지 않다

-지 않다 qo'shimchasi fe'lga qo'shilib inkor ma'nosini yasaydi. 안 inkor qoshimchasi bilan taqqoslanganda ushbu qo'shimcha yanada kuchliroq inkor ma'noni bildiradi. 안 inkor qo'shimcha bilan -지 않다 inkor so'zlarining ikkitasi ham inkor ma'nosini bildiradigan qo'shimchalardir.

동사/형용사 + 지 않다

→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Men sportni yoqtirmayman.

어제 왜 전화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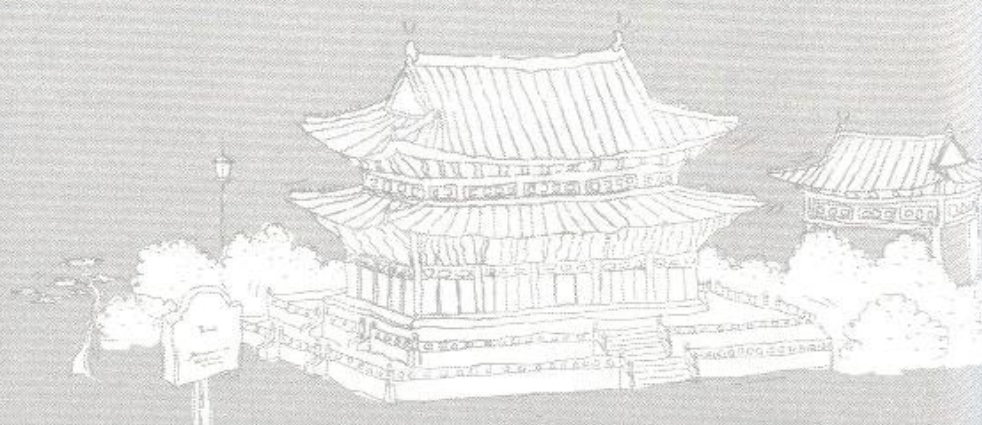
Kecha nega qo'ng'iroq qilmadingiz?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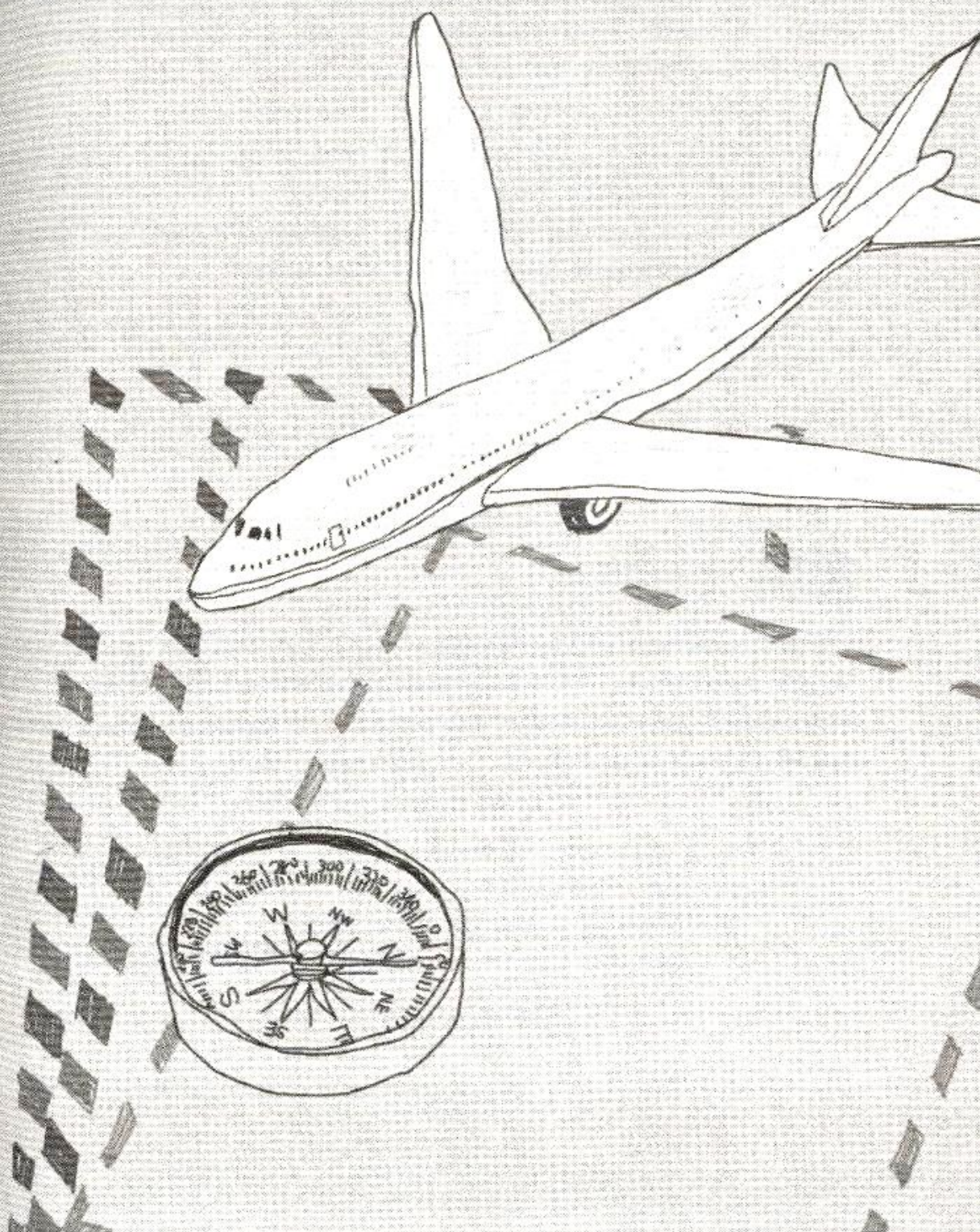
U kishi kofe ichmaydi.



II. 중급·고급



O'rta va yuqori daraja gramatikasi



중급 · 고급 문법

O'rta va yuqori daraja grammatikasi

1 -거늘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shuning uchun' degan ma'noni beradi. Fe'l negiziga, sifatga yoki otlashgan kesimga qo'shilgan holda, gapning asosiy faoliyatini shart qilib qo'yuvchi faktni ko'rsatadi.

→ 예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아 주거늘, 하물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Hayvonlar ham o'zlarining bolalariga g'amxo'rlik qilganda, axir qanday qilib ona o'zining farzandini yaxshi ko'rmasligi mumkin?

사막도 나름대로 아름답거늘, 바다가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Saxro ham o'ziga xos chiroyli bo'lganda, axir qanday qilib dengiz chiroyli bo'lmasligi mumkin?

그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거늘, 그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U har doim kech qolsa, qanday qilib undan biror nimani so'rash mumkin?

2 -거니/-겠거니

Ushbu qo'shimcha tugallovchi hamda bog'lovchi qo'shimcha sifatida ishlatiladi. Tugallovchi qo'shimcha vazifasida kelganda -거니 하다 ko'rinishi ishlatiladi. Zamonni bildiruvchi -겠- qo'shimchasi bilan ham yoziladi va bu qo'shimcha gapning xususiyatini belgilab beradi.

→ 예

일을 잘 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결국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Ishni yaxshi bajaraman deb o'ylagandim natijada hech nima qila olmadim.

이런 상황에서 내 도움이 필요 없거니 했습니다.

Bu vaziyatda mening yordamim kerak bo'lmaydi deb o'ylagandim.

3

-거든

- (1) Bosh gapda so'zlovchining holatini, asosiy taxminni ifodalaydi. Ergash gapda esa kesimning tugallovchi qo'shimchasi buyruq-istak maylida bo'ladi.

→ 예

부탁이 있거든 말해보세요.

Agar iltimosingiz bo'lsa, so'rayvering.

선생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자.

O'qituvchini ko'rsak shunday deymiz.

- (2) -(으)면 ning oddiy ko'rinishi bilan taqqoslanganda -거든 tushunchaning ma'nosiga qo'shimcha bo'ladi. Shuning uchun tinglovchiga notanish bo'lgan so'zlarni aytganda qo'llanilmaydi.

→ 예

오늘밤 눈이 오거든 모처럼 데이트 하는 게 어때요?

Bugun oqshom qor yog'sa uzoq vaqtdan keyin uchrashuvga chiqsak qalay bo'larkin?

분하거든 공부를 해서 그에게 지지 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Alam qilsa o'qib undan yengilmaydigan inson bo'lgin.

4

-거든요

-거든요 tuslovchi qo'shimchasi gapni tugallagach, aniq asos yoki sababni tushuntirish ma'nosini beradi.

→ 예

우즈베키스탄의 여름은 아주 덥거든요.

Bilasizmi, yozda O'zbekistonda juda issiq bo'ladi.

이 사람은 저의 친구거든요.

Bu kishi mening do'stim bo'ladi.

요즘 수업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거든요.

Hozir dars yo'q. Imtixon vaqti-ku.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배부르거든요.

Bundan ortiq yeya olmayman. Qornim to'yib ketdi.

떠들지 마세요. 아기가 잠을 자고 있거든요.

Shovqin solmang chaqaloq uxlayaptiku, axir.

5 -건 -건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ladimi -lamaydimi' deb tarjima qilinadi.

예

남이야 아프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O'zga kishi kasal bo'ladimi bo'lmaydimi o'ylamasdan o'zingni ishingni qil.

내가 그 사람을 만나건 말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니?

Men u kishi bilan uchrashamanmi uchrashmaymanmi senga nima farqi bor?

쌀밥이건 잡곡밥이건 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Guruchli bo'tqami boshqacha bo'tqami o'z vaqtida ovqatlanish sog'liq uchun eng muhimidir.

일이 잘됐건 잘못됐건 간에 우리가 받을 돈은 일정한 거 아닙니까?

Ish yaxshi bo'ladimi yaxshi bo'lmaydimi biz oladigan pul belgilangan miqdorda emasmi?

6 -건마는/건만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bo'lsada, lekin' deb tarjima qilinadi. Doim so'z oxirida inkor ma'nosi keladi.

예

일이 잘 되기를 바랐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Bu ish muvaffaqiyatli yakunlanishini xohlagan bo'lsamda, lekin xohlaganimdek chiqmadi.

최선을 다 했건만 여의치 못 했다.

Biz qo'limizdan kelguncha hamma narsani qilgan bo'lsakda, umidlarimiz oqlanmadi.

7 -게

Ushbu qo'shimcha sifat so'z turkumlariga qo'shilib ravish yasaydi.

- (1) So'zlovchining biror bir narsa yoki ish harakati haqida o'z fikrini bildirganini ifodalaganda ishlatiladi. -다고 qo'shimchasiga yaqin ma'noni beradi.

→ 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엽게 여긴다.

Ko'p kishilar uni bechora deb o'ylaydilar.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Vaqt o'tgani sayin oila a'zolar yanada qimmatli seziladi.

- (2) Ushbu qo'shimcha yana daraja ma'nosini ham bildiradi. -(으)ㄴ 상태로, -(으)ㄴ 정도로 bilan ekvivalent qo'shimcha hisoblanadi.

→ 예

내년에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Keyingi yil albatta imtixonidan o'taman deb qaror qildim.

뒷머리는 좀 짧게 잘라 주세요.

Sochimning orqasini ozgina kalta qilib kesing iltimos.

- (3) -게 qo'shimchasi bosh gapga qo'shilib ergash gapdagi so'zning natijasi, maqsadi va talabini ifodalab keladi.

→ 예

이건 집에 가지고 갈 거니까 국물이 새지 않게 잘 싸 주세요.

Buni uyga olib ketmoqchiman, shuning uchun ovqatni to'kilmaydigan qilib yaxshilab o'rab bering iltimos.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좋아하시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자.

Ota-onam sayohatdan qaytib kelishlariga xursand qiladigan qilib uyni tozalab yig'ishtirib qo'yaylik.

꽃이 병들지 않게 미리 영양제를 주어야겠어요.

Gullar kasallanmasligi uchun oldindan ozuqa berish kerak.

8

-게 되다

Biror bir sabab bilan bosh gapdagi vaziyat sodir bo'lganligini bildiradi. Hayotda ta'so-difan uchraydigan ya'ni insonlarga bog'liq bo'lmasdan yuzaga keladigan vaziyatlar haqi-da gapirganda ishlatiladi.

→ 예

불경기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Iqtisodiy tanglik sababli korxona yopiladigan bo'ldi.

늦가을로 접어들자 잔디가 누렇게 되었다

Kechki kuz yaqinlashayotganligi uchun o't o'lanlar sarg'aya boshladi.

9

-게끔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lariga, lari uchun' deb tarjima qilinadi. Biror bir narsaga yoki ish harakatiga kuchli urg'u berganda ishlatiladi.

→ 예

누가 와서 보더라도 만족하게끔 신경을 써서 준비해 놓읍시다.

Kim kelib ko'rsa ham hayron qolishi uchun e'tibor bilan tayyorgarlik ko'raylik. 부장님은 모든 부원들이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언제나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다.

Direktor o'rinbosari barcha hodimlarni ko'ndirib, ishni bajarishlari uchun, doim hech narsani ayamadilar.

동생들은 내가 조용히 공부를 하게끔 놔두지를 않는다.

Ukalarim men tinchgina dars qilishimga yo'l qo'ymaydilar.

10

-결코/절대로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umuman' deb tarjima qilinadi va gapning oxirida inkor so'z keladi.

→ 예

지금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Hozir chiqish umuman mumkin emas.

이제 그런 일은 결코(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Endi bunday ishni umuman qilmayman.

이것은 결코(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Bu narsa hech ham hazil emas.

11

-경

-경 qo'shimchasi taxminiy vaqt yoki kunni ko'rsatib kelganda qo'llaniladi. -여 qo'shimchasi esa 10 va undan katta bo'lgan sanoq sonlarga qo'shiladi. Ikkalasi ham -lar, -larda deya tarjima qilinadi.

→ 예

내일 몇 시경에 다시 올까요?

Ertaga soat nechalarda yana kelay?

강의는 10시경에 시작됩니다.

Ma'ruza soat 10 larda boshlanadi.

금년 8월경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Bu yil avgustlarda uylanmoqchiman.

12 -고 나다

Ushbu qo'shimcha bosh gapdagi ish harakati tugaganini bildiradi.

(1) -고 나니

Qandaydir bir ish harakatini bajargandan so'ng kelib chiqqan natijani ifodalaydi.

→ 예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Bu kitobni o'qib tugatgandan so'ng fikringiz ozroq o'zgaradi.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요.

Yomg'ir yog'ib tugagandan so'ng havo salqinlashadi.

(2) -고 나면

Qandaydir ish harakati tugashi bilan boshqa biror bir natija yuzaga chiqishini ifodalaydi.

→ 예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Bu kitobni o'qib tugatgandan so'ng fikringiz ozroq o'zgaradi.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요.

Yomg'ir yog'ib tugagandan so'ng havo salqinlashadi.

13 -고 나서

Ushbu qo'shimcha bosh gapdagi ish harakati sodir bo'lib bo'lgandan so'ngina ergash gapdagi ish harakati sodir bo'lishiga alohida izoh berishni ifodalaydi.

→ 예

성희는 돈을 챙겨 놓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Songhee pulni joylashtirgandan keyin kiyimini almashtirdi.

중학교 일학년은 마치고 나서 여름 방학은 어머니 곁에서 보내게 되었다.
O'rta maktabning birinchi bosqichini tugatib yozgi ta'tilni onamning oldida
o'tgazadigan bo'ldim.

14 -고 나서야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 'tugaganidan keyin, bo'lib o'tgandan keyin' degan ma'noda gapirilganda ishlatiladi.

→ 예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Imtixonni topshirganligim haqida xabar olgachgina, tinch uxlay oldim.
병이 나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Kasal bo'lgandan keyingina sog'liq muhimligini tushunib yetamiz.

15 -고 말고요

Bosh gapning ma'nosini tasdiqlab urg'u berish iborasi bilan 'albatta shunday qila-man'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값고 말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갚겠소.
To'layman demasdan, qo'lingdan kelganicha harakat qilib to'lashing shart.
그럼, 귀엽고 말고,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가 귀엽단다.
Faqat bittaginasi yoqimtoy emas, tug'ilgan chaqaloqlarning hammasi yoqimtoy bo'ladi.

16 -고 말다

Ushbu qo'shimcha bosh gapning ma'nosini bildirgan ish harakati tugagandan keyingina yuzaga keladi. Ish harakatining natijasi haqidagi ijobiy fikr yoki salbiy o'ylab achinishni bildiradi.

→ 예

그 사람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Men u odam bilan ajrashib ketdim.

참고 참다가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Chidab, chidab oxiri yig'lab yubordi.
조심했지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Ehtiyot bo'lgan bo'lsam-da shamollab qoldi.

(1) -고(야) 말겠다

'Qandaydir ish harakatini aniq bajaraman' so'zlovchining xohish, istagini bildiradi.
'Aniq, albatta, so'zsiz'ga o'xshash ravishlar bilan birga kelgan vaziyatlar ko'p uchraydi.

→ 예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얻고 말겠어.
Qo'lingdan kelganicha harakat qilib yaxshi natijani ol.
반드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야 말겠습니다.
Albatta yangi uskuna kashf qilaman.
이번 시험에서 꼭 이기고야 말겠다.
Bu musoboqada aniq yutaman.

(2) -고 말았다

'Qandaydir bir ishni har qanday vaziyatda ham sodir bo'lishi' ma'nosini bildiradi.

→ 예

우리 팀은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Bizning guruhimiz bor kuchi bilan harakat qilgan bo'sada baribir musobaqada yutqazib qo'ydi.
기르던 강아지가 며칠 동안 아프더니 결국 죽고 말았어요.
Boqayotgan itim bir necha kun davomida kasal bo'lib oxiri baribir o'lib qoldi.

17

-고 보니

Ushbu qo'shimcha 'biron bir ish harakati sodir bo'lgandan so'ng shu ish harakati haqida o'ylab ko'rish' degan ma'noda ishlatiladi.

→ 예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보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To'satdan avtohalokatga yo'liqqach nima qilishni bilmay, ko'z oldim qoron g'ulashib ketdi.
그 사람도 알고 보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U kishini yaxshiroq o'rganib ko'rsam ko'p qiynalgan inson ekan.

그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추억으로 남네요.
O'sha vaqtda qiyin ish bo'lib ko'rinsada o'tib ketgandan keyin hammasi xotira
bo'lib qolar ekan.

18 -고서

Ushbu qo'shimcha vaqt va tartibga qarab gapirganda ishlatiladi.

→ 예

과일을 깎아 놓고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Mevani archib qo'ygandan keyin kofe damlashni boshladi.

콩나물을 삶을 때에는 소금을 넣고서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해.

No'xotni qaynatganda tuz solib qopqoqni yopib qo'yish kerak.

일단 음식들을 먹어 보고서 뭐가 제일 맛있는지 이야기하겠다.

Oldin ovqatlarni yeb ko'rgandan keyin qaysi biri eng mazali ekanligini
aytaman.

19 -고서라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ham, -keyin ham-, hech bo'lmasa-' deb tarjima
qilinadi.

→ 예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Qurbonliklarga duch kelsak ham, biz o'z maqsadimizga erishishimiz shart.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꼭 해야겠니?

Ota-onangning qarshiligiga qaramasdan u bilan turmush qurmoqchimisən?

20 -고서야

O'zbek tiliga 'faqat (qilib bo'lib)-, keyin-' deb tarjima qilinadi. Ushbu qo'shimcha
o'zi bilan birga -고서 biriktiruvchi qo'shimchaning kuchaytirilgan ko'rinishini taqdim
etadi. Biror bir ish harakati umuman tugagandan so'ng ergash gapdagi ish harakati yu-
zaga kelishini bildiradi. Ya'ni ergash gapdagi ish harakati yuzaga kelishiga turtki
bo'ladi.

→ 예

내 말을 듣고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다.

Faqat mening so'zlarimni eshitgandan keyingina barcha anglashilmovchiliklar bartaraf etildi.

상태를 직접 보고서야 평가를 내릴 수 있다.

Vaziyatni o'z ko'zim bilan ko'rgandan keyingina baho bera olishim mumkin.

수많은 책을 읽고서야 논문을 썼다.

Sanoqsiz kitoblarni o'qigandan keyingina diplom ishimni yozdim.

21

-고자

Yetakchi fe'l ifodalangan kuchsiz istak yoki orzuni bajarishni ma'lum qiladi.

→ 예

이 달까지 원고를 다 쓰고자 합니다.

Bu oygacha qo'lyozmani hammasini yozib qo'ymoqchiman.

누구나 좋은 집에서 잘 살고자 할 거예요.

Har kim ham yaxshi uyda yaxshi yashashni xohlaydi.

22

-고 해서

Har xil gaplar orasidan asosiy bir bo'lagini eshitib gapirganda ishlatiladi. -고 하다 va -아/어서 qo'shimchalari bilan bog'liq bo'lgan holda, -아/어서 qo'shimchasining chegaralanganligini o'z ichiga oladi. So'roq so'zlarda ishlatiladi. Buyruq so'z yoki taklif so'z oldidagi har hil sabablar orasidan asosiysini eshitib gapirganda -고 하니까 ishlatiladi.

→ 예

모처럼 한가하고 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해 봤어요.

Uzoq kutilgan dam olish kuni deb o'zgacha ovqat tayyorlab ko'rdim.

날씨도 차고 하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Ob-havo ham juda sovuq, ehtiyot bo'lib borib kel.

23

-곤 하다

Ushbu qo'shimcha doimiy takrorlanib turuvchi ish harakatini ifodalaydi.

→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영장에 가곤 했어요.

Har doim vaqtim bo'lganda basseynga borardim.

작년부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O'tgan yildan buyon sog'lamlashtirish klubiga borib turaman.

그를 도와주곤 했었어요.

Unga yordam berib turardim.

24 -구태여 -(으)ㄹ 필요가 없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ataylab, bilib turib' deb tarjima qilinadi.

→ 예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달성됐는데 구태여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Tomonlar o'rtasida kelishuv tugaganini bilib turib qo'shimcha kelishuvlar qo'shish shartmikan?

일이 벌써 벌어졌으니까 구태여 갈 필요가 없습니다.

Ish allaqachon buzilganini sababli borishni keragi emas.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구태여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Bunday ko'rinishda biznesni olib borish uchun atayin yuridik shaxsni ta'sis qilish shart emas.

25 -군요

Undov gaplarni tuzish uchun o'tgan zamon -았/었/였군요, hozirgi zamon -(는)군요 yoki kelasi zamon -겠군요 kesimlarining negizlariga qo'shilshilsh -군요, -구나, -군 turlovchi qo'shimchalar ishlatiladi. -군요 turlovchi qo'shimcha undov qo'shimchalarining hurmat shakli hisoblanadi.

→ 예

빨리 오셨군요.

Tez kelibsiz-ku.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겠군요.

Bunaqada sizga qiyin bo'ladi-ku!

저 선수가 빨리 뛰는 군.

Anavi sportchi shunaqangi tez yugurar ekan-ki!

26

그다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unchalik' degan ma'noni beradi. Biror ish harakati yoki holat oy'laganchalik bo'lib chiqmaganligini ifodalaganda ishlatiladi. So'zning oxirida ko'proq negativ so'z keladi.

→ 예

이 옷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Bu kiyim unchalik qimmat emas.

생각보다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Bu men o'ylaganchalik xavfli emas ekan.

디자인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Bu dizayn unchalik chiroyli emas ekan.

27

그래도 그렇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mayliku-ya lekin', 'shundaylikka shundayku-ya, lekin'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래도 그렇지 수업을 빠지면 안 되잖아.

Mayliku-ya, lekin baribir darslarni qoldirish mumkin emas-ku.

그래도 그렇지 미래의 협력 전망을 생각해야지.

Shundaylikka shundayku-ya, lekin kelajakdagi xamkorlikning muvaffaqiyatlari haqida o'ylash kerak.

28

그런대로

Ushbu qo'shimcha 'qanchalik darajada, unchalik bo'lmasada, juda zo'r bo'lmasada' degan ma'nolarni ifodalaydi.

→ 예

그는 그런대로 좋은 사람입니다.

U yetarlicha bo'lmasada yaxshi odam.

어제 먹었던 음식은 오늘 것보다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Kechagi ovqat bugungisiga qaraganda durustroq edi.

그는 그런대로 한국말을 잘 한다.

U yetarlicha bo'lmasada, koreys tilida yaxshi gapiradi.

29 그렇지 않아도

Ushbu ibora bosh gapdagi ish harakatini takrorlab kelishi, bosh gapdagi ish harakatini bajarmoqchi bo'lganini ifodalaganda ishlatiladi.

→ 예

빵을 사와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마침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Xudoga shukur non sotib olibsiz endigina bozorga bormoqchi bo'lib turgandim.

자네가 왔으니 다행이야.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하려고 했거든.

Kelganing yaxshi bo'ldi endigina telefon qilmoqchi bo'lib turgandim.

30 -기

-기 qo'shimchasi fe'l va sifatga qo'shilib, harakat nomini yasaydi va qapda ular ega, to'ldiruvchi va boshga gap bo'lakilari bo'lib keladi. Harakat nomi qo'shimchasini olgan fe'l ortidan 쉽다, 어렵다, 바라다, 희망하다, 좋다, 나쁘다, 힘들다, 불편하다, kabi fe'llar kelsa -기 qo'shimchasini olgan oldingi fe'l otlarga o'xshab -가, -는, -에, -도, -를 qo'shimchalarini o'ladi.

→ 예

사람이 좋아서 살기가 괜찮습니다.

Yaxshi odam bo'lgani uchun yashasa bo'ladi.

이 경기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Bu musobaqada yutush oson emas.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Baxtli bo'lishingizni tilayman.

5시에 극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Soat 5da kinoteatrga borishga kelishdik.

빨리 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Tezda tuzalib ketishingizni tilayman.

짜지 않아서 먹기가 좋습니다.

Sho'r bo'lmagani uchun yesa bo'ladi.

31

-기가

Fe'lga qo'shilib ot yasovchi -gi qo'shimchasiga bosh kelishik qo'shimchasi -ga qo'shimchasi birikib gapda ega vazifasini bajaradi. Bu qo'shimchada u quyidagi fe'l va sifatlar bilan birikadi: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 쉽다, 어렵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 예

미국에 살기가 좋습니다.

Amerikada yashash yaxshi.

이곳을 떠나기가 싫어요.

Bu yerdan ketishni xohlamayman.

이 일을 하기가 쉬워요.

Bu ishni qilish oson.

여기서 양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Bu yerda o'zaro til topishish qiyin.

한국말 배우기가 재미있습니다.

Koreys tilini o'rganish qiziqarli.

32

-기 나뉠이다

Ushbu qo'shimcha biror bir narsa yoki ish harakatining natijasi nimagadir bog'liqlig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기 나뉠이다
명사 + 나뉠이다

→ 예

향후 정책은 오늘 결정하기 나뉠이다.

Kelgusidagi siyosat bugungi qarorga bog'liq bo'ladi.

양국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협상하기 나뉠이다.

Ikki mamlakatning kelgusidagi hamkorligining qanday yo'nalishda rivojlanishi muzokaralarga bog'liq.

구입하신 제품의 수명은 사용하기 나뉠입니다.

Sotib olingan tovarning xizmat muddati, undan qanday foydalanishingizga bog'liq.

33 -기는

Ushbu qo'shimcha fe'l negiziga qo'shilib keladi, ta'kid yuklamasi hisoblanadi. O'zbek tiliga '-u, -yu, -ku' deb tarjima qilinadi.

→ 예

돈이 있기는 있어요.

Pul borlikka-ku bor.

가기는 가겠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orishga-ku boraman, lekin u bilan ko'risha olamanmi bilmayman.

바쁘기는 하지만 도와줄게요.

Bandlikka bandman-u, lekin baribir senga yordam beraman.

34 -기는 하되

Berilgan qo'shimcha ikkita oddiy gapdan bitta murakkab qo'shma gap yasaydi. Birinchi qism -되 bilan bildirilayotgan ma'noga rozilik yoki ma'qullashni ifodalasa, ikkinchi qism esa birinchi qismga aloqador bo'lgan aniq chegaralangan shartni ifodalaydi. Kesim bo'lib keladigan otning ishlatilishida -(이)로되 shakl ishlatiladi. O'zbek tiliga 'lekin' deb tarjima qilinadi.

→ 예

내가 가기는 하되 너도 같이 가야 한다.

Men borishga-ku boraman, lekin sen ham birga borishing kerak.

양국간 협력을 계속하기는 하되,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Biz ikki mamlakat o'rtasidagi hamkorlikni davom ettirishga-ku ettiramiz, lekin buni belgilangan xalqaro qonunlar doirasida qilamiz.

35 -기는 하지만

Bosh gapdagi ish harakatiga urg'u berib ergash gapda shu vaziyatga bog'liq bo'lgan ish harakati yuzaga kelganda ishlatiladi. -지만 ga qaraganda -기는 하지만 yanada kuchliroq ma'noni beradi. -지만 bosh gap va ergash gapning egalariga bog'liq bo'lmaydi. Lekin -기는 하지만 odatda bosh va ergash gapdagi ega bilan birikadi.

→ 예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합격 여부는 장담할 수 없었다.

Imtixonga g'ayrat bilan tayyorgarlik ko'rishga-ku ko'rdim lekin o'tish yoki o'tmasligimga bilmayman.

육체는 고되고 생활도 뻘뻘하기는 했으나 기분만은 더없이 느긋하던 때였다.
Tanaga og'ir bo'lib, hayot qiyin bo'lganda ham xotirjam vaqt edi.

36

-기네요

Shubhalanish yoki bo'lishi mumkin bo'lmagan gapni eshitib suhbatdoshining fikriga qo'shila olmasligini bildirganda ishlatiladi. Maqtov so'zi eshitganda kamtarona javob qaytarish uchun ishlatiladi. To'liq gapni to'liqsiz qilib ifodalaganda ishlatiladi.

→ 예

부지런하네요. 늘 누가 깨워 줘야만 겨우 일어나는 걸요.

Tirishqoq emas. Kimdir uyg'otsagina turadi-ku.

아프네요.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Kasal emasman. Shunchaki dam olayotgan edim.

37

-기는커녕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qanaqa-, -ku, -uyoqda tursin' deb tarjima qilinadi. Ikkita ish harakati qarama-qarshi ishlatilib, ushbu ish harakatining munosabati bir-biriga qarama-qarshiligini ko'rsatadi. Bosh gapning asosiy ma'nosini ajratishda ishlatiladi.

→ 예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 합니다.

Yurish uyoqda tursin, o'mimdan tura olmayapman.

그는 노래 부르기는커녕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U qo'shiq aytish u yoqda tursin amallab gapirolmaydi ham.

그를 만나기는커녕 이야기 듣기도 싫어요.

U bilan uchrashish uyoqda tursin, u haqida eshitishni ham xohlamayman.

38

-기도 하고 -기도 하다

Berilgan qo'shimcha fe'llar bilan ham sifatlar bilan ham ishlatilishi mumkin. Bir vaqtdalik, qarama-qarshi faoliyat yoki holatni ta'kidlaydi. Ushbu qo'shimcha '-ham-, ham' deb tarjima qilinadi.

→ 예

주말에는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Dam olish kunlari kitob ham o'qiyman, do'stlarim bilan ham uchrashaman.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과학을 가르치기도 한다.
O'qituvchi Kim maktabda ham matematika, ham ijtimoiy fandan dars beradi.
이 그림은 아름답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다.
Bu rasm ham chiroyli, ham g'alati ko'rinadi.

39 -기라도 하면

Ushbu qo'shimcha bilan bir ish harakatini to'satdan yuz berishi mumkinligini ifodalaganda ishlatiladi. Bu qo'shimcha qo'shilgan gapda biroz xavotir borligi seziladi.

예

컴퓨터를 전원에서 분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고장 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Kompyuterni tarmoqdan o'chirmang. Agar u buzilib qolsa, nima qilasizlar?
휴대폰을 꺼두세요. 수업 시간 중에 벨이 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Qo'l telefonlarni o'chirib qo'ying. Dars paytida to'satdan qo'ng'iroq bo'lib qolsa, yaxshi bo'lmaydi.

40 -기란

Fe'lga qoshilib 'qandaydir ishni bajarish' ma'nosini beradi. Ushbu qo'shimchadan keyin 'og'ir, qiyin' kabi sifatlar keladi.

예

다른 사람을 돕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O'zga kishiga yordam berish ham unchalik oson ish emas.
요즘 같은 불황에 마음에 드는 취직자리를 구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지요.
Hozirgi qiyin kunda ko'ngilga yoqqan ish joyini topish juda qiyin masala.

41 -기로서니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shunday) bo'lsa ham, lekin, qanchalik, lekin (baribir)' deb tarjima qilinadi. Berilgan qo'shimcha fe'llar, sifat va ot-kesim bilan qo'shilib kelishi mumkin. Rozilik va qarshilik ma'nosini ifodalaydi. Ko'pincha, 아무리 so'zi bilan qo'shib ishlatiladi. -기 qo'shimchasidan oldin o'tgan zamon affiksi ishlatilishi mumkin, yetakchi barcha zamon shakllarida turishi mumkin.

→ 예

아무리 사장이기로서니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Direktor bo'lsangiz ham, ishchilar bilan bunday munosabatda bo'lish mumkin emas.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전화도 한 통 안 하면 되겠어요?

Qanchalik band bo'lsangiz ham, qo'ng'iroq qilib qo'ysangiz bo'lmasmidi?

아무리 네 아들이기로서니 함부로 야단을 치면 되니?

U o'g'ling bo'lsa ham, unga sababsiz baqirish mumkinmi?

42

-기/게 마련이다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ni bajarsa qandaydir bir aniq natija chiqishi-ni aytganda ishlatiladi. Faktda xuddi biron-bir natijaning tabiiyligini ko'rsatadi.

→ 예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Tamaki cheksang sog'liq yomonlashishi aniq.

법을 위반하면 벌을 받기 마련이지요.

Qonunni buzsa jazoni olish aniq.

나쁜 사람과 만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Yomon odamlar bilan uchrashsang ularga o'xshab qolishing aniq.

43

-기만 하면 (되다)

Biror bir ish harakatini bajarashi bilan biror bir natija chiqqan yoki chiqadiganligini ifodalaydi. Ushbu qo'shimcha 'o'sha zahoti'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단축키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메뉴가 뜬다.

Tugmani bosishingiz bilan o'sha zahoti menyu chiqadi.

그 사람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난폭해진다.

U kishi rulni ushlashi bilan sho'xlik qilishni boshlaydi.

44

-기 십상이다

Ushbu qo'shimcha inkor ma'noga ega va aniq bir asosga nisbatan taxminiy ishonch-ni 80-90%ligini bildiradi, ya'ni o'sha ish harakatiga to'liq ishonmaslikni, hali ham

shubha, ishonchsizlik mavjudligini bildiradi.

→ 예

추운 날씨에 이것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다.

Bunday havoda mana shunday yursang, shamollab qolasan.

게으름을 피운다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Dangasalik qilsangiz - omadsizlikka uchrashingiz mumkin.

사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기 십상입니다.

Jamiyatning axloqsiz bo'lishi mamlakatning batbod bo'lishiga olib kelishi mumkin.

45 -기 짝이 없다

Ushbu qo'shimcha 'qandaydir bo'lish', 'shunaqangi' degan ma'nolarni beradi. Berilgan qo'shimcha otlashgan sifatlar bilan ishlatilib, aniq bir holatga nisbatan nixoyatda emotional xitobi hamda biror bir ish harakati yoki 'narsaga taqqoslab bo'lmaydigan darajada' degan ma'noni bildiradi. Odatda so'zlashuv nutqida ishlatiladi.

→ 예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Sening qilgan ishinga qarab, shunaqangi uyaldim.

그 나라가 패전한 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U davlat mag'lubiyatidan so'ng shunaqangi nochor ko'rinishga kelib qoldi.

당사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Taraflar o'z gaplarida turmasalar, shunaqangi alam qiladi.

46 -기 위해(서)

Birinchi gapdagi ish harakati sodir bo'lishi uchun keyingi ish harakatini qilish ma'nosini bildiradi.

→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Orzuga erishish uchun o'qiyapman.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U qizni tushunish uchun ko'p harakat qildim.

당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 다녔는지 아세요?

Sizni topish uchun qanchalar yugurganimni bilasizmi?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Koreyaga borib o'qish uchun koreys tilini o'rgandim.

47 -기(가) 일쑤이다.

O'zbek tiliga 'doimiy, deyarli har doim, odatga kirgan, oddiy hol bo'lib qoldi' deb tarjima qilinadi. Ushbu qo'shimcha inkor ma'noga ega fe'llar qatorida ishlatiladi va kimdir tomonidan istaksiz yoki xohishsiz faoliyatni tez-tez sodir bo'lishini ko'rsatadi.

→ 예

그는 자주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게 오기 일쑤이다.
U ko'pincha kech uxlagani uchun deyarli har doim maktabga kech qolib kelishi tabiiy hol.
남과 함께 일하면 의견 차이가 나기 일쑤더라고요.
Boshqa odamlar bilan ishlash jarayonida, fikrlarda xilma-xillik yuzaga keladi.
요즈음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Oxirgi paytlarda qilishim kerak bo'lgan ish doim esimdan chiqib qolmoqda.

48 -기에는

O'zbek tiliga 'uchun' deb tarjima qilinadi. Berilgan qo'shimcha aniq bir jarayonda aniq o'lchovning bo'lishini ta'kidlaydi. Bunday ma'noda u faqat fe'llar bilan qo'shilib kelishi mumkin. Gapdagi asosiy fe'l negiziga -기에는 qo'shilib keladi. Gapning oxirida quyidagi 좋다, 나쁘다, 크다, 바쁘다 적당하다, 늦다, 부족하다, 익숙하다, 지치다 va boshqa sifatlar bilan birga keladi.

→ 예

그 말은 전달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Bu so'zlarni yetkazish menga bir muncha noqulay.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Barcha kelishmovchiliklarni tuzatishga bizda vaqt yetmayapti.

49 -기에 달리다/-느냐에 달리다

Biror bir natijaning kelib chiqishi kimga yoki nimagadir bog'liq ekanligini ifoda-

laydi. O'zbek tiliga 'kimgadir/nimagadir bog'liq bo'lmo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승진은 네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

Mansabga ko'tarilish sening qanday ishlashingga bog'liq.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너 하기에 달려 있다.

Bu ishning qanday borishi senga bog'liq.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Narxlar talab va taklifga bog'liq bo'ladi.

50

-기에/-(으)니 망정이지

Ushbu qo'shimcha 'yaxshiyamki, bo'lmasa'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가 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Yaxshiyamki, u keldi, bo'lmasa, nimalar sodir bo'lishi mumkinligini bilmas edim.

일찍 출발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Yaxshiyamki, vaqtliroq chiqibsiz, bo'lmasa sal qolsa uchrashuvga kech qolardik.

차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걸어서 왔을 거예요.

Yaxshiyamki, mashinamiz bor, bo'lmasa piyoda kelishga to'g'ri kelardi.

51

-길래

O'zining ishonchiga qarab harakat qilgan holat tog'risidagi tajribasini aytganda ishlatiladi. -길래 qo'shimchasi -더- ga o'xshash grammatik tushintirish vazifasini bajaradi. Shunga ko'ra I-shaxsdagi so'zlovchi bosh gapning egasi bo'lib kela olmaydi. Ergash gapning egasi albatta I-shaxsda bo'lib qisqartirilgan vaziyatlarda to'ldiruvchi ko'proq harakat fe'lining o'tgan zamonidaligini bildiradi.

→ 예

무슨 일들을 어떻게 했길래 초장부터 속을 썩이나?

Qanday ish qilibmanki boshidan boshlab ichi yonadi?

제 딸애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하길래 잠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Mening qizim qanday joyligini bilgisi kelgani uchun ozgina tomosha qildirdim.

52

-깨나

O'zbek tiliga 'judayam, juda' deb tarjima qilinadi. Ushbu yordamchi yuklama gapda faqat to'g'ri to'ldiruvchi bilan birga qo'shilib keladi. Ko'pirtirilgan yoki xaddan ortiqlikni ko'rsatadi. Og'zaki nutq uslubida ishlatiladi.

→ 예

적당한 선물을 사려면 돈깨나 써야겠다.

Munosib sovg'a olish uchun ko'p pul sarflashga to'g'ri keladi.

이삿짐을 나르느라고 힘깨나 썼다.

Ko'chganda yuklarni tashish uchun juda ko'p kuch sarfladim.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시험 기간 중에 공부깨나 하나 봐요.

Uning unchalik ko'rinmayotganiga qaraganda, imtixonlarga berilib tayyorlanayotgan bo'lsa kerak.

53

-껏

Ushbu qo'shimcha bor kuchini ishlatib harakat qilgan vaziyatda ishlatiladi.

→ 예

화가 나서 발로 문을 힘껏 걷어찼다.

Jahli chiqqandan keyin bor kuchini ishlatib oyog'i bilan eshikni tepib yopdi.

정성껏 포장해 봤자 쓰레기만 될 텐데 뭐하러 할까?

Samimiy chiroyli qilib o'raganing bilan axlat bo'ladi-ku nimaga kerak?

54

-끼리

-끼리 qo'shimchasi otlarga qo'shilib belgilangan ob'ekt inson yoki hayvonlarni qandaydir umumiy belgi (sinf, tabaqa) ostida birlashishini (guruh, omma, gala, poda) bildiradi. O'zbek tiliga 'faqat, -gina' deb tarjima qilinadi.

→ 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끼리 해보자.

Qiyin ish bo'lsa ham birgalashib bir bajarib ko'raylik.

사람들끼리 정답게 모여 삽니다.

Faqat odamlargina o'zaro do'stona birlashib yashaydi.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Xarakteri o'xshash odamlargina o'zaro bir-biriga mos bo'ladi.

다른 사람들은 바쁘니까 우리끼리만 극장에 가요.

Boshqalar band bo'lgani uchun faqat o'zimiz teatrga boraylik.

55

-ㄴ/는 김에

Ushbu qo'shimcha qandaydir bir ish yoki vaziyatdan foydalanish ma'nosida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ㄴ/는 김에

→ 예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

Gap chiqqanga yarasha, aniq javob eshitgim keldi.

이왕 들어온 김에 좀 쉬어 갑시다.

Endi kelganimizga yarasha ozgina dam olaylik.

56

-ㄴ/는 다고 하다/-(이)라고 하다

- (1) O'zga shaxsning gapini boshqa bir kishiga etkazishda ishlatiladi. Fe'lga -ㄴ/는 다고 합니다 sifatga esa -다고 합니다 qo'shilladi. So'zlashish uslubida -답니다/-대요 dan foydalaniladi. -이다, -이가 아니다 esa -이라고 하다, -이가 아니라고 하다 ko'rinishida yoziladi.

→ 예

성호가 선생님께서 널 찾으신다고 하던데.

O'qituvchi seni qidirayotganini Songho aytdi.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대요.

Dori ichgan bo'lsa ham yana og'riyotganini aytdi.

- (2) Ko'chirma gap yasovchi qo'shimchaning bog'lovchi va tugallovchi so'zlashuv uslubida -고 하- bilan qo'shilib ishlatilgan vaziyatlar ko'p uchraydi.

예

네가 간다고 하면 빌리가 좋아할 거야. - 네가 간다면 빌리가 좋아할 거야.
Sen boraman desang Billiga yoqib tushadi. - Sen boraman desang Billiga yoqib tushadi.

요즘 70년대 패션이 유행한다고 하지 뭐야 - 요즘 70년대 패션이 유행한단지 뭐야
Shu kunlarda 70-yillardagi uslubi moda bo'ladi deyishyapti. - Shu kunlarda 70 yillardagi sitil moda bo'ladi deyishyapti.

대학 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 대학 시험이 없어진다는 말 들었어요?

Institut imtixonini yo'qolar ekan degan gapni eshitdingizmi? - Institut imtixonini yo'q ekan degan gapni eshitdingizmi?

(3) -다/냐/라/자고 해 qo'shimchasining qistartirilgan ko'rinishi 대/내/래/재 hisoblanadi.

예

정은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 줬어. - 정은이가 돈이 없대서 해서 빌려 줬어.
Chongin pulim yo'q degani uchun qarz berdim. - Chongin pulim yo'q degani uchun qarz berdim.

나보고 집에 혼자 가라고 했잖아요. - 나보고 집에 혼자 가랬잖아요.

Menga 'uyinga yolg'iz bor'-deding-ku. - Menga uyinga yolg'iz bor deding-ku.

친구가 오늘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해요. - 친구가 오늘 연극을 보러 가재요.

Do'stim 'bugun teatrda boraylik'-dedi. - Do'stim bugun teatrda boraylik dedi.

57

-ㄴ/는 다고 하더라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shunday gapirishsa ham, -bo'lsa ham' deb tarjima qilinadi. To'siqsiz ergash gapli qo'shma gaplarni tuzganda ishlatiladi.

예

그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

Uning bu ishga aloqasi yo'qligini aytayotgan bo'lsa-da, men bu so'zlariga ishonolmayman.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먼저 시험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Uni yaxshi odam desalarda, lekin men uni avval sinab ko'rish kerak deb hisoblayman.

다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Hamma qarshi bo'lsa ham, men baribir voz kechmayman.

58

-ㄴ/는 다고 할지라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shunday bo'lsa ham, baribir' degan ma'noni bildiradi. Bosh gapdagi ish harakati ergash gapdagi ish harakatiga zid ma'noda keladi.

→ 예

너를 어디선가 마주친다 할지라도 아는 척 하지 않을 것이다.

Seni biror yerda ko'rib qolsamda tanimaslikka olaman.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Har qanday qiyinchilik va qo'rquv mening yo'limga to'siq bo'lmasin, men ularni yengib olg'a ketishda davom etaman.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Odamlar ko'nglida o'z kelajagi rejasini tuzsalar, hammasi ham o'ylanganlaridek bo'lavermaydi.

59

-ㄴ/는 다고 해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bo'lsa ham, mayli shunday bo'lsin' deb tarjima qilinadi. Bosh gapdagi qarama-qarshiliklarga qaramasdan bajarishini aytganda ishlatiladi.

→ 예

갈등이 있다고 해도 접촉은 이루어져야지.

Qarama-qarshilik bor bo'lsa ham, aloqani amalga oshirish kerak.

그대와 나 떨어져 있다고 해도 내게 있어 당신은 너무나 그리운 사람이다.

Sen va men birga bo'lmasak ham, men uchun sen doimo sog'inib yashovchi insonimsan.

워낙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세계선수권 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Mamlakat ma'qomida tanlov shunchalik kuchli bo'lganligi sababli, olimpiyada oltin medali soxibi bo'lsalarda jahon chempioni bo'lishiga kafolat yo'q.

60

-ㄴ/는 다고 해서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qilib bo'lib, gapirib (aytib)'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Puli yo'q deb tanimaslikka olish kerakmi?

관심이 없다 해서 강의를 안 들으면 되느냐?

Qiziqishim yo'q deb ma'ruzaga kirmaslik kerakmi?

아무도 안 본다 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

Hech kim ko'rmaydi deb axlatni duch kelgan joyga tashlab bo'lmaydi.

61 -ㄴ/는 다고들 하다

Biror bir ish harakatini boshqa kishilarga etkazishda ishlatiladi. Ushbu qo'shimcha -들 qo'shimchasi sifatida ishlatiladi, so'z oxiridagi ravishga qo'shilib keladi va ushbu gapning egasi ko'plikda bo'ladi.

→ 예

그 사람들은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라고들 하던데요.

U kishilarning hammasi eskicha o'ylaydi deyishadi.

처음 불이 난 곳은 이층 3호실이라고들 하던데요.

Eng birinchi olov chiqqan joy ikkinchi qavatdagi uchinchi xonadan deyishyapti.

62 -ㄴ/는 다기에

Bu qo'shimcha asosan fe'llar negiziga yoki sifat nomlariga qo'shilib, gapning birinchi bo'lagida kelgan boshqa odamdan eshitilgan ma'lumot gapning ikkinchi bo'lagidagi qilingan harakatning sababini bildiradi.

→ 예

그가 새 집 살 돈이 부족하다기에 천 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Unga yangi uy sotib olishi uchun puli yetmagani sababli 10mln. von qarz berib turdim.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언어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기에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Bugun Seul milliy universitetida til siyosati bo'yicha seminar bo'layotganligi sababli birgalikda borishga qaror qildik.

63 -ㄴ/는 다니/-(이)라니

Bu qo'shimcha -는다고 하니 qo'shimchasining qisqartirilmasidan tashkil topgan bo'lib ikkita murakkab bo'laklarni bog'laydi, gapdagi asosiy harakatni, kelib chiqishini yoki uchinchi shaxsning harakatini ko'rsatadi. O'zbek tiliga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예

수영을 못 한다니, 바다에 안 가고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U suzishni bilmaganligi sababli, biz dengizga emas balki toq'qa borishga qaror qildik.

진원이가 이 책을 번역하지 못 하겠다니,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Chivoni bu kitobni tarjima qila olmasligini aytgani sababli, boshqa odam topdim.

64 -ㄴ/는 다면

Ish harakati yoki vaziyatning taxmin ma'nosini bildiradi. -다고 하면 qo'shimchasining qisqartirilgan ko'rinishi hisoblanadi. -이다 bilan tugagan bo'lsa -이라면 ko'rinishi, 아니다 bilan tugagan fe'llarga esa 아니라면 ko'rinishi ishlatiladi.

예

나를 찾은 용건이 사과하는 것이었다면,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Meni izlaganingni sababi kechirim so'rash bo'lsa, men e'tibor berganim yo'q shunchaki ketishing mumkin.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서비스에 가입시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Xaridorlarning rozilgisiz o'zingizcha servis ko'rsatsangiz muammo chiqmaydimi?

65 -ㄴ/는 다면 하나같이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aytadigan bo'lsak, unda hamma' degan ma'noni bildiradi.

예

우리 반은 한 번 무슨 일이든지 하기로 하면 하나같이 열심히 한다.

Bizning guruh biror ishni qilmoqchi bo'lsa hamma birdek tirishib harakat qiladi.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판다면 온 나라 국민이 하나같이 기뻐할 것이다.
Olimpiya o'yinlarida oltin medal soxibi bo'lsa butun xalq birdek xursand bo'ladi.

66 -ㄴ/는 다면서요?

So'zni ma'nosini bilib yoki eshitgan haqiqatni yana bir bor tekshirib ko'rib javob berganda ishlatiladi. Asosan o'zlashtirma gaplarda ishlatiladi. Darak gapda -ㄴ/는 다면서요? so'roq gapda -냐면서요?, buyruq gapda -(으)라면서요? taklif ma'noda -자면서요 ko'rinishlaridan foydalaniladi.

→ 예

영하 씨가 제일 고생이 많다면서요?

Yongha eng ko'p ishladi deb eshitdim, shu to'g'rimi?

자네는 구청에 근무한 적도 있다면서?

Siz hokimiyatda ishlab ko'rgansiz deb eshitdim, shunaqami?

67 -ㄴ/는 다면야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agarda'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면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Agarda xavsizlik borasida biror muammo bo'ladigan bo'lsa, unda yangi tizim joriy etish lozim.

경제력만 된다면야 시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garda iqtisodiy kuch bo'lsa, vaqtda muammo bo'lmaydi deb o'ylayman.

68 -ㄴ/는 답시고/-(이)랍시고

So'zlovchi boshidan yaxshi maqsadlar yo'lida boshqa odamning harakatlari natijasi-dan qoniqish yoki e'tirozini bildirgan paytda ishlatiladi. Qoniqarli ma'nolarni ifodalovchi fe'llar bilan birikadi.

→ 예

그는 공부한답시고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만 하는군요.

U o'qiyman deb faqat komputer o'yinlari o'ynaydi.

친구랍시고 돈 빌려 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Do'st deb pul qarz so'ragandim rad qildi.

69 -ㄴ/는 동안(에)

Qandaydir bir ish harakatini ma'lum bir vaqt davomida bo'lib o'tishini bildiradi. O'zbek tiliga 'vaqtida, davomida, mobaynid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는 동안(에)
명사 + 동안(에)

→ 예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Bir oy davomida bu dorini ichishingiz kerak.
전화하는 동안에는 텔레비전을 꺼 주세요.
Telefon qilayotganimda televizorni o'chirib turing.
얼마 동안이나 외국에 계십니까?
Qancha vaqt mobaynida chet elda bo'lasiz?

70 -ㄴ/는 중

Ot yoki fe'ldan keyin qo'llanilib harakatni amalga oshirilgan vaqti yoki uning jarayonini ifodalaydi. O'zbek tiliga 'vaqtda, davomid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는 중
명사 + 중

→ 예

녹음을 하는 중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Ovoz yozib olinayotgan vaqtda jimlikni saqlash kerak.
지금은 식사중입니다.
Hozir ovqat vaqti.
저는 그 사람을 여행 중 만났습니다.
Men u odamni sayohat vaqtida uchratdim.
수업 중에 농담하지 마십시오.
Dars vaqtida hazil qilmang.

71 -나 보다

So'zlovchining qandaydir fakt haqida taxminini ifodalaydi. Sifatda -는/은 가 보다 qo'shimcha bilan birga qo'llaniladi.

→ 예

돈이 없나 봅니다.

Puli yo'qqa o'xshaydi.

밖에 눈이 오나 봅니다.

Ko'chada qor yog'ayotganga o'xshaydi.

72 -나 싶다

So'zlovchining biror bir asosi haqidagi ishonchsiz farazini ifodalab '-mi deb o'ylamoq' ma'nosida qo'llaniladi. So'zlovchi yetakchi fe'l harakatini taxmin qiladi.

→ 예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 보았습니다.

Yeydigan biror narsa bormi deb muzlatgichni ochib ko'rdim.

다 끝났나 싶어서 들어와 보았습니다.

Hammasi tugaganmi deb kirib ko'rdim.

73 -나요?

Fe'l negizi yoki -았/겠- ga qo'shilib yoshi katta odamdan biror narsa so'ralganda ishlatiladi. -나요 da yumshoqlik, noziklik ma'nosi borligi uchun, erkaklarga nisbatan ayollar ko'proq ishlatadi.

→ 예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Hozir ko'chada yomg'ir yog'ayaptimi?

제가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나요?

Men bu hujjatga imzo qo'yishim kerakmi?

요즘 서울 날씨는 어떨까요?

Shu kunlarda Seulda ob-havo qanday?

74 -냐고

Savol tarzidagi o'zlashtirma gapni yasaydi, so'zlashishda qisqartirilib -합니다/-냐고요 ni ishlatiladi. Fe'lga -(느)냐고, sifatga -(으)냐고, otdan keyin -(이)냐고 qo'shiladi. -(으)냐고 dan keyin asosan 묻다, 질문하다, 하다, 말하다 kabi fe'llar ko'p ishlatiladi. Lekin so'zlashuv uslubida -냐고 ko'proq qo'llaniladi.

→ 예

그 아파트가 얼마나 높으냐고 해요.

U uy qanchalik baland deb so'rayapti.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분이 좀 좋아졌냐고 물으셨어요.

Doktor mendan kayfiyating oz bo'lsa ham yaxshilandimi deb so'radi.

75 -네요

So'zlovchi biror ish harakatini tinglovchiga yetkazganda undan hech qanday javob kutmaslik yoki sodir bo'lgan ish harakatini oddiy qilib tasvirlashda ishlatiladi.

→ 예

고향을 떠난 지 벌써 한 칠팔 년 돼 가네요.

Vatanimdan ketganimga allaqachon yetti sakkiz yilcha bo'lib qolibdi-ya.

어젯밤부터 열이 나고 그러네요.

Kecha oqshomdan beri haroratim ko'tarilyapti.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러네요.

Hozirgacha ahvoli o'zgarmabdi-a.

76 -느니

Ushbu qo'shimcha -는 것보다는 qo'shimchasining ekvevalenti hisoblanadi. Ushbu qo'shimchadan so'ng (차라리) -는 것이 낫겠다 ga o'xshash taqqoslash qo'shimchalari ham keladi.

→ 예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느니 극장에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는 것이 낫겠다.

Kun bo'yi faqat televizor ko'rib o'tirqandan ko'ra kinoteatrga borib kino ko'rgan yaxshi.

맛지도 않을 복권을 사느니 그 돈으로 국수나 한 그릇 사 먹는 게 좋을 걸?
To'g'ri kelmaydigan lotoreyani sotib olgandan ko'ra o'sha pulga bir kosa kuksu
olib ichgan yaxshidir?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갔다 오는 게 낫겠다.
Senga topshiriq bergandan ko'ra o'zim borib kelganim yaxshi.

77

-느냐 -느냐

Ushbu qo'shimcha ikki harakatni bog'lab, ularning qarama-qarshi yoki teskariligini ifodalaydi. Odatda hozirgi zamonda ishlatiladi. O'zbek tiliga 'yoki...' deb tarjima qilinadi.

→ 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O'lish yoki yashash manashu muammo.

합작을 하느냐 마느냐는 너의 결심에 달려있다.

Birlashish yoki birlashmaslik - sening qaroringa bog'liq.

78

-느라고

Ushbu qo'shimcha bosh va ergash gaplarning sabab va natijaviy aloqasini bildiradi. Shuningdek, bosh va ergash gaplarning faoliyati aynan bitta egaga tegishli bo'lishi kerak. Bosh gapning faoliyati odatda xohishsizlik yoki inkor xususiyatni ifodalaydi.

→ 예

일만 하느라고 결혼 시기를 놓쳤습니다.

Faqat ishlayman deb uylanish vaqtini o'tkazib yubordim.

아이를 돌보아 주느라고 청소를 못 했습니다.

Bolaga qarayman deb uylarni yig'ishtira olmadim.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Qo'shiq eshitaman deb qo'ng'iroq ovozi eshitmay qoldim.

79

-는걸요

Ushbu qo'shimcha mazmuni tugallangan ohangda gapirib so'zning oxirgi qismida ishlatiladi.

예

국립 민속 박물관에 가 보셨어요? / 그럼요, 거기에서 사진도 찍었는걸요.
 Davlat Etnografiya muzeyiga borib ko'rdingizmi? / Albatta, u yerda rasmga ham tushganman.
 요즘에도 운동을 계속 하시나요? / 네, 거의 매일 하는걸요.
 Hozir ham sport bilan shug'ullanib turasizmi? / Ha, deyarli har kuni shug'ullanaman.

80

-는 길

Bu otning asl ma'nosi 'yo'l, yo'nalish' bo'lsa-da, fe'l bilan qo'shilib kelganda qandaydir ish harakatining ma'lum vaqtda ro'y berishini anglatadi.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zamoniga qarab -ganda, (-ganimda, -gandim) deyish mumkin, yoki umuman tarjima qilinmaydi. Bu qapning mazmunidan aniqlanadi.

동사 + 는 길

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Qayerga ketyapsiz?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Ishni tugatib uyga qaytayapman.
 학교에 가는 길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Maktabga borayotganimda o'qituvchini uchratdim.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밖에서 만나요.
 Hozir ko'chaga chiqib ketayotgandim, ko'chada uchrashamiz.

81

-는 대로

Ushbu qo'shimcha 'qandaydir vaziyat yoki harakatni tezda yuzaga kelishi bilan' ma'nosida keladi.

예

도착하는 대로 편지해라.
 Yetib borishing bilan xat yoz.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하자.
 Kunlar ochilishi bilan jo'naymiz.

82

-는 데 급급하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botmoq, band bo'lmo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는 돈 버는 데만 급급하여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U pul topish bilan shunchalik bandligidan, oilasi haqida umuman qayg'ura olmadi.

김 박사는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Doktor Kim yangi loyihasini yaratish bilan butkul band bo'lganligidan talabalariga umuman e'tibor bera olmadi.

나는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오늘 수업의 숙제를 끝마치지 못했다.

Men ertangi imtixonlarga tayyorgarlik ko'rish bilan shunchalik band bo'lganimdan, bugunga berilgan uy ishlarini ham tugata olmadim.

83

-는 데 좋다/나쁘다

Ushbu qo'shimcha yaxshi yoki yomonning normasini ifodalaydi.

→ 예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냉수마찰이 좋다.

Qish faslida sog'liqni asrashda sovuq sochiq bilan artinish yaxshi.

난간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불편하다.

Zina ushlagichi qulab tushganligi uchun zinadan tushib chiqish juda noqilay.

84

-는 바람에

'O'sha narsa sababli' ma'nosini beradi. Sabab yuzaga kelib, birinchi o'rinda nohaqlik ma'nosida keladi. Ergash gapda harakat fe'li zamoni odatdagicha yoziladi.

→ 예

모두 배 멀미를 하는 바람에 밤새 누워 보지도 못했어요.

Barcha odamlar qayiq tebranishi sababli butun tun yota olmadilar.

숙회는 시어머니가 떠미는 바람에 망으로 들어갔다.

Qaynonasi Sukhvini turtib yuborgani sababli xonaga kirib ketdi.

85 -는 법을 알다/모르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usulini, uslubini, qoidasini bilish, bilmaslik'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가르치는 법을 알아야 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O'qitish uslubini bilsagina o'qituvchi sifatida muvoffaqiyatga erishish mumkin.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알아냈다.

O'z qo'rquvlarimizni yengib o'tishni bilib oldim.

남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봉사를 하겠어?

Boshqalarga ga'mxo'rlik qilishni bilmay turib, jamiyatga qanday xizmat qilish mumkin?

86 -는 수가 있다

Qandaydir haqiqat yoki harakat sodir bo'lsa yoki yuzaga kelishi mumkinligini aytganda ishlatiladi.

→ 예

닭에게 모이를 너무 많이 주면 체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Tovuqqa don juda ko'p berilsa zarar qilishi mumkin ehtiyot bo'lish kerak.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학생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수도 있어요.

Ba'zan kutilmagan talaba yuqori qobiliyatini na'moyon qilishi ham mumkin.

국제 관계에는 예상 밖의 변수가 작용하는 수가 있다.

Xalqaro aloqalarda taxmin qilingandan tashqari boshqa o'zgarishlar vujudga kelishi mumkin.

87 -는 중

Ushbu qo'shimcha fe'lga qo'shilib, 'vaqtida', 'davomida', 'ganda'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를 만나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일게 되었어요.

U kishi bilan uchrashib gaplashayotgan vaqtimda yangi xabarni bilib oldim.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뜯어보지도 않고 넣어 두었던 편지를 발견했다.

Stol ustini tartibga solayotgan vaqtimda ochib ko'rilmagan xatni topib oldim.

지금 진행 과정을 물어 보는 중이니까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Hozir bo'layotgan vaziyatni o'rganish vaqti bo'lganligi sababli savolni keyinroq bering.

88 -는 중이다

Qandaydir harakat yuz berayotganligini aytganda ishlatiladi. -는 중이다, 는 중에 bilan birga yozilishi ham mumkin. -고 있다 ga o'xshaydi.

동사/형용사 + 는 중이다
명사 + 중이다

예

올해 스물아홉인데 지금 한참 신부를 고르는 중이거든요.

Bu yil 29 yoshga to'laman shunga hozir qalliq tanlayapman.

89 -는 통에

Berilgan qo'shimcha kelgusidagi ish harakatining sababini ko'rsatadi. Odatda -는 통에 ni ifodalaydigan bunday sabab inkoriy natijani keltirib chiqaradi. O'zbek tiliga 'sabab bo'yicha, tufayli' deb tarjima qilinadi.

예

계속 망설이는 통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Doimiy ikkilanishlar tufayli men o'z imkoniyatimni boy berdim.

버스를 잘못 타는 통에 학교에 늦었습니다.

Avtobusga noto'g'ri o'tirganim tufayli darsga kech qoldim.

정신없이 일하는 통에 더욱 값진 것을 잃어버렸다.

Tinmay ishlaganim uchun, eng qadimli narsamni yo'qotdim.

90 -는 한

Ushbu qo'shimcha 'Bunday talabda' degan ma'noni bildiradi hamda ergash gapda odatda -(으)ㄹ 것이다 bilan birga kelib taxmin ma'nosini beradi.

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한 실패는 없을 것이다.

Tirishib tayorlanib harakat qilinsa mag'lubiyat bo'lmaydi.

도난 경보기가 작동하는 한 아무도 이곳에 침입할 수 없을 것이다.

Signal tizimi ishga tushsa hech kim bu yerga kira olmaydi.

91 -는 한이 있더라도

Berilgan qo'shimcha harakatni so'nggi darajada amalga oshiril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agar buning uchun' deb tarjima qilinadi.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는 계속하겠어요.

Ishlashimga to'g'ri kelsa ham, o'qishni davom ettiraman.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겠습니다.

O'lim xavfi bo'lsa ham urishaman.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Bizning munosabatlarimiz yomonlashsa ham, men o'z qarashlarimdan voz kecholmayman.

92 -다(가) 보니까

Qandaydir bir vaziyatni davom ettirib undan chiqqan natijaga asoslaganda, takror yoki maqullangan ish harakatining natijasi yuzaga kelganda ishlatiladi va ergash gapda albatta uch zamondan biri keladi. Takror yoki maqullangan ish harakatining natijasi taxmin qilinsa -다가 보면 dan foydalaniladi.

동사/형용사 + 다(가) 보니까

예

내 팔자가 기박하다 보니 형제라고 찾아보지도 못했다.

Meni taqdirim yomonligi sababli aka-ukalarimni izlab topa olmadim.

요즘 너나없이 바쁘다 보니 여유란 한 점도 없다.

Hozirda tinimsiz band bolganim sababli ozgina bo'sh vaqtim ham yo'q.

93

-다가는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 shu zaylda ketsa yaxshi natija chiqmasligi mumkinligini aytayotganda ishlatiladi. Ushbu qo'shimchaning da qartirilgan ko'rinishi - 다간 hisoblanadi.

예

이렇게 먹다가는 쌀이 금방 다 떨어지겠다.

Bunday yeyishda tez ozib ketasan-ku.

눈이 이렇게 계속 오다가는 집이 무너지겠다.

Qor bunchalik yog'aversa uylar yiqilishi mumkin.

그렇게 일을 하시다간 쓰러지지 않겠어요?

Bunday ishlasangiz yiqilib qolmaysizmi?

94

-다가도

Berilgan qo'shimcha bir ish harakatining yoki holatning tez yoki oson almashtir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bir bir, lekin' deb tarjima qilinadi.

예

날씨가 이상해서 춥다가도 금방 더워졌다.

Havo juda g'alati: sovvuq edi birdaniga issib ketdi.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다.

Yaxshi ishdan keyin yomon ish kelib chiqishi, yomon ishdan keyin yaxshi ishni kelib chiqishi tabiiy holdir.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Pul bir bor bo'lishi bir yo'q bo'lishi mumkin bo'lgan narsadir..

선수는 쓰러졌다가도 오통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Sportchi yiqilib tushganiga qaramasdan, sakrab qayta turib ketdi.

95

-다고 치다

Ushbu qo'shimcha qanday vaziyatligini o'ylaganda yoki taxmin qilganda ishlatiladi.

예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 놓는다고 치자, 그런다고 이 더위가 가시겠는가?

Havo purkagichni ertalabdan kechgacha yoqib qo'ydik ham deylik, shunda bu

issiqlik ketadimi?

내년에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쳐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Kelasi yili u kishi deputatlikka o'z nomzodini qo'ydi desak ham saylanishiga kafolat yo'q.

도서관에 책을 두고 왔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기증했다고 치지요. 뭐. Kutubxonaga kitobni qo'yib kelgandim topa olmadim. Shunchaki sovg'a qildim deb o'ylayman.

96

-다고 할까?/-(이)랄까?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ni o'zga kishiga etkazishdan oldin o'ylab olish, vaqtni cho'zish yoki ehtiyotkorlik bilan gapirilganda ishlatiladi.

→ 예

민 정 : 이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Min Jong: Bu kinoni ko'rganmisiz? Kino haqidagi ta'surotlaringiz qanday?

나오코 : 글썄요. 기분이 후련해진다고 할까? 민정 씨는 어땠어요?

Naoko: Bilmadim, kayfiyatim ko'tarildi desammikin? O'zingizchi?

민 정 : 음... 뭐랄까?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Min Jong: Im... Nima desam ekan? Jamiyatga boshqacha ko'z bilan qaray boshladim desam ham bo'ladi.

97

-다고 해도

Ushbu qo'shimcha 'Qandaydir bir ishni bajarishga harakat qilsada lekin' ma'nosida keladi. Ushbu gapning oxirida doim inkor so'z keladi.

→ 예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는 도착할 수 없겠다.

Hozir yo'lga chiqsang ham o'z vaqtda yetib bora olmayсан.

다시 만난다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Yana ko'rishsak ham boshqa aytadigan gapim yo'q.

98

-다기보다/-(이)라기보다

Ushbu qo'shimcha ikki so'zni bir-biriga taqqoslab gapir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ga qaraganda, -dan kora' deb tarjima qilinadi.

→ 예

또 1등을 했다니 아이가 참 머리가 좋은가 봐요. / 머리가 좋다기보다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Yana birinchi o'rinni olgan bo'lsa bola aqliga o'xshaydi. Aqlli deyishdan ko'ra ko'proq harakat qiladiganlar turidan.

따님과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 네, 딸이라기보다 친구에 가까워요.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거든요.

Qizingiz bilan munosabatingiz juda yaxshiga o'xshaydi. Ha, qiz deyishdan ko'ra dugonalardaymiz. Hamma ishni birga maslahatlashib qilamiz.

99

-다나요?

Ushbu qo'shimcha biron bir gapni boshqa kishiga yetkazishda ishlatiladi. Doim gapning oxirida fe'l negiziga qo'shilib keladi. Ish harakatining maqsadini aniq bildirsa-da taxmin qilinganda ishlatiladi.

→ 예

동생이 새벽 5시에 자기를 좀 깨워 달래요. 내일부터 새벽마다 달리기를 한다면요?
Ukam ertalab soat 5larda uyg'otishimni so'rayapti. Ertadan boshlab yugurar ekanmi-yey?

민정 씨가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라면서 이 명함을 한 장 주더군요. 이 집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나요?

Min Jong mazali koreys taomlari oshxonasi deb bu manzilni bergandi. Bu joy Seulda eng ko'zga ko'rinarli joylardan ekanmi-yey?

정은 씨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난리예요. 남자 친구한테 선물 받은 소중한 지갑이라나요?

Jong In karmonini yo'qotdim deb hunob bo'layotgandi. Yigiti sovg'a qilgan qadrli karmon ekanmi-yey?

오늘 철수 씨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 보여요. 오늘은 자기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나요?

Bugun Cholsu jahli juda qattiq chiqqanga o'xshaydi. Bugun uni gapga solishmasin ham deptimi-yey?

100

-다는

- (1) -다는 o'y, ma'no, yangilik, haqiqat, kuchsizlik, kuchli hoxish, qaror manosidagi otlar oldidagi fe'llar negiziga qo'shilib o'sha otni yanada aniqlashtirish vazifasini bajaradi.

→ 예

어제 저녁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 들었어요?

Kecha kechqurun samolyot qulaganligi haqida xabar eshitdingizmi?

해외 지사에 나가서 일해 본 경험이 있나요?

Chet elga chiqib ishlash tajribangiz bo'lganmi?

나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 볼 용기가 없다.

Men juda tortinchoqligimdan ko'nglimga yoqqan kishiga ham ichimdagi gapni ayta olmayman.

- (2) Voqea, tajriba, ish va boshqa shunga o'xshash haqiqatni aniq ko'rsatib turadigan vaziyatda hamda -(으)ㄴ 가능성/용기 ga o'xshash kelasi zamon ma'nosini aniq bildiruvchi qo'shimchalar kelgan vaziyatlarda -다는 iborasi yozilmaydi.

→ 예

어제 저녁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 들었어요?

Kecha kechqurun samalyot qulaganligi haqida xabar eshitdingizmi?

해외 지사에 나가서 일해 본 경험이 있나요?

Chet elga chiqib ishlash tajribangiz bo'lganmi?

나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 볼 용기가 없다.

Men juda tortinchoqligimdan ko'nglimga yoqqan kishiga ham ichimdagi gapni ayta olmayman.

101

-다(냐, 라, 자)는 말이다

Boshqa kishiga gapirganda ma'noga ishonchsizroq qarab takror yoki yana bir marta tasdiqlab olish uchun ishlatiladi. O'zlashtirma so'roq gapning qisqartirilgan ko'rinishi so'zlashish nutqda -단(난, 란, 잔) 말이다 bilan yoziladi.

→ 예

그 정도쯤이야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U darajada bo'lsa men ham hammasini qila olaman deyapman.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란 말이지?
Hotirjam bo'lg'in deyapsan shundaymi?
이 일을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Bu ishni qanday qilsa yaxshi bo'ladi degani ekanmi.

102 -다니(요)?

Boshqa kishining so'zini eshitib o'sha so'zni qaytarish, o'sha so'zga qo'shilmaslik yoki ishonmasdan yana so'rash ko'rinishidir. -이다, -이/가 아니다 qo'shimchasi -(이)라니요, -이/가 아니라니요? qo'shimchasi bilan o'zgaradi. Fe'lga -ㄴ/는 ham qo'shilishi mumkin.

→ 예

친구가 오다니요?
Do'stingiz kelarkanmi?
친구가 온다니요?
Do'stingiz keldimi?

103 -다든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mi -mi' deb tarjima qilinadi.

→ 예

날이 흐리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이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다리가 쭈신다고 하셨습니다.
Bulutli kunmi, yomg'ir yog'adigan kunmi buvim albatta oyog'im og'riydi deyдилar.

104 -다면

Kelajakda kelib chiqishi mumkin bo'ladigan voqeani taxmin qilib gapirgand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Odatda negativ ma'nodagi gaplarda ko'proq ishlatiladi.

→ 예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을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없었을 거야.
Sen yordam bermaganingda ishni bunchalik tez tugata olmagan bo'lardim.

내가 너라면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여행을 갈 거야.

Men sening o'rningda bo'lganimda, bu safar olgan stipendiyam bilan sayohatga ketardim.

105 -다 못해

Faoliyatni amalga oshirishda ziddiyatga duch kelib qolib uni kelgusida amalga oshirishning ilojisi yo'qligini anglatadi. Bosh gapning faoliyati ushbu holat bilan shart qilib qo'yiladi. O'zbek tiliga 'ortiq holim yo'q' deb tarjima qilinadi.

→ 예

나는 참다못해 울었습니다.

Men chiday olmay, yig'lab yubordim.

이것을 보다 못해 나갔습니다.

Bunga qaray olmay chiqib ketdim.

타향에서 살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O'zga yurtda yashay olmay uyga qaytishga qaror qildim.

106 -다 보면

Qandaydir bir ishni doim qilib oxir oqibat chiqqan natijani bildiradi. Takror yoki tasdiq harakatning natijasini bildiradi. Tasdiq harakatning natijasidan iboratdir. Ergash gapda odatda -(으)ㄴ 것이다 ga o'xshash taxmin formasi yoziladi. Takror yoki tasdiq ish harakatining natijasini taxmin qilish yoki o'z-ozidan yuzaga kelgan vaqtda ishlatiladigan ibora asosida -다가 보니까 ishlatiladi.

→ 예

계속 걷다 보면 휴게소가 나타날 거야.

Piyoda yurib borsang dam olish joyi bor.

안내원을 하다 보면 서글픈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Yo'l boshlovchi bo'lib ko'rsang ko'ngilsiz ishlarga ko'p duch kelasan.

107 -다시피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ki, dek' deb tarjima qilinadi.

- (1) Tinglovchilarni ular bilgan, ko'rgan yoki eshitayotgan (eshitgan) lariga e'tiborlarini qaratish maqsadida qo'llaniladi. Muvofiq ravishda, ushbu qo'shimcha, asosan -알다, 보다, 듣다 fe'llari bilan ishlatiladi.

→ 예

모두가 알다시피 한글은 과학적인 글입니다.

Hammaga ma'lumki, koreys alifbosi Xangil ilmiy yozuv hisoblanadi.

보다시피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Ko'rib turganizdek, men rusman.

들었다시피 한국 대통령이 내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

Eshitganingizdek, Koreya prezidenti ertaga O'zbekistonga tashrif buyuradi.

아시다시피 이번 학기에는 수업이 많이 없을 겁니다.

Bilganingizdek (bilasizki), bu semestrda darslar ko'p bo'lmaydi.

- (2) Ushbu qo'shimcha -하다 fe'l bilan birgalikda, gapni tugatuvchi, tamomlovchi vazifasida ishlatilishi mumkin, shu bilan birga alohida bir shaklni taqqoslanishini ta'kidlaydi. Fe'l negiziga -다시피 하다 qo'shilib o'zbek tiliga '-dek, deyarli, qisman'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는 독서를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U kitob o'qishni yaxshi ko'rganidan deyarli kutubxonada yashaydi.

이리나가 우리 집에 날마다 오다시피 해요.

Irina bizning uyga deyarli har kuni keladi.

누구나 알다시피, 빅토르는 좋은 사람이에요.

Hammaga ma'lumki, Viktor - yaxshi odam.

108

-답다

-답다 otlarga qo'shilib sifat yasovchi qo'shimchadir. Masalan: 꽃답다, 정답다, 참답다. -스럽다 bilan taqqoslaganda -스럽다 (haqiqatda bunday emas lekin shunday tuyulayotgan) degan ma'noni bildirsa, -답다 haqiqatdan shunday ko'rinishga ega bo'lgan ma'noni bildiradi.

→ 예

어른답다 / 사람답다 / 인간답다 / 꽃답다

Katta kishilardek / Odamdek / Insonlardek / Guldek

109 -더니

Ergash gapdagi ish harakati bosh gapning ta'sirida yuzaga kelib yozilganda odatda harakat fe'li o'tgan zamonda bo'ladi. Bu ko'rinish -길래 ga o'xshab ketsada ergash gapning egasi I -shaxsda bo'la olmasligi bilan ajralib turadi. -왔/있더니 o'tgan zamonda yozilganda I -shaxsning egasigina sifatga aylanadi lekin bunday vaqtda ham ergash gapdagi I -shaxs egasi sifat bo'lmaydi.

동사/형용사 + 더니

- (1) Amaldagi ish harakati boshqa ish harakatni yuzaga kelishiga sabab bo'lishini bildiradi.

→ 예

온종일 날이 흐리더니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Tushgacha bulutli bo'lib turib tushdan so'ng qor yog'ishni boshladi.

우미다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번 학기에 일등을 했다.

Umida tirishib o'qigani uchun bu chorakda birinchi o'rinni oldi.

- (2) Qandaydir bir harakatdan keyin boshqa harakat kelib chiqishida ishlatiladi.

→ 예

번개가 치더니 몇 초 지나지 않아 천둥소리가 땅을 울렸다.

Chaqmoq chaqib bir necha soniya o'tmasdan mamaqaldiraq gumburladi.

어제도 숙제를 안 해 오더니 오늘 또 안 해 온 거야?

Kecha ham uy vazifasini bajarmasdan kelganding bugun ham bajarmasdan keldingmi?

- (3) Oldin boshdan o'tkazish yoki sodir bo'lgan harakat yoki qandaydir ma'lumot bilan birga boshqa yangi harakat yoki ma'lumot borligini bildiradi. Asosan gapning birinchi va ikkinchi bo'lgi bir-biriga zid bo'lgan ma'noda keladi.

→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났더니 보파리 내 놓으라는 격이다.

Cho'kayotgan kishini qutqarsang u o'zining tugunini so'raydi.

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니, 오늘은 기분이 괜찮아 보이네요.

Kecha charchagan ko'ringanding bugun kayfiyating yaxshiroq ko'rinayapti.

110 -더라/더군요

So'zlovchi o'tgan zamonda ko'rgan, eshitgan, his qilganini eslab gapirgan vaqtda ishlatiladi. Dalil sifatida ko'rsatish vaziyatida -았/었더라 yoki -았/었더군요 dan foydalaniladi.

→ 예

어제는 인경 씨가 한밤중에 불쑥 우리 집에 왔더라.

Kecha Inkyong yarim kechasi to'satdan bizning uyimizga keldi.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내가 살아온 만큼 기막힌 이야기는 없더라.

Qanchalik qayg'uli kino ko'rsang ham mening hayotimdagidek dahshatli voqealar bo'lmasa kerak.

111 -더라고(요)

- (1) So'zlovchining o'zi shaxsan ko'rgan, eshitgan, his qilgan narsalari yoki ish harakatini eslab aytganda ishlatiladi. -더라고/-더군요 bilan uncha katta farq bo'lmasada kuchliroq urg'u beradigan qo'shimchadir.

→ 예

살다 보니 가끔은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Hayotda ba'zan yaxshi voqealar ham bo'lib turar ekan.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Sport bilan shug'ullangandan keyin qorning ochar ekan.

- (2) O'zining tajribasi orqali yangidan tan olingan harakatni boshqalarga etkazishda ishlatiladi.

→ 예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니까 대단하더라고.

Muloyim odam deb o'ylagandim lekin jahlini ko'rsatishini kutmagandim.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 믿어 주더라고요.

Men chet eldan kelganman desam ishonmayapti.

112 -더라니

So'zlovchi bir nimani eslayotib, hamsuhbatiga o'zining fikrlarini ovoz chiqarib aytganda qo'llaniladi. So'zlovchi xuddi hozir bo'lib o'tayotgan hodisalarning asosiy sababini tushunganda ishlatiladi. Nutqning oddiy uslubiga kiradi. O'zbek tiliga 'qarab turibmanki' deb tarjima qilinadi.

예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니! 새 차를 샀구나.

Kayfiyating yaxshi ko'rinadi mashina sotib olibsanda!

여행을 갔다고? 어쩐지 집에 없더라니...

Sayohatga ketdi dedingmi? Shuning uchun uyda yo'q ekanda...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니... 그 친구랑 싸웠구나.

Bir-biringiz bilan gaplashmayapsiz... U do'sting bilan urishibsanda.

113 -더라도

Ushbu qo'shimcha -더- qo'shimchasiga -아/어도 qo'shimchasini qo'shish orqali yasalgan bo'lib tan olish holatini kuchaytirish uchun ishlatiladigan qo'shimchadir.

- (1) Bosh so'zdagi harakatni tan olsada lekin u ergash gapning ma'nosi bilan unchalik bog'liqligi yo'qligini bildiradi.

예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성격은 모두 다르더라.

Qondosh aka ukalar bo'lishsada hammasining xarakteri boshqacha.

배운 것이 많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Bilimi ko'p bo'lsada o'sha bilimni to'g'ri ishlata olmasa hech qanday foydasi yo'q.

- (2) Oddiy taxminga yo'l berish ma'nosida keladi.

예

언어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Til boshqacha bo'lsada muloqot qilishning imkoni bor.

내가 죽더라도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Men o'lsam ham dushmanlarimga o'limimni bildirma.

Ushbu qo'shimcha fe'l negiziga qo'shilib sifatdosh yasaydi. O'zbek tiliga '-gan, -qan' deb tarjima qilinadi.

- (1) So'zlovchining amalda qo'llab ko'rgan ishini eslaganda ishlatiladi.

→ 예

철수가 떠나던 날 끝끝내 영희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Cholsu ketgan kunning oxirgi daqiqalarigacha Yonghi aeroportga chiqmadi.

언니가 결혼하던 날도 눈이 내렸다.

Opamni to'yi kuni ham qor yog'di.

- (2) O'tgan zamonda boshlanib davom etib keladigan harakatni bildiradi.

→ 예

명성 높던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 그리스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Mashhur Perikles vafot etgandan so'ng, Gretsiya siyosoy tartibsizlikni boshidan o'tkazdi.

그 때 나는 3년간이나 계속하던 펜팔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호남선 열차에 올랐다.

O'sha payt men 3 yil davomida xat yozishgan odamim bilan uchrashish uchun Honam yo'nalishidagi poyezdga chiqdim.

- (3) O'tgan zamondan hozirgacha o'sha ishning takrorlanganligi ma'nosini bildiradi.

→ 예

나는 우리가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Men tez-tez uchrashgan kishilarimizga ozor yetmaydimi deb havotir olyapman.

즐거운 자리에서 내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다.

Quvnoq davralarda men tez-tez hirgoyi qilgan qo'shiq bor.

Savol beruvchi savoldagi harakat yoki faktni guvohi bo'lgan, o'zi qatnashgan yoki uning suhbatdoshi bo'lgan bo'lishi kerak. Bu qo'shimcha qatnashish jarayonida o'tgan zamon qo'shimchasini qo'shishi mumkin. Kesim harakatning tugallanganligidan dalolat beradi.

→ 예

시험이 어렵던가요?

Imtihon qiyin bo'ldimi?

116

-던데

Ergash gapni tushuntirib berish uchun bosh gapga qo'shilib o'tgan zamondagi harakatni eslab gapirgan vaqtda ishlatiladi.

→ 예

자네가 온 지 얼마 뒤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러던데, 자네 성격이 꽤 좋다 더군.

Siz kelganingizdan hech qancha o'tmay birga ishlagan hodimingiz shunaqa degandi, sizning harakteringiz juda ajoyib deb.

그 집에는 없는 물건이 없던데 이 집은 무슨 가게가 이 모양이야?

U uyda yo'q narsani o'zi yo'q deyishyapti bu uy bo'lsa qandaydir magazinga o'xshaydi-a?

117

-던데(요)

Amalda qo'llangan, ko'rgan ishni gapirganda ishlatiladi. 'Undan boshqa' degan ma'noni ham beradi.

→ 예

그 동안 오해를 받고 있었던 강 사장은 오히려 담담하던데요.

Shu vaqtgacha tushunmovchilik bilan yurgan direktor Jang oxir oqibat tushunibdi.

내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던데.

Mening fikrimcha u korxonaning biznes ahvoli oz-ozidan yomonlashib borayotganga o'xshaydi.

118

-던지

Egalik gapining keskin shakli bilan bog'liq bo'lgan asosiy faoliyatning sababini bildiradi. Odatda so'roq olmoshlari bilan birgalikda ishlatiladi. O'zbek tilida 'shunchalik (ko'p / kuchli)' deb tarjima qilinadi.

→ 예

우리가 불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터질 뻔했어요.
 Biz shunchalik ko'p pulkogi yedik-ki, qorinlarimiz yorilib ketay dedi.
 시험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3일 동안 폭 잤어요.
 Imtihon shunaqangi tinkamni quritdi-ki, 3 kun uxladim.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던지, 틀린 문제가 없어요.
 U shunchalik ko'p o'qidi-ki, bitta ham xato qilmadi.

119 -데(요)

So'zlashish nutqida o'zining tajribasi yoki tuyg'usi haqida o'zga kishiga endigina aytib berayotgan vaqtda ishlatiladi.

→ 예

비가 오니까 길이 더 막히던데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에 세워 놓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Yomg'ir yog'ayotganligi uchun yo'l yanada mashinalar bilan zich ekan. Shuning uchun mashinani qaytarib, uyga qo'yib metroda keldim.
 꽤 힘든 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 자기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데요.
 Juda qiyin hayotni boshdan kechiryapdi deb eshitgandim uchrashib ko'rsam, o'ziga yarasha yaxshi yashayotganga o'xshaydi.

120 -도록

- (1) Ish harakatining darajasini yoki chegarasini ifodalab, faqat faol fe'llar bilan qo'llanadi.

→ 예

늡도록 일만 했어요.
 Qariguncha faqat ishladi.

- (2) Qandaydir maqsadni qanaqadir yo'nalishda ongli boshqarishni ifodalaydi.

→ 예

부모님께서 이해하시도록 말 좀 잘 해 주세요.
 Ota-onangiz tushunadigan qilib gapirib bering.

들키지 않도록 꼭 숨어 있어요.

Ushlab olishalmaydigan qilib yashirinib o'tiribman.

121 -도록 하다

Ushbu qo'shimcha muvafaqqiyatga yo'naltirilgan qandaydir holat va darajadagi harakatni ifodalaydi.

→ 예

피곤하면 쉬도록 해요.

Charchasangiz dam olib turing.

내일부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rtadan kechikmaslikka harakat qilaman.

끝가지 이 비밀을 지키도록 하겠어요.

So'nggi daqiqagacha bu sirni saqlashga harakat qilaman.

122 -도무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umuman emas, hech'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Bu umuman tushunib bo'lmaydigan ish.

가방을 어디다 두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Sumkamni qayerga qo'yganimni hech eslay olmayapman.

이 책은 도무지 재미가 없다.

Bu kitob umuman qiziq emas.

123 -도 (이)거니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ham ham, bundan tashqari'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도 + 동사/형용사 + (이)거니와

→ 예

그 여자는 얼굴도 예쁘거니와 마음씨까지 착해서 인기가 많다.

U qiz ham chiroyli, ham mehribon bo'lgani uchun oshiq-lari ko'p.

여행은 다음에 가요. 날씨도 춥거니와 돈도 없어요.

Sayohatga keyingi safar boramiz. Havo ham sovuq, bundan tashqari pul ham yo'q.

시장 변동도 고려하지 않았거니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했다.

Bozordagi o'zgarishlarni inobatga olmabmiz bundan tashqari tekshiruvni ham yaxshi o'tkazmaganimiz uchun muvaffaqiyatsizlikka uchradik.

124

-도 -(이)려니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ham hamu', 'ustiga ustak-'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도 + 명사 + (이)려니와

→ 예

일도 일이려니와 집안일도 잘 해야 한다.

Ish ish bilan, biroq uy ishini ham yaxshi bajarishing kerak.

공부도 공부려니와 쉴 줄도 알아야죠.

O'qish o'qish bilan, lekin dam olishni ham bilish kerak.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약속도 약속이려니와 건강도 챙겨야지요.

Bugun uyda dam oling. Uchrashuv uchrashuv bilan, ammo sog'liqni ham as-rash kerak.

날씨도 날씨려니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Havo ham ustiga ustak sog'ligim yomonligidan boshqa ishlay olmayman.

125

-되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sa ham'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는 가난하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U kishi kambag'al bo'lsada o'zganing narsasiga ko'z olaytirmasdi.

개들은 색을 잘 식별하지 못하되 움직임에는 매우 민감하다고 한다.

Itlar rangni yaxshi ajrata olmasa ham harakatga juda sezuvchan deyishadi.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되 게임이나 채팅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Ish vaqtida internetdan foydalanib bo'lsa ham o'yin yoki internet orqali suhbat qilish umuman mumkin emas.

126 -든 -든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 mi - mi' deb tarjima qilinadi

→ 예

배가 고프니까 떡이든 밥이든 얼른 아무거나 주세요.

Qo'rnim ochganligi sababli guruch nonmi guruchli bo'tqami farqi yo'q biror narsa beravering.

좋은 싫든 이제 한 배를 탔으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Yoqadimi yoqmaydimi endi bir kemada ekanmiz o'zaro yaxshi munosabatda bo'lishga harakat qilish kerak.

127 -든지

Ikki qarama-qarshi harakatdan birini tanlab bajarish ma'nosini bildiradi. Qarama-qarshi harakatni tukatntirish uchun -든지 안 - 든지, -든지 말든지, -든지 못 - 든지 bilan ko'p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든지

→ 예

싸우든지 화해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래.

Urish qilasizmi yarashib olasizmi xohlaganingizni qiling deb ayt.

128 따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va shunga o'xshash', 'va boshqalar, kabilar'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서울의 관광지 중에는 경복궁, 창덕궁, 비원, 인사동, 남산 타워, 남대문 시장 따위가 있다.

Seulning diqqatga sazovor joylariga Kyo'ngbukkun saroyi, Changdokkun saroyi, Pivon bog'i, Insadon ko'chasi, Namsan tog'idagi minora, Namdemun bozori va boshqalar kiradi.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고기, 생선, 우유 따위를 먹어야 한다.

Muskul hajmini oshirish uchun tarkibida oqsil bo'lgan: go'sht, sut, baliq va shunga o'xshash oziq-ovqatlarni iste'mol qilish kerak.

시장 경기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가격, 수요, 공급 따위가 있다.

Bozor tuzilishining shakllanishiga bahxo, talab, taklif va boshqa omillar ta'sir qiladi.

129

-마저

Ushbu qo'shimcha biror-bir narsani qo'shish yoki uni jalb etishni ifodalash uchun qo'llaniladi. O'zbek tiliga 'xatto(ki), ham, deya' deb tarjima qilinadi.

→ 예

너마저 그런 말을 해?

Xatto(ki) sen ham shu gapni gapirayapsanmi?

동물마저 사랑을 알아요.

Xatto hayvonlar ham sevgini bilishadi.

그는 집마저 팔았다.

U xatto uyini sotdi.

130

마치 -처럼/-와/과 같이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xuddi, xuddi bo'lmagandek'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는 마치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왔다.

U xuddi o'g'ridek hech kimga sezdirmasdan uyga kirib keldi.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U xuddi farishtadek go'zal edi.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다.

Men xuddi hech narsa bo'lmagandek, so'zlashda davom etdim.

131 만에

'Ancha vaqt o'tgandan keyin' ma'nosini bildiradi. 동안 bilan taqqoslaganda 만에 qo'shimchasi 'o'sha vaqt davomida qila olmasdan endi' ma'nosiga ega.

시간 + 만에

→ 예

몇 해 만에 찾아온 것인가?

Necha yildan keyin keldingiz?

십 년 만에 모국에 갔었지요.

10 yildan keyin endi vataniga ketdi.

132 -만큼

Bosh gapdagi ish harakatining ma'nosini qandaydir bir narsaga taqqoslash yoki o'xshatish yoki bo'lmasa biror bir ish harakati darajasini bildiradi. -처럼 qo'shimchasi bir tomonlama darajani bildirsa -만큼 ikki tomonlama darajani bildiradi. -처럼 faqatgina qo'shimcha vazifasida kelsa -만큼 ot vazifasini ham o'tashi mumkin.

→ 예

우리만큼 친한 친구가 있을까?

Bizdek yaqin do'stlar bormikan?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게 되는 법이다.

Harakatga yarasha natija olish tabiiydir.

133 -만 하다

Biror bir narsani boshqa biror narsaga taqqoslab, hajmi bir xilligini aytganda ishlatiladi. 만하다 ko'rinishi otdan keyin, -(으)르 만하다 ko'rinishi esa fe'ldan so'ng

yoziyadi va -(으)르 가치가 있다 ma'nosida ham ishlatiladi.

명사 + 만 하다

→ 예

알리셰르 씨는 얼굴이 수박만 해요.

Alisherni yuzi tarvuzdek tatta.

나는 산만 한 카드빚이 쌓여있다.

Menda tog'dek yig'ilib qolgan qarzim bor.

134

-만이 아니다

Ushbu qo'shimcha oldidagi ot aniq ko'rsatilmasada borligini bildiradi.

→ 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Va'dani bajara olmaganliging faqat bu safargina emas.

전쟁이 터지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군인만이 아닙니다.

Urush boshlansa havf faqat harbiylargagina tushmaydi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민우 씨만이 아니에요.

Bu gapni eshitib hayratga tushgan kishi faqatgina Minu emas.

135

뭐니 뭐니 해도

Ushbu qo'shimcha 무엇이니 무엇이니 라고 말해도 ning qisqartirilgan ko'rinishi hisoblanadi. Shuningdek, quyidagicha o'xshash shakllar bor: 누구니 누구니 해도 kim bo'lsa ham, 어디니 어디니 해도 qayerda bo'lsa ham. O'zbek tiliga 'nima bo'lsa ham' deb tarjima qilinadi.

→ 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Nima bo'lsa ham, sog'liq muhimroq.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Nima bo'lsa ham, odam vijdonan halol bo'lishi kerak.

누구니 누구니 해도 그가 한국말을 제일 잘 한다.

Kim bo'lsa ham, u koreys tilida hammadan yaxshi gapiradi.

136 -보고/더러

Ish harakatiga ta'sir ko'rsatib so'roq belgisi qo'yilmasada to'g'ridan to'g'ri savol ma'nosini beradi. -에게, -한테 qo'shimchalarini o'rniga ishlatilishi ham mumkin.

명사 + 보고/더러

→ 예

자기는 고운 말을 한 번도 안 쓰면서 남들보고 쓰라고 난리야.

O'zi chiroyli gaplarni umuman ishlatmaydi-yu boshqalarga ishlat degani nimasi.

너더러 이 많은 방을 다 청소하라고 하셨니?

Senga shuncha ko'p xonalarni tozalashni buyurdimi?

137 -씩

-씩 qo'shimchasi miqdorni bildiruvchi so'zlarga qo'shilib kelib ma'lum bir miqdordagi bir nimani borligini bildiradi. Bu qo'shimcha o'zbek tiliga '-lab, -day, -dek, -lar, -tadan'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씩

→ 예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씩 합니까?

Bu olmaning 1 donasi qancha turadi?

이 약은 한 번에 세 개씩 드세요.

Bu dorini bir martada 3 donadan iching.

과자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Shirinliklarni bolalarga bir donadan bo'lib bering.

하루에 세 번씩 식사를 합니다.

Bir kunda uch mahal ovqatlanaman.

138 아무 -도/아무 -(이)나

Ushbu qo'shimcha obektni aniq ko'rsatmasdan tasvirlagan vaqtda ishlatiladi. 아무(명사)

도 qo'shimchasi inkor gaplardagina ishlatiladi.

아무 + 명사 + 도
아무 + 명사 + (이)나

→ 예

여기서는 아무 책이나 골라도 네 수준에 맞을 거야.

Bu erdan har qanday kitob tanlasang ham sening darajangga tog'ri keladi.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는 곳에 심어라.

Qanaqa joy bo'lsa ham o'z ko'ngling yoqqan joyga ek.

아무도 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Hech kim u kishini gapini quloqqa ilmadi.

139 아무리 -다손 치더라도

Bosh gapni tushinib uni qo'llab quvatlaganda ham ergash gapning ma'nosiga umuman ta'sir ko'rsata olmagan vaqtda ishlatiladi.

→ 예

아무리 그가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다.

U kishi qanchalik xato qilganda ham bunchalik jahl qilish kerak emas.

아무리 시험에 자신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꼭 있게 마련이다.

Imtihonni topshiraman degan ishonch qanchalik katta bo'lmasin qiyin masalalar bo'lishi tabiiy hol.

140 아무리 -아/어도

Ta'sir ko'rsatishi mumkin bo'lgan qiyin vaziyat bo'lsa 너무 - (으)면 va ta'sir ko'rsatmaydigan qiyin vaziyatda esa 아무리 아/어도 bilan yoziladi.

아무리 + 동사/형용사 + 아/어도

→ 예

아무리 울화가 치밀어도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Garchi jahli chiqsa-da bunday bo'lmasligi kerakmasmi?

아무리 소리쳐도 모를 지경으로 잠들었어요.

Baqirsang ham sezmaydigan darajada uyquga ketdi.

141

-아/어 가다/오다

- (1) 가다/오다 bu ko'makchi fe'llar bir joydan boshqa joyga ko'chishni ifodalaydi. Ular yordamchi fe'l sifatida ishlatilganda asosiy fe'lga davomlilik, takrorlanish ma'nosini beradi. Hozirgi vaqtgacha davom ettirilib kelish va harakatni ifodalashda -아/어/여 오다 qo'shimchadan foydalaniladi. Hozirgi vaqtda ham davom ettirilib kelayotgan yoki kelajakda davomiy bajarmoqchi bo'lgan harakatni ifodalashda esa-아/어/여 가다 qo'shimchasidan foydalaniladi.

예

얼마 동안 그 사람과 사귀어 왔습니까?

Qachondan beri u kishi bilan do'stsiz?

강아지가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Kuchukcha u tomonga yugurib ketdi.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Biz shu vaqtgacha hayratlanarli iqtisodiy rivojlanishga erishib keldik.

- (2) Istisno. Quyidagi holatda 오다 fe'li ko'makchi fe'l emas.

예

이 본문을 다 외워 오세요.

Bu matnni hammasini yod olib keling.

아버지께서 선물을 사 오셨습니다.

Otam sovg'a sotib olib keldilar.

아기를 데려 올 수 없었어요.

Chaqaloqni olib kela olmadim.

이 책을 다 읽어 오세요.

Bu kitobni hammasini o'qib keling.

142

-아/어 가지고

Ushbu qo'shimcha harakat natijasini kuchli ifodalaydi. Shuning uchun tugallovchi formalarsiz qo'llaniladi va ko'makchi fe'l -고 bog'lovchi qo'shimchasi bilan davom ettiriladi.

→ 예

이 시를 외워 가지고 오세요.

Bu she'rni yodlab keling.

너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직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니니?

Sen ulg'ayib ham haligacha do'stlaring bilan urushib yuribsanmi?

143

-아/어 감에 따라

Bir paytda aniq faktlarga olib keluvchi jarayonni ko'rsatadi. O'zbek tiliga 'bilan-' deb tarjima qilinadi.

→ 예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주름살이 점점 늘었다.

Yosh o'tgan sayin ajinlar oz-ozidan ko'paya boshladi.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Vaqt o'tishiga qarab o'zgaradigan narsalar ham bor o'zgarmay digan narsalar ham.

144

-아/어 내다

Ushbu qo'shimcha yetakchi fe'lga qo'shilib sub'ektiv ma'noni amalga oshirishga erishishni ifodalaydi.

→ 예

경찰은 테러범들을 찾아냈습니다.

Melitsiya terroristni qo'lga oldi.

네가 그 일을 해 냈구나!

Sen bu ishni qilib qo'yibsanda.

145

-아/어 놓다/두다

Ushbu qo'shimcha yekatchi fe'lning harakati tugallangan holatning davomiyligini saqlab qolishni anglatadi.

→ 예

설날 놀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Yangi yil rejalarimni hammasini tuzib qo'ydim.

결혼할 준비를 다 해 주었습니다.

To'y taraddudini hammasini ko'rib qo'ydim.

146 -아/어 대다

Bu ko'makchi fe'l harakat va holatni to'xtovsiz davom etishini ifodalaydi.

→ 예

계속 웃어 댔더니 목이 아픕니다.

Ko'p kulaverganimdan tomog'im og'riyapti.

너는 매일 놀아만 대기만 하니?

Sen har kuni o'ynab yurasanmi?

147 -아/어도

- (1) Bu qo'shimcha fe'lga 좋다, 괜찮다, 되다 va shu kabi so'zlarga birikib belgilangan oldingi fe'ldagi harakatga ruxsat, suhbatdoshining istagi haqida so'roqni ifodalaydi.

→ 예

지금 시작해도 좋습니까?

Hozir boshlasam ham bo'laveradimi?

방이 작아도 됩니다.

Xona kichkina bo'lsa ham farqi yo'q.

- (2) Bosh gapdagi fakti e'tiroz etsada ergash gapga qandaydir aloqasi borligini ifodalaydi. 아무리 ravishi bilan qo'llanilganda aniqroq ma'noni ifodalaydi.

→ 예

부모님이 반대하여도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Ota-onam qarshi bo'lsada u qizga uylanaman.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Qanchalik yesam ham qornim to'ymayapti.

- (3) Agar -아/어/여도 gapda kesimni tugallovchi so'roq shakllari bilan qo'shilib kelsa butun gap so'roq shaklida bo'ladi va unga inkor javob bo'lganda albatta -면 qo'llaniladi.

→ 예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Tamaki cheksam mumkinmi?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Yo'q, tamaki chekish mumkinmas.

148 -아/어도 과언이 아니다

Ushbu qo'shimcha fe'l negiziga qo'shilib shunday deb aytsak, orttirib yuborilmaydi, bo'rttirishsiz aytish mumkin-ki, deb tarjima qilinadi.

→ 예

우리들은 형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iz aka-ukalarmiz desak ham mubolag'a bo'lmaydi.

한국은 정보기술 분야의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oreya Respublikasi axborot texnologiyalari yetakchi hisoblanadi desak mubolag'a bo'lmaydi.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avi odam - mening hayotim haloskori deb aytsam, mubolag'a bo'lmaydi.

149 -아/어 버릇하다

Muntazam takrorlanib turuvchi ish harakatini ko'rsatadi. O'zbek tiliga '-ga ko'nikmoq, doimiy qilmoq'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는 한국어로 늘 반말을 해 버릇해서 존댓말을 잘 하지 못했다.

U koreys tilining hurmatsiz uslubida gapirishga odatlanib qolgani uchun hurmat uslubida gapira olmaydi.

항상 양고기만 먹어 버릇해서 돼지고기가 먹기가 싫다.

Qo'y go'shti yeyishga odatlanganimga cho'chqa go'shtini yeyishni yoqtirmayman.

약도 자주 먹어 버릇하면 습관이 될 거예요.

Dorini ham tez-tez ichishga odatlansangiz o'rganish bo'lib qolishi mumkin.

150 -아/어 버리다

(1) Yetakchi fe'ldan anglashilgan harakat va holatda bo'lishini ifodalaydi.

→ 예

그 친구는 화를 내며 집에 가 버렸습니다.

U do'stimning jahli chiqib uyiga ketib qoldi.

집이 전부 불에 타 버렸습니다.

Uy butunlay yonib ketdi.

기분 나쁜 일을 잊어버리세요.

Kayfiyatni buzadigan ishni esdan chiqarib yuboring.

(2) Qandaydir ish harakatini tugallanishiga so'zlovchining erkin munosabatini ifodalaydi.

→ 예

추운 겨울이 이젠 끝나 버렸습니다.

Sovuq qish ham endi tugab qoldi.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 버렸습니다.

Hohlagan gapini hammasini gapirib tashladim

151 -아/어 보이다

Ushbu qo'shimcha ko'rinadi degan ma'noda keladi. -아/어 보이다 qo'shimchasi 보기에 - (으)ㄴ 것 같다 ma'nosida ishlatiladi.

형용사 + 아/어 보이다

→ 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는군.

Yuzi juda yaxshi ko'rinadi.

겉으론 얌전해 보이지만 버릇이 고약한 녀석이다.

Tashqaridan tartibli ko'rinsa-da yomon odatlari bor bola.

152

-아/어 빠지다

Inkor xarakterga ega ish harakati yoki holatning haddan tashqari yuqori darajaga ega ekanligini ko'rsatadi. Fikrni kuchaytirishda ishlatiladi. O'zbek tiliga 'haddan tashqari-, juda kuchli' deb tarjima qilinadi.

→ 예

식량 부족에 말라빠진 아이들의 온 몸에는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다.

Yegulik yetishmasligidan ozib ketgan bolalarning badanidan suyaklari ko'rinardi.

그의 초라해 빠진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Uning bechorahol ko'rinishini ko'rib, yig'lab yubordim.

이 나무 집은 썩어 빠졌다.

Bu yog'ochli uy rosa cho'kib qolibdi.

153

-아/어서 그런지

Qandaydir harakatning sababini taxmin qilib ayt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shu sababdanmi, sabablimi-kabi' degan taxmin ma'nolarini beradi. Qarorning asosi subekt bo'lib ko'ringanda ishlatiladi. -아/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ma'nosini bildiradi.

→ 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길에 사람이 없다.

Havo sovuqligi uchunmi ko'chada odam yo'q.

어제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자서 그런지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졸았다.

Kecha kechgacha televizor ko'rqanligim uchunmi bugun ishxonamda ertalabdan mudradim.

154

-아/어서야 어디

Bosh gapning ma'nosining asosi orqali ergash gapda inkorli qaror ma'nosi keladi. Asosan so'roq so'zlarda ishlatiladi.

→ 예

이렇게 추워서야 어디 오늘 안에 벽돌 쌓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Bunday sovuq bo'laversa qayerdan bugungi g'isht quyish ishlarini tugatish mumkin?

못 먹는 것이 저렇게 많아서야 어디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겠어요?
Yeya olmaydigan taom ko'p bo'lsa qayerdan ozuqa moddalarini qabul qila olasan?

155

-아/어아

Bosh gapdagi fe'l harakati albatta sodir bo'lishi bilan keyingi fe'l harakati ro'y beradi. Ko'pincha fe'l negiziga qo'shilib keladi. Ammo ba'zan 이다 va 아니다 fe'li bilan -(으)라야 shaklida ham qo'llaniladi.

→ 예

겨울에 추워야 다음 농사가 잘 됩니다.

Qish sovuq bo'lsagina keyingi yilgi hosil yaxshi bo'ladi.

156

-아/어야지 (되다)

Ushbu qo'shimcha bosh gapdagi ish harakati aniq bajarilsagina ergash gapdagi ish harakati sodir bo'lishini ayt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faqat -gach, qachonki gach' deb tarjima qilinadi.

(1) Aniq faktning paydo bo'lishida zaruriy shartning bo'lishini ko'rsatadi.

→ 예

연구를 많이 해야지 학문적 가치가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다.

Ko'p ta'dqiqot qilsagina, ilmiy qimmatga ega dissertatsiyani yozish mumkin.

시험을 잘 봐야지 장학금을 딸 수 있다.

Imtihonni yaxshi topshirsagina stipendiya olish mumkin.

업무 평가가 좋아야지 승진될 수 있다.

Ishda o'zini ko'rsatsagina mansabga ko'tarilishi mumkin.

(2) Biror bir ish harakatini 'aniq qilishi shart bo'lgan' ma'noda gapirilganda ishlatiladi.

→ 예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다 이해해야지.

Sen ham endi katta bo'lganing uchun hammasini tushunishing kerak.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야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어떡하니?

Yana ozgina kutish kerak, bunday o'zingni bosolmasang yaxshi bo'lmaydi.

그렇게 상처가 심할 땐 얼른 병원으로 가야지요.

Jarohat bunday chuqur bo'lganda tezroq kasalxonaga kelish kerak edi.

157 -아/어 있다

Ushbu qo'shimcha tugallangan harakat yoki holat davom etishligini ifodalaydi.

→ 예

그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U odam bu yerda yiqilib yotgandi.

한국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Koreyada har bir uyda Koreya bayrog'i osilib turadi.

* -고 있다 konstryksiyasi harakat yo'nalishi va jarayoni ma'nosini ham beradi.

158 -아/어 죽다

Bosh gapdagi ma'no beradigan vaziyat yoki hisning darajasi juda yuqori bo'lib, gaplarda asosan -아/어 죽겠다 ko'rinishi ishlatiladi.

→ 예

아이들이 배고파 죽겠다는 아우성이었다.

Bolalar qornim ochib o'layapman deyishni boshladilar.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해 죽을 지경이었다.

Ertalabdan kechgacha faqat uyda o'tirganim uchun siqilib o'lay dedim.

159 -아/어지다

Ushbu qo'shimcha holatning o'zgarish ma'nosini bildiradi. O'zbek tiliga 'bo'lmoq'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녀가 아주 예뻐졌어요.

U juda go'zalallashib ketibdi.

박이 어두워집니다.

Tashqari qarong'ulashdi.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Bizning mamlakat iqtisodiyoti asta-sekin yaxshilanib borayotganga o'xshaydi.

160

-아/어 치우다

Ish harakat va uning natijasini chiqarib tashlagan holda to'liq va tezkor bajaril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to'lig'icha'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웠다.

U hamma ovqatni yeb bitirdi.

밤 9시가 넘자 주인은 남은 물건들을 싼 값에 다 팔아 치웠다.

Soat 9 dan keyin xo'jayin qolgan mollarni arzon narxda sotib yubordi.

경찰이 오기 전에 범인은 모든 증거를 없애 치웠다.

Jinoyatchi barcha dalillarni militsiya kelgunga qadar yo'qotib tashladi.

161

-았/었다가

Bosh gapning ish harakati ergash gapning ish harakatidan so'ng sodir bo'lishini ta'kidlaydi. Ergash va bosh gaplar bitta kesimga tegishli bo'lib. Ikki xil ma'noda qo'llaniladi.

- (1) Bosh gapning faoliyati ergash gapning faoliyati natijasini bekor qilinishini yoki ergash gap faoliyatini qo'llashning o'rne bo'lgan holatga qaytishini bildiradi. Bu holatda, bosh va ergash gaplarning kesimi bir-biriga qarama-qarshi xarakterli ish harakatini yoki bir-biri bilan mantiqiy bog'lanishga ega bo'lgan ish harakatini bildirishi kerak.

→ 예

학교에 갔다가 시장에 갔습니다.

Men maktabga borib, keyin bozorga bordim.

차를 샀다가 팔았습니다.

Men mashina sotib olib, keyin uni sotib yubordim.

산이 보였다가 지금 안 보입니다.

Tog'lar ko'rinayotgan edi, endi esa ko'rinmayapti.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Men divanda o'tirgandim, keyin esa turdim.

(2) Asosiy faoliyatni amalga oshirishning holati va sababini bildiradi.

→ 예

나는 그에게 그 말을 했다가 웬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Men unga shu gaplarni aytganimdan keyin, negadir qalbim g'alati bo'lib qoldi.

самаркандга катдага буҳарало катсупнада.

Samarqandga borib, keyin Buxoroga yo'l oldik.

어제 등산을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Kecha toq'qa borayotib, jalaga duch keldik.

162

-았/었더라면

Shunday bo'lishiga umid qilib aniq shunday qila olmagan narsasi haqida afsuslanib eslagan vaqtda ishlatiladi. O'tgan zamondagi ish harakati haqida pushaymon yoki afsuslanib gapirganda ishlatiladigan qo'shimcha bo'lib gapning oxiriga -았/었을 텐데 qo'shimchasi bilan yoziladi.

→ 예

해충 피해라도 없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Zararkunandalardan zarar bo'lmaganda yaxshi bo'lardi

미리 서류를 잘 읽어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Oldindan hujjatlarni o'qib ko'rganimda yaxshi bo'lardi.

163

-았/었던들

Ot ish harakatiga nisbatan ko'ngil qolishi yoki afsuslanishini ko'rsatadi. Asosiy ish harakati real mavjud asosga nisbatan qarama-qarshiligini yoki nimani bo'lsa ham amalga oshirishning iloji yo'qligini ifodalaydi. Gap -(으)ㄴ 것이다, -(으)ㄴ 걸, -(으)ㄴ 텐데 quyidagilar bilan tugashi mumkin. O'zbek tiliga 'agarda' deb tarjima qilinadi.

→ 예

내가 돈이 좀 더 많았던들 좋은 색소폰을 샀을 겁니다.

Menda yana ozroq pul bo'lganida edi, yaxshi saksafon olardim.

내가 더 똑똑했던들 내 말을 이해했을 텐데...

Sen aq'lliroq bo'lganingda edi, mening gaplarimni tushungan bo'larding.

우리가 알았던들 밤늦게라도 갔을 텐데...

Biz bilganimizda edi, yarim tun bo'lsada borgan bo'lar edik.

164 -앓/앓던지 -던지

Qandaydir bir bajarilayotgan yoki bajarilgan ish harakatining yuqori o'lchovi yoki darajasini ko'rsatadi. O'zbek tiliga 'shuncha -ki, shunchalik -ki'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Bola shuncha ko'p ovqat yediki, qorni og'rib qoladimi deb havotir oldim.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손이 펴지지 않았다.

Havo shunchalik sovuq ediki, qo'llarim ochilmay qoldi.

꼬마는 놀이가 재미있었던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Go'dakka o'yin shunchalik qiziq ediki, ortiq onasini qidirmay qo'ydi.

165 -앓었/앓었-

-앓었/앓었- qo'shimchasi -앓/앓- qo'shimchasini belgilash unga urg'u berish uchun ishlatiladi. Ayniqsa 가다/오다 bilan birga yozilganda tugallangan ma'nosi kuchli bo'ladi va to'liq tugallangan ma'nolarda ishlatiladi.

→ 예

여보, 아까 나 코트를 어디다 벗어 놓았었죠?

Azizam, boya men paltoyimni qayerga yechib qo'ygandim?

우리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Biz yoshlik davrimizda bu mahallada yashaganmiz.

처녀 시절에는 꿈도 많았었다.

Qizlik davrimda orzularim ham ko'p edi.

166 -앓/앓으면 하다/좋겠다

So'zlovchi biror bir ish harakatini sodir bo'lishini xohlashini tinglovchiga yetkazayot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yaxshi bo'lardi'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앓/앓으면 하다/좋겠다

→ 예

내가 있는 광안리 바닷가에 한 번 다녀갔으면 한다.

Men bo'lgan Kvanganri dengiz qirg'og'iga bir marta borsangiz degandim.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해.

Men seni bizning uyga tez-tez kelsang degandim.

167 어디 -뿐인가요?

Ushbu qo'shimcha 'faqatgina o'sha emas yana bor' degan ma'noda keladi.

→ 예

한국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것이 어디 비빔밥뿐인가요? 불고기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Koreys taomlari orasida mazali faqat Pibimpap ekanmi? Pulkogi ham juda mazaliku.

역사 유적지가 어디 경주뿐인가요? 공주하고 부여도 가 볼 만해요.

Tarixiy joylar faqat Kyongjudagina ekanmi? Kongju va Puyoni ham borib ko'rsa bo'ladi.

학교에 늦은 사람이 어디 너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Maktabga kechikib kelgan bitta sen ekanmisan? Ko'p xavotir olma.

168 어차피 -(으)니까

O'zbek tilida 'baribir, qanday qilib bo'lsada, nima bo'lsada' ma'nolarini beradi.

어차피 + 동사/형용사 + (으)니까

→ 예

어차피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게 낫다.

Baribir hayotda sir bo'lmaydi shuning uchun oldindan aytgan yaxshi.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다시 생각할 필요 없어요.

Baribir tugab bitgan ishligi sababli yana o'ylashning keragi yo'q.

169 -어치

Biror narsaning hisobi yoki narxini ko'rsatadi, o'zbek tiliga '-dan, -ligidan' deb tarjima qilinadi.

→ 예

이 과일을 얼마(어)치 드릴까요?

Bu meবাদan qanchalik berayin?

감 400숨(어)치만 주세요.

400 so'mlik hurmo bering.

170 얼마나 -(으)ㄴ지 모르다

Biror bir ish harakatiga urg'u berilganda ishlatiladi. -(으)ㄴ지 모르다 ning ritorik ma'nosi orqali urg'u beriladi. Biror bir ish harakatini bo'lish bo'lmasligiga baho berganda ishlatiladi.

얼마나 + 동사/형용사 + ㄴ/은지 모르다

→ 예

시험에 합격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Imtihondan o'tganimga qanchalik xursandligimni bilmayman.

넌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

Sen hozir mening qanchalik xursandligimni bilmaysan.

오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거야.

Bugun men qanchalik qiynalganimni bilmaydi-da.

171 -에다(가)

(1) Qandaydir bir narsaga boshqa bir narsani qo'shilishini bildiradi.

→ 예

아이 셋에다가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Uchta farzand bilan ustiga ustak ishlaydigan odam yo'qligidan juda qiynaldim.

그는 2년간의 투옥 생활로 심한 우울증에다가 폐병까지 앓아야 했다.
U 2 yil qamoq hayoti davomida kuchli tushkunlikka tushib buning ustiga sil kasalligini ortirib oldi.

- (2) Har xil ish harakatlari qo'shilib ko'payib ketganda ishlatiladi.

→ 예

맥주 열 병에다가 갈비 육 인분에다가, 소주 두 병 주세요.
10⁹ butilka piva bilan 6 kishilik qovurga va ikki butilka aroq bering.

- (3) Amaldagi maqsadning mazmunini tushunganligini bildiradi.

→ 예

집에다가는 돈 많이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가출해 버렸다.
Uyga ko'p pul olib kelaman deb uydan chiqib ketdi.
창턱에 올려놓은 화분에다가 물을 주었다.
Oyna oldidagi gulga suv quydim.

- (4) Uskuna yoki vositani bildirgan so'zga qo'shilib 'o'sha narsani olib' ma'nosini bildiradi.

→ 예

연탄난로에다가 라면을 끓였다.
Pechkada ramyon pishirdi.
기저귀는 햇볕에다가 말려야 살균도 되고 좋단다.
Tagliklarni quyoshda quritsa bakteriyalarni yo'q qilishda yaxshi deyishadi.

172 -에 대하여/대해(서)/대한

-에 대하여 va -에 대해(서) o'zaro mustaqil o'rindosh. -에 대한 otlashgan so'z turkumi, o'zidan keyin keluvchi otni aniqlab keluvchi aniqlovchi shakl hisoblanadi. O'zbek tiliga 'nisbatan haqida, haqida' deb tarjima qilinadi.

→ 예

한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Koreys alifbosi Xangil haqida tushuntiring, iltimos.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Biz bu haqiqat haqida hech narsa bilmas edik.

이것은 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u qotillik haqidagi hikoyadir.

173 -에 따라(서)

Qandaydir bir ko'rinish yoki vaziyat asosida harakat qilinishi kerakligini ifodalayotganda ishlatiladi. 따르다 so'zi -에 따라서, -에 따르면 kabi to'liq bo'lmagan shaklda ishlatiladi.

명사 + 에 따라(서)

→ 예

같은 물건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Bir xil mahsulot ham joyi va vaqtiga qarab ishlatilishi turlicha.

계절에 따라서 사는 곳을 옮기는 철새도 있습니다.

Faslga qarab yashaydigan joyini o'zgartiradigan qushlar ham bor.

유통업체에 따라 가격이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난다.

Raqobatga qarab narxi 4 barobar farq qilishi mumkin.

174 -에 따르면

Biror bir ish harakatiga asoslanib gapirganda ishlatiladi. Gaplarning tuzilishiga qarab taklif yoki ko'rsatma ma'nosida ham kelishi mumkin.

→ 예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Hukumatning statistik ma'lumotlariga qaraganda ayollarning jamiyatga chiqishi har yili ko'tarilib bormoqda.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Yo'l harakati qoidalariga qarab mashina boshqarilayotgan vaqtda qo'l telefonidan foydalanilsa katta jarima to'lash kerak.

175 -에 불과하다/지나지 않다

Ikkala qo'shimcha ham bir xil ma'noviy bosimni ifodalaydi va o'zaro hamfikir hisoblanadi. O'zbek tiliga 'atigi, faqat, -dan, boshqa emas'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다.)

Bu berilgan vazifani bajarishdan boshqa narsa emas.

그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해요.

Bu taxmin qilishdan boshqa narsa emas.

너의 논거는 그저 말에 불과하다.

Sening gumonlaring oddiy so'zlardan boshqa narsa emas.

176 -에 비해(서)

Ushbu qo'shimcha biror bir narsani boshqa biror bir narsaga qiyoslab ishlatiladi. 비하다 qo'shimchasi -에 비해서, -에 비하면 kabi to'liqsiz tuslanadigan fe'l hisoblanadi.

→ 예

그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U kishi yoshiga nisbatan qari ko'rinadi.

우리 아이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큰 편이에요.

Farzandim tengdoshlari bilan taqqoslanganda bo'yi baland.

1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Hozirgi vaqtni 10 yil oldingi vaqt bilan taqqoslaganda foyda darajasi juda ko'tarildi.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Boshqa maktablar bilan taqqoslanganda bizning maktabda chet ellik talabalar ko'p.

177 -에서 볼 때

Ushbu qo'shimcha bosh so'zning mazmuni normasida bo'ladi. Odatda 'tomon, fikr' kabi ma'noni bildiradigan ot bilan yoziladi, 역사적/과학적 so'zlaridagi kabi -적 iborasi to'gridan to'g'ri qo'shilib yozilmaydi.

→ 예

가격 면에서 볼 때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Narxi tomonidan qaralganda bizning maxsulotning qadri tushib ketyapti.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 차를 사는 건 무리입니다.

Iqtisod tomonidan qaraganda hozir mashina sotib olish aqldan emas.

178 -에 의하면

Nimanidir qaror qilib o'sha narsaning asosini tushuntirganda ishlatiladi. 의하다 qo'shimchasi -에 의해서, -에 의하면 kabi to'liqsiz tuslanadigan fe'l hisoblanadi.

→ 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데요.

O'qituvchining aytishlaricha qonuniy muammolarning hammasi hal qilinibdi.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한두 달 집에서 폭 쉬면 낫는데요.

Shifokorning aytishicha bir ikki oy uyda dam olsam tuzalib ketar ekan.

179 -에 의해(서)

Kim yoki nima orqali kelib chiqqanligini bildiradi. 의하다 qo'shimchasi -에 의해서, -에 의한, -에 의하면 kabi to'liqsiz tuslanadigan fe'llardan iborat.

→ 예

이 건물은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Bu bino qonunga qarab himoya qilinadi.

김치의 효능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다.

Kimchining foydasi ilmiy tekshiruvga qarab aniqlandi.

180 -여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an oshi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저는 한국어를 십여 년 전부터 배웠습니다.

Men koreys tilini 10 yildan oshiq o'rganib kelayapman.

그 모임에 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ajlisga 100dan oshiq kishilar qatnashdi.

181 여간 -지 않다

Diqqat! Kesim inkor shaklga ega ekanligiga qaramay, barcha aytilgan fikrlar ijobiy ma'noga ega. O'zbek tiliga 'juda' deb tarjima qilinadi.

→ 예

이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Bu ish juda qiyin.
어제는 여간 춥지 않았다.
Kecha juda sovuq edi.
그는 여간 똑똑하지 않아요.
U juda aqli.

182 -(으)ㄴ가 보다

Gapning xususiyatini ochishda har bir holatning alohida ifodalanishi. Xususiyatlarga oxshashlik bu -나 보다.

→ 예

이 일이 어려운가 봐요.
Bu ish qiyinga o'xshaydi.

183 -(으)ㄴ/는 가운데

Ushbu qo'shimcha fe'lning yoki sifatning sifatdosh shakliga qo'shilgan holda shuni ko'rsatadiki, gapning asosiy faoliyati, sifatdosh shakli tomonidan ifodalanilayotgan holat yoki ish harakati bilan bir vaqtda sodir bo'lgan yoki bo'layotgan ligini bildiradi. O'zbek tiliga 'o'rtasida, ostida' deb tarjima qilinadi.

→ 예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대통령이 청와대 현관에 나왔습니다.
Sirena tovushi ostida president Chongvade rezidensiyasining bosh darvozasidan chiqib keldi.
바쁜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Bandligingizga qaramasdan bizga vaqt ajratganingiz uchun rahmat.

184 -(으)ㄴ/는가 하면

Biror bir ish harakatiga asoslanib boshqa bir ish harakati ko'rishida ishlatiladi. O'zbek tilida '-ga deydigan bo'lsa, qaraydigan bo'lsak, asoslanib' degan ma'nolarni beradi.

→ 예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듯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Yuqoriga chiqish yo'li bor deydigan bo'lsak, pastga tushish yo'li ham bor bo'lganidek, hayot davomida qiyin vaqtlar ham bo'lib, yaxshi kunlar ham bordir.

185 -(으)ㄴ/는 감이 있다

O'zbek tiliga '-lik bor, tuyg'usi bor' deb tarjima qilinadi.

→ 예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축하 인사를 해야겠다.

Ozgina kechikgan bo'lsamda, hozir tabriklab qo'yishim kerak.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실내는 좀 더운 감이 있었다.

Katta deraza orqali quyosh nuri kirganligiga xonada ozgina issiqlik bor.

186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Ushbu qo'shimcha 'vaziyatda' ma'nosida keladi.

→ 예

힘들 일을 혼자 하는 경우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Qiyin ishni yolg'iz bajarayotgan vaziyatda o'zganing yordamini olish ham yaxshi uslubdir.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Mahsulot yomon chiqqan vaziyatda almashtirib yoki puli qaytarib beriladi.

187 -(으)ㄴ/는 걸 보니(까)

Amalda qo'llangan vaziyatni aytganda ishlatiladi va so'zning oxirida -나 보다, -(으)ㄴ 것 같다 kabi iboralar keladi.

→ 예

비싼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돈이 많은가 봐요.

Qimmat kiyim kiyganligiga qaraganda puli ko'pga o'xshaydi.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요.

Yomg'ir yog'ishiga qaraganda havo sovuydiganga o'xshaydi.

188

-(으)ㄴ/는 게 고작이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ko'pi bilan, deyarli, atiga'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 한 개를 팔면 100원 정도 남는 데 고작이다.

Mahsulot bahosi juda oshganligidan 1 dona sotsa atiga 100 von qoladi.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어린이들이 15분 정도 집중하며 수업을 듣는 게 고작이다.

Boshlang'ich sinflarda dars o'tish paytida bolalarning diqqat e'tibori ko'pi bilan 15 minutga yetadi.

이번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마리가나 1등을 했다. 마리의나의 한국어 공부는 1년동안 수업을 듣는 게 고작이다.

Bu safar koreys tili imtihonida Marina birinchi o'rinni oldi. Koreys tili bilan u deyarli bir yil shug'ullangan edi.

189

-(으)ㄴ/는 관계로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bog'liq holda, natijasida, tufayli' degan ma'no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ㄴ/은/는 관계로

명사 + 관계로

→ 예

돈이 없는 관계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못 했습니다.

Pul yo'qligi uchun, kattaroq uyga ko'chib o'ta olmadim.

길이 위험한 관계로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Yo'l xavfliligi sababli asta-asta ketishingiz kerak.

출장 관계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Xizmat safari tufayli majlis bekor qilindi.

우천 관계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Yomg'ir tufayli tadbir keyinga qoldirildi.

190 -(으)ㄴ 나머지

Ushbu ko'rinish, bosh gapning faoliyati ifoda etilgan ergash gapning faoliyati natijasida hosil bo'lganini ko'rsatadi. O'zbek tiliga 'natijasida, shunday, ham' deb tarjima qilinadi.

→ 예

대책을 잘못 세운 나머지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

Chora - tadbir xato tuzilganligi natijasida, yanada katta muammolar yuzaga keldi.

그는 놀란 나머지 소리를 쳤어요.

U shunday qo'rqib ketdiki, baqirib ham yubordi.

191 -(으)ㄴ/는/(으)ㄹ 대로

Bu qo'shimcha o'zbek tiliga 'qanday bo'lsa shundayligicha, avvalgidek, shunday, -lab, -day, -dek'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ㄹ/은/는/을 대로

→ 예

좋을 대로 하세요.

Qanday yaxshi bo'lsa shunday bajaring.

마음대로 하세요.

Xohlaganingizdek bajaring.

가르쳐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O'rgatganingizdek bajaraman.

- (2) Bu qo'shimcha ikki ot yoki otlashgan so'zlar o'rtasida kelsa, 'o'z-o'zicha, alohida, o'zi, o'zicha, o'ziga xos'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대로

→ 예

너는 너대로 갈 길을 가.

Sen o'z ketayotgan yo'lingdan ket.

우린 우리대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Biz o'zimizning ishimizni qilsak bo'ladi.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U kishining o'ziga xos fikri bor.

192

-(으)ㄴ/는 데

Ushbu qo'shimcha joy, manzil, qism, ish, harakat, vaziyat, kabi so'zlarni o'rnig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 예

어느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할만한 멋진 데를 알고 있다.

Qachon kim ko'rsada ko'ngliga yoqadigan joyni bilaman.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Biror yakunlayotganda sabr va toqat kerak.

193

-(으)ㄴ/는 데다가

Bosh gapdagi harakat yoki vaziyatga, ergash gapdagi harakat yoki vaziyat qo'shimcha bo'lib yuzaga keladi.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ustiga ustak'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 차는 낡은 데다가 칠까지 벗겨져서 사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U mashina eskirib ketgan ustiga ustak rangigacha o'chib ketgani sababli sotib olaman degan kishi bo'lmasa kerak.

그 남자는 키도 큰 데다가 돈도 많아요.

U yigitning bo'yi baland ustiga ustak puli ham ko'p.

194 -(으)ㄴ/는데도 (불구하고)

Ushbu qo'shimcha to'siqsiz ergash gaplarda ishlatib o'zbek tilida '-ga qaramay' degan ma'noni bildiradi.

예

그 사람은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네요.
U kishi mablag' yetishmovchiligiga qaramay, baribir shartnomaning imzolanishini tezlashtirishga harakat qilmoqda.

오늘 모임에 대한 연락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Bugungi majlis haqida barchani xabardor qilganimga qaramay, ko'pchilik kelmadi.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Yomg'ir yog'ishiga qaramay, tadbir rejalashtirilhandek o'tdi.

195 -(으)ㄴ/는데 반해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ga qaramay, esa aksincha' degan ma'noni bildiradi.

예

한국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반해 가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Koreyada yozda ko'p yomg'ir yog'ishiga qaramay kuzda deyarli yomg'ir yog'maydi.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은 오는데 반해 수익은 떨어졌다.

Bu yil bizning firmada sotuv hajmi o'sganiga qaramay daromad tushib ketdi.
'짜통'은 가짜, 또는 질 낮은 제품 등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진통'은 진품, 질 높은 제품을 말한다.

'Chaktung' qalbaki yoki sifatsiz mahsulot degan ma'noni bildiradi 'Chintung' esa aksincha asl mol yoki sifati yuqori mahsulotni anglatadi.

196 -(으)ㄴ/는들/-(이)ㄴ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ham, baribir'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는/은들

명사 + ㄴ/인들

- (1) Asosiy ish harakati yoki holatning o'zgarmasligini ko'rsatadi. Fe'l, sifat va ke-simli otlar bilan ishlatiladi.

→ 예

누가 온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Kim kelsada, bu muammo hal bo'larmikan?

세월이 흘러간들 우리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Vaqt o'tsada, bizning sevgi o'zgararmikan?

모두 다 떠났는데 이제 와서 애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Hamma ketib bo'lganida endi kelib gapirishdan nima foyda?

- (2) Bosh gapga qo'shilib uni maqullasada ergash gapning ma'nosiga unchalik ta'sir ko'rsata olmaslik ma'nosini bildiradi. -아/어도, - (이)라도, -(으)르더라도 kabi analogli ma'noga ega bo'lsada lekin ergash gapdagi so'roq ko'rinishi ya'ni gapda kuchli intanatsiyani kelishi sababli boshqa ibora bilan oson almashtirib bo'lmaydi.

→ 예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부모 말인들 듣겠어요?

Shuncha gapga quloq solmagan bola ota-onasini gapiga quloq solarmikan?

열심히 공부한들 나중에 활용할 기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G'ayrat bilan o'qib keyinchalik uni amalda qo'llash imkoniyati bo'lmasa nima foydasi bor?

- (3) Bosh gapning ko'rinishi qanday bo'lishidan qat'iy nazar, ergash gapga yo'l berib yoki ruxsat berish ma'nosini bildiradi. -라고 해도 adabiy so'zlarda qo'llaniladi-gan klassik ko'rinishdir.

→ 예

네가 아무리 장사인들 그를 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Sen qanchalik zo'r savdogar bo'lsangda undan o'tib keta olmaysan.

좋아서 택한 길인데, 험한들 어떡리.

Yoqtirib tanlangan yo'l, lekin yaxshi bo'lmasa nima bo'ladi.

197

-(으)ㄴ/는/(으)ㄴ 듯(이)

Ushbu qo'shimcha -(으)ㄴ/는/(으)ㄴ 것처럼 qo'shimchasi bilan ma'nodosh qo'shimcha hisoblanadi va o'zbek tiliga 'ga oxshash, -dek' deb tarjima qilinadi. Biror bir narsa yoki ish harakatining boshqa bir ish harakati yoki narsaga taqqoslaganda yoki o'xshat-ganda ishlatiladi.

Bir-biriga o'xshash bo'lgan yoki bir xil darajani ifodalash uchun, ko'pincha qiyoslashda ishlatiladi. Qavs ichidagi 듯(이) unlisidan foydalansa ham foydalanmasa ham bo'ladi. Ushbu unlining qo'llanish qo'llanmasligi gapning ma'nosiga hech qanday ta'sir qilmaydi. Bu shakl o'zbek tiliga '-day, -dek singari, kabi'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듯(이)

예

비 오듯이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Yomg'ir yog'ayotgandek oqayotgan ko'z yoshlarini to'xtatib bo'lmaydi.

아기를 다루듯이 화분을 조심해서 다루세요.

Bolani parvarishlagandek gulni ehtiyotlik bilan parvarish qiling.

그녀가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그녀를 사랑해요.

U qiz meni sevganidek men ham uni sevaman.

불을 보듯이 빠른 일이에요.

Olovni ko'rgandek aniq ish.

그 사람은 우리 형제를 처음 본 듯이 데면데면하게 대했다.

U kishi biz aka-ukalarni birinchi bor ko'rgandek ehtiyotkorlik bilan yuzlandi.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발이 땅에 붙은 듯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Daxshatli haqiqatni eshitib oyog'i yerga yopishib qolgandek uzoq vaqt qimirlamay turdim.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다.

Ko'p qavatli binolar osmonni o'pgandek baland bo'lib turardi.

198

-(으)ㄴ/는/(으)ㄹ 듯싶다

Ushbu qo'shimcha -는 것으로 생각되다 ma'nosida keladi. Tushuncha mazmunini aytayotgan kishining sub'yektlari qarorini bildiradi. O'zbek tilida 'deb o'ylayman' degan ma'noni bildiradi.

예

제 생각에 우리 형편에 그런 큰 차를 사는 건 무리인 듯싶어요.

Mening fikrimcha bizning hnozirgi sharoitimizda bunday katta mashinani sotib olish aqldan emas deb o'ylayman.

요즘 위장이 나빠진 듯싶어. 속이 쓰려서 밥을 못 먹겠어.

Shu kunlarda oshqozonim yomonlashdi deb o'ylayapman. Qornim og'rib ovqat yeya olmayapman.

199 -(으)ㄴ/는/(으)ㄹ 듯하다

Bu qo'shimcha so'zlovchining kelajakda bo'lishi mumkin bo'lgan unchalik aniq bo'lmagan fakt haqida o'z xulosasini va bahosi(taxmin)ni ma'lum qilganda ishlatiladi. 'Ko'p hollarda, -ganga o'xshaydi' deb ta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을 듯하다

→ 예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합니다.

Osmonga qarasam yomg'ir yog'adiganga o'xshaydi.

그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Shunday bo'lsa yaxshiga o'xshaydi.

태풍이 올 듯합니다.

To'fon keladiganga o'xshaydi.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듯합니다.

Oxir - oqibat ikki odam ajrashadiganga ketsa kerak.

200 -(으)ㄴ/는 마당에

Ushbu qo'shimcha ish harakatini bajarishda jarayon va holatni ko'rsatadi. Fe'l, sifat va kesimli otlar bilan ishlatiladi. O'zbek tiliga 'paytda, qachonki'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무도 안 간 마당에 나까지 빠질 수는 없다.

Hech kim ketmagan paytda, men ketsam bo'lmaydi.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마당에 사람을 더 뽑겠단지요?

Firma tanazzul arafasida turgan paytda, ishchi qabul qilayapti dedingizmi?

식량이 부족해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다.

Yegulik yetishmay odamlar o'lib borayotgan paytda, ularning qiyinchiliklarini ko'rmaslikka olib bo'lmaydi.

201 -(으)ㄴ/는 만큼

Nimaningdir doirasida aniqlovchining darajasi va chegarasini aniqlashni anglatadi. O'zbek tiliga bu qo'shimcha ot bilan kelsa 'kabi, singari, -dan ko'ra' deb, fe'l negiziga qo'shilsa '-guncha (-kuncha, -quncha), -gancha, -dagina, -gin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ㄹ/은/을 만큼

명사 + 만큼

예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Vaqtdan ko'ra muhim narsa yo'q.

이사하는 일만큼 귀찮은 일은 없습니다.

Boshqa joyga ko'chishdan mashaqqatli ishning o'zi yo'q.

먹을 만큼 먹어라.

Yeya olganingcha ye.

눈물이 나올 만큼 웃겨요.

Ko'z yoshi chiqqudek kulguli.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Osmonchalik yerchalik seni sevaman.

202 -(으)ㄴ/는 모양이다

Ot ro'y berayotgan ish harakati va voqeani holat yoki tasvirini ifodalaydi. Biroq ba'zi otlarning qo'llanilishida so'zlovchi yoki kimningdir holati yoki ahvolini tasdiqlashda ishlatiladi. O'zbek tilida 'shekilli, aftidan, chamasi kabi' degan ma'nolarni anglatadi.

예

집에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Uyda hech kim yo'qqa o'xshaydi.

밖에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Ko'chada yomg'ir yog'ayotganga o'xshaydi.

말리카는 방에서 자는 모양입니다.

Malika xonasida uxlayotganga o'xshaydi.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모양입니다.

Talabalar imtihonni yaxshi topshirishganga o'xshaydi.

그녀가 자기 결혼도 늦는 모양입니다.

U o'zini to'yiga ham kechikadiganga o'xshaydi.

할리마는 요즘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Halima shu kunlarda juda bandga o'xshaydi.
박 선생님께서는 오늘 안 올 모양입니다.
Ustoz Pak bugun kelmaydiganga o'xshaydi.

203 -(으)ㄴ/는/(으)ㄴ 바

Ushbu qo'shimcha fe'l va sifatlardan keyin qo'llaniladi. Ish yoki usul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gan ekan' deb tarjima qilish mumkin.

→ 예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네요.
Men o'ylaganim dan boshqacharoq ekan.
늦을 바에야 천천히 갑시다.
Baribir kechikar ekanmiz sekin-sekin boraylik.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Nima qilishni bilmayman.

204 -(으)ㄴ/는 반면(에)

Berilgan qo'shimcha ikkita oddiy gapni bir-biriga bo'g'lab bitta qo'shma gap yasaydi. Gapda fe'l, sifat va ot kesimlar bilan ishlatilishi mumkin. -에 yukla masisiz ishlatilishi mumkin. O'zbek tiliga 'lekin' deb tarjima qilinadi.

→ 예

한국어 성적은 20점이나 오른 반면에 수학 성적은 10점이나 떨어졌다.
Koreys tili bo'yicha baho 20 ballga ko'tarildi, biroq matematika bo'yicha baho 10 ballga pasaydi.
그는 영어를 못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잘한다.
U ingliz tilini bilmaydi, lekin koreys tilida yaxshi gapiradi.
안드레이가 떠난 반면에 마리나는 남아서 그곳을 지켰다.
Andrey ketdi, lekin Marina qolib o'sha joyga qaradi.

205 -(으)ㄴ/는 법이다

Ushbu qo'shimcha qandaydur harakatning kelib chiqishi tabiiy holigini ifodalayotganda ishlatiladi.

→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Maymun ham daraxtdan tushib ketishi tabiiy hol.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Hamma ishni o'z vaqti bor.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Umid katta bo'lsa umidsizlik ham shuncha katta bo'lishi tabiiy hol.

206

-(으)ㄴ/는/(으)ㄴ 사이에

Ushbu qo'shimcha fe'l va sifat bilan ishlatiladi va ular harakatning davrini bildiradi. -에 qo'shimchasi bilan ishlatiladi. O'zbek tiliga 'o'rtasida, paytida, vaqtida, mobaynida' deb tarjima qilinadi.

→ 예

모두가 잠자는 사이에 가게에 갔다 왔어요.

Hamma uxlagan vaqtda do'konga borib keldim.

친구 사이에 오해가 있었구나!

Do'stlar orasida tushunmovchilik bo'lgan ekanda!

207

-(으)ㄴ/는/(으)ㄴ 셈이다

- (1) Hisob so'zining ma'nosi ushbu qo'shimcha orqali so'zlovchining biror bir ish harakatga fikrini bildirganini ifodalaydi. Shuningdek taxmin va xoxishni bildirib tarjima qilinganda 'deb hisoblamoq, xoxlamoq, o'xshamoq, o'ylamoq' degan ma'nolarni beradi. Fe'l negiziga qo'shilib kesim vazifasini bajaradi.

→ 예

이제 이 학기는 거의 끝난 셈입니다.

Endi bu semestr deyarli tugadi hisob.

그 시장은 비교적 싸 셈입니다.

U bozorga nisbatan arzon hisoblanadi.

올해는 별로 춥지 않은 셈입니다.

Bu yil unchalik sovuq emas deb o'ylamayman.

- (2) Ushbu qo'shimchaning ikkinchi ma'nosi 'o'ylash, rejalashtirish, niyat qilmoq' so'zlariga to'g'ri keladi.

→ 예

그렇게 놀면서 시험은 어떻게 볼 셈이니?

Bunday o'ynab yursang imtihonlarni qanday topshirmoqchisan?

이곳이 너무 좋아서 아예 여기서 살 셈입니다.

Bu yer shunchalik yaxshiligidan butunlay shu yerda qolishni rejalashtiryapman.

타나는 이번 학기에 개인 사정으로 휴학할 셈이다.

Tanya shaxsiy muammolari tufayli bu semestrda akademik ta'til olishni rejalashtirmoqda.

208

-(으)ㄴ/는 셈 치고

Ushbu qo'shimcha shuni ta'kidlaydiki, bosh gapdagi ish faoliyati sodir bo'lishida ergash gapdagi ish faoliyat yoki holatga nisbatan taxminga asoslanadi. Bosh va ergash gaplarning o'rni almashtirilganda -는 셈이다 shaklidan inyg o'niladi. O'zbek tilida 셈이다 '-gan holda-, deb hisoblasak' degan ma'nolarni anglatadi.

→ 예

자식 하나 없는 셈 처라.

Bitta farzandim yo'q deb, hisobla.

헛걸음할 셈치고 한번 가보자.

Shunchaki ketyapmiz deb, hisoblab bir marta borib ko'raylik.

그런 셈이지.

Shunday deb, hisobla.

다들 그 얘기는 못 들은 셈 치고 넘어가라고 했다.

Hamma bu ishni eshitmadi deb hisoblab boshqasiga o'taver deyishdi.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자.

O'layotgan odamni qutqarayapman deb hisoblab, bir marta yordam beraylik.

209

-(으)ㄴ/는/(으)ㄹ 일이 있다/없다

Bu qo'shimcha 'ish, yumush, mashg'ulot' ma'nosini beradi, ammo quyidagi shakllar bilan qo'llanganda aytilayotgan fikr o'tgan zamonda bo'lib o'tganligini anglatadi va 'bir

vaqtlar, -gan vaqtim, -gan joyim, qachonlardir', yoki uzoq o'tgan zamon qo'shimchasi tarzida tarjima qilinadi.

→ 예

저는 사마르칸트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Men bir vaqtlar Samarqandga borganman.
언젠가 그 그림을 본 일이 있습니다.
Qachonlardir bu rasmni ko'rganman.
그 분은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습니다.
U kishi tamaki chekmagan.
저는 그 친구와 싸운 일이 없습니다.
Men u do'stim bilan sira urushmaganman.
저는 그 친구한테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Men u o'rtog'imga yomonlik qilmaganman.

210 -(으)ㄴ 적이 있다/없다

Bu qo'shimcha so'zlovchining o'tgan zamonda boshdan kechirgan biror hodisa yoki asosni vaqtga aloqadorligini aks ettiradi. Bu qo'shimchani '-gan joyim bor, -b(-ib), ko'rganman,' yoki mutlaqo o'tgan zamon hikoya fe'li tarzida tarjima qilish mumkin.

→ 예

저는 여자 친구와 함께 미술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Men yaxshi ko'rgan qizim bilan birga san'at muzeyiga borib ko'rganman.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Bunday g'alati gapni sira eshitib ko'rmaganman.
저는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없어요.
Men bu odam bilan uchrashib ko'rmaganman.

211 -(으)ㄴ/는/(으)ㄴ지 않다/모르다

Ushbu qo'shimcha ishonmaslik yoki shubha bilan qarashda ishlatiladi. So'roq so'zlar-ga javob berishda ishlatiladi, 'nimanidir bilaman, bilmayman' ma'nosini beradi. 알다/모르다 o'miga 궁금하다, 생각하다, 걱정하다 kabi har xil fe'llardan foydalanish mumkin.

→ 예

언제 편지가 도착할지 모르겠다.
Xat qachon yetib borishini bilmayman.

어제 우미다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Kecha Umida maktabga kelganmi kelmaganmi bilmayman.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Mening tug'ilgan kunim qachonligini bilasizmi?

212 -(으)ㄴ 즉(슨)/인즉(슨)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ga, -dan, -ni, -da, boshqa so'zlar bilan'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소문인즉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Mish-mishlarga qaraganda u kishi firmadan ketibdi.
 사실인즉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To'g'risini aytganda, biz bu hodisa haqida hech nima bilmaymiz.
 아버지 말씀을 들어 본즉슨 그 말도 옳았어요.
 Otamning so'ziga qaraganda uning gapi ham to'g'ri ekan.

213 -(으)ㄴ 지

- (1) Biror bir voqeylikni ma'lum vaqtda ro'y berganligini ifodalaydi. 되다, 지다 va shu kabi fe'llar bilan tez-tez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으)ㄴ 지

→ 예

저는 타슈켄트에 온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Men Toshkentga kelganimga 2oydan oshdi.
 저는 그녀를 못 본지 일 년이 되어갑니다.
 Men u qizni ko'rmaganimga bir yil bo'lyapti.
 그 사람을 만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Men u kishini uchratganimga 1 hafta bo'ldi.

- (2) Qo'shimcha vazifasini bajaradi va birga yozilib odatda qandaydir fakt tasdiqlash, isbotlash ma'nosini ifodalaydi.

동사/형용사 + ㄴ/ㄹ/는/은/을지 알다/모르다

→ 예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Ish qachon tugashini bilmayman.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Telefon-avtomat qayerdaligini bilasizmi?

오늘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모릅니다.

Bugun havo qanchalik issiqligini tasavvur qila olmaysiz.

214 -(으)ㄴ 채

Ushbu qo'shimchada ob'ekt avvalgi holatda (qanday bo'lsa shunday) qolishini bildiradi. O'zbek tiliga '-ganicha, -ligicha' deb tarjima qilish mumkin.

동사/형용사 + (으)ㄴ 채

명사 + 채

→ 예

어제는 피곤해서 앓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Kecha charchaganimdan o'tirgancha uxlab qolibman.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Bu odam ko'zini yumganicha hech narsa gapirmadi.

웃은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Kiyimini kiygancha suvga kirdi.

215 -(으)ㄴ/는 체 하다

Ushbu qo'shimcha soxtalikni ifodalaydi, ya'ni biror bir narsani o'ziga o'xshamagan ko'rinishi ifodalaydi. -는/은 양하다, -는/은 척하다 tuzilmalari ham shu ma'noni ifodalaydi.

→ 예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척 했습니다.

Kayfiyati yomon bo'lsada, yaxshiga o'xshatib ko'rsatdi.

너는 너무 잘난 체한다.

Sen o'zingga juda bino qo'ygandek ko'rinyapsan.

저도 공부를 잘하기는 합니다.

Men ham yaxshi o'qiyapman.

216 -(으)ㄴ/는 탓

Ushbu qo'shimcha qandaydir harakat yoki holat sababini bildiradi. O'zbek tiliga 'sababli, uchun' deb tarjima qilinadi. Ushbu qo'shimchadan keyin kelgan so'z ko'proq salbiy ma'noda keladi.

동사/형용사 + ㄴ/은 탓
명사 + 탓

→ 예

그는 과로한 탓으로 쓰러졌습니다.

U zo'riqqani sababli yiqilib tushdi.

모두 네 탓이야.

Hammasi sening aybing.

잠을 많이 잔 탓에 머리가 아픕니다.

Judayam ko'p uxlaganim uchun boshim og'riyapti.

217 -(으)ㄴ/는 탓에

Ushbu qo'shimcha -는 바람에 bilan ma'nodosh qo'shimcha hisoblanadi lekin 바람에 qo'shimchasi oldiga faqatgina hozirgi zamon -는 qo'shimchasi qo'yiladi. 탓 qo'shimchasi esa o'tgan zamon -(으)ㄴ qo'shimchasi bilan ham kela oladi. Ushbu qo'shimcha ishlatilgan so'zlarning orqasidan doim salbiy manodagi so'zlar keladi.

(1) Asosiysi inkor ma'no ta'sirining kelishini bildiradi.

→ 예

시간이 모자란 탓에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Vaqt yetmaganligi sababli savollarning hammasini yecha olmadik.

요즘 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탓하다.

Hozirgi kunda maxsulot narxining o'sishi taklif talabga yetolmayotganligi sabablidir.

(2) Noto'g'ri narsada ayblashda ishlatiladi.

→ 예

모든 것이 당신 탓에 일어난 일이다.

Hammasi sen sababli yuzaga keldi.

네 탓에 내가 이렇게 망했으니 책임져.

Sen sababli men aziyat chekdim mas'uliyatni o'z bo'yningga ol.

218 -(으)ㄴ/는 커녕

Bosh gap mazmunini faollik bilan inkor qilib ergash gapdagi mazmunni ham qila olmaganlik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tugul, o'miga u yoqda tursin' degan ma'noda keladi.

명사 + ㄴ/은 커녕

→ 예

밥은커녕 죽도 못 먹는다.

Ovqat u yoqda tursin atala ham yeya olmaydi.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다 써 버렸다.

Pul topish u yoqda tursin borimni sarflab yubordim.

219 -(으)ㄴ/는 한

Berilgan qo'shimcha fe'l negiziga qo'shilib, kelgusidagi ish harakatining shart-sharoitlarini ifodalaydi. O'zbek tiliga 'agar, ekanman (san/siz/miz) (bor ekanmiz)'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한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Agar hech kim yordam bermas ekan, bu ishni o'z zimmamga ololmayman.

내가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다.

Sen bor ekansan, men qo'rqmayman.

이 학교에 남아 있는 한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Men ushbu maktabda qolgan ekanman, talabalarni oxirigacha ma'suliyatini o'z bo'ynimga olaman.

220 -(으)나 마나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sa... -mas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으)나 마나

→ 예

돈이 있느냐 마나 몸에 맞아야 옷을 사지.

Pul bo'lsa bo'lmasa yarashgan kiyimni olish kerak.

221 -(으)니 -(으)니/-느니 -느니 해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mi - mi baribir' deb tarjima qilinadi.

→ 예

뭐니 뭐니 해도 오래된 친구가 제일이지요.

Nima bo'lsa ham baribir eski do'st yaxshi.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느니 결혼하면 고생이라느니 해도 결혼하면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Yolg'iz yashash qulay bo'lsa ham, turmush qurib qiynalsa ham, turmush qursa hamma baxtli yashar ekan.

222 -(으)니까 말인데

Bosh gapning asosini boshqa kishiga tushuntirganda yoki o'zing fikrini aytganda ishlatiladi.

→ 예

요즘 복지 시설에 성금이 줄었대요. /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도 성금을 보내는 게 어때요?

Hozirgi kunda beg'araz yordam mablagi tushib ketyapti deyishyapti. / Gap chiqqanligi uchun biz ham mablag' kiritsak qalay bo'larkin?

223 -(으)니까 이왕이면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an foydalanib', 'bir yo'la'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왕이면 모든 문제를 의논했으면 합니다.

Shunday qiyinchiliklar bilan shu yerga yig'ilgan ekanmiz, shu fursatdan foydalanib hamma muammolarni muhokama qilsak yaxshi bo'lardi.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ordam ko'rsatishga va'da bergan ekan, shu fursatdan foydalanib, ko'ngilga yoqqan yo'nalish orqali borsak yaxshi bo'lardi.

시장에 가는 길이니까 이왕이면 은행도 들립시다.

Bozorga borayotgan ekanmiz, bir yo'lakay bankka ham kirib o'taylik.

224 -(으)니만큼

(1) Qandaydir bir harakatni o'ylab subektli fikr (qaror, buyruq) kabilarni taklif qilganda ishlatiladi.

→ 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우니만큼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

Shamol esib havo sovyuqligi uchun ko'chaga chiqmasdan uyda dam olaylik.

열심히 공부했으니만큼 이번에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을 거예요.

G'ayrat bilan o'qiganing uchun ham bu safar institutga aniq kira olsang kerak.

그분은 30년 간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니만큼 존경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U kishi 30 yil vaqt mobaynida talabalarga gayrat bilan dars bergan o'qituvchiligi uchun hurmat qozonishi tabiiydir.

(2) Vaqt yoki manzilni bildiradigan ot takrorlanib -이/가 -(이)니만큼 ma'nosini beradi. Odatda so'zning birinchi qismiga qo'shiladi.

→ 예

나이가 나이니만큼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Yosh o'tgan sari sog'liqni saqlash kerak.

장소가 장소니만큼 이렇게 조용한 거죠.

Joy joyiga qarab shunday jimjit.

225 -(으)니 할 수 없지요

Ushbu qo'shimcha imkon yo'q deb voz kechishni taklif qilganda ishlatiladi.

→ 예

소풍을 가려 해도 비가 이렇게 오니 할 수 없지요.

Dam olishga ketmoqchi edim-u, yomg'ir bunday yog'ayotganligi uchun nailoj.

김 선생님께서 말리시니 할 수 없지요. 다음 주로 미루는 수밖에요.

O'qituvchi Kim ta'qiqlagan bo'lsa hech narsa qila olmaymiz. Keyingi haftaga kechiktirishdan boshqa iloj yo'q.

226 -(으)ㄹ걸 그랬다

Qilinmagan ish harakati yuzasidan ko'ngil qolishi yoki afsuslanishni bildiradi. Ko'pincha -그랬다 tushib qolishi sodir bo'ladi. O'zbek tiliga 'yaxshisi' deb tarjima qilinadi.

→ 예

이런 말은 안 할걸 그랬어요.

Bu gapni aytmagan bo'lardim.

그가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택시를 탈걸 그랬어요.

U puli borligini bilganimda, taksiga o'tirgan bo'lardik.

네가 올 줄 알았으면 외출하지 않았을걸.

Sening kelishingni bilganimda, ko'chaga chiqib ketmagan bo'lardim.

227 -(으)ㄹ걸요?

Tushunchaning mazmuni aniq, ahd bilan aytganda ishlatiladi.

→ 예

제주도 지방의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 겨울이라도 그다지 춥지 않을걸요?

Chejudo viloyatining ob-havosi qanday ekan? Qish bo'lsada unchalik sovuq bo'lmasligi kerak.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 지금 가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걸요?

O'z vaqtida yetib bora olamizmi? Hozir jo'nasak o'sha vaqtga etib boramiz?

228 -(으)ㄴ 것이 아니라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yaxshisi' deb tarjima qilinadi. Biror bir ish harakatini uslubini usulini taklif qilganda ishlatadi.

→ 예

나오코 :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카페가 있다면서요?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Naoko: Insadongga 'Kvichon' degan qahvaxona bor degandingizmi? Bir borib ko'rsak yaxshi bo'lardi.

영 철 :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죠. 아, 그럴 게 아니라 내일 약속 장소를 '귀천'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Yong Chol: Bu dam olish kuni birga boramiz. A, yaxshisi ertangi uchrashuv joyini 'Kvichon'ga o'zgartirsak qalay bo'larkin?

229 -(으)ㄴ 겸(해서)

Ushbu qo'shimcha birgalikdagi ikki ish harakatini bildiradi. O'zbek tiliga 'bir yo'la, bira to'la, birga, uchun, bo'lishi bilan birga', deb tarjima qilinadi.

동사 + ㄴ/을 겸
명사 + 겸

→ 예

친구의 안부도 물어볼 겸 전화를 했습니다.

Do'stimning salomatligini so'rash bilan bir yo'la telefon ham qildim.

러시아어도 배울 겸 여기로 유학을 왔습니다.

Rus tilini o'rganish uchun ham bu yerga o'qishga keldim.

돈도 벌 겸 취미도 살릴 겸 꽃가게를 시작했습니다.

Ham pul topish ham qiziqishimni yo'qotmaslik uchun gul do'koni ochdim.

그 분은 시인 겸 문학평론가입니다.

U kishi shoir bo'lishi bilan birga adabiy tanqidchi hamdir.

230 -(으)ㄴ까 말까

Harakatni bajarganda hali qaror qilmasdan ikkilangan holatni bildiradi. 말다 ni boshqa fe'llarda ishlatish mumkin. O'zbek tilida 'qilsammi yoki qilmasamni' degan ma'nolarni beradi.

→ 예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Gapirsammi yoki gapirmasammi deb ikkilanayapman.

한국에 유학을 갈까 말까 해요.

Koreyaga o'qishga borsammi yoki bormasammi deb turibman.

졸업 논문을 쓸까 국가시험을 볼까 고민 중입니다.

Diplom ishini yozsammi yoki davlat imtihonini topshirsammi deb o'ylayapman.

231 -(으)ㄴ까 봐

Biror bir ish harakatining shunday ta'sirini kelib chiqishi, shunday vaziyatni bo'lishidan havotir olganlik ma'nosini bildiradi. So'roq so'z -(으)ㄴ까 qo'shimchasiga bo'아서 qo'shimchasini qo'shilgan ko'rinishi bo'lib, bu vaqtda 생각하다 so'zi 걱정하다 ma'nosini bildiradi. Havotir oladigan shaxs ergash gapning egasi bo'ladi.

→ 예

그는 제 마음을 혹 돌아설까 봐 항상 염려하는 듯합니다.

U kishi mening ko'nglimni qaytarishi mumkin deb doim havotirga tushaman.

네가 비행기를 놓쳤을 까봐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Samalyotdan qolib ketasan deb havotirlanib, kecha tunda umuman uxlolmadim.

232 -(으)ㄴ까 하다

Bosh gapdagi ish harakatni qilish uchun ergash gapdagi ish harakatni qilishda ishlatiladi. Biror bir ish harakatini qilishdan oldin o'ylash yoki taxmin qilishni ham bildiradi.

→ 예

산책을 할까 하고 공원에 갔습니다.

Sayr qilish uchun parkka bordim.

학교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날까 했습니다.

Maktabga borsam do'stimni uchrataman deb o'yladim.

233 -(으)ㄴ 나위가 없다

Boshqa bir qo'shimchaga hojat qolmaganligini, holatdan qoniqishni ifodalab ortiqcha qo'shimcha ish harakatini amalga oshirishga asosning yo'qligini ko'rsatadi. 나위 so'zin-

ing ekvivalenti 틈 va 여지 hisoblanadi. O'zbek tiliga 'ta'nasiz, hojati yo'q, qo'shimchalarsiz, bahonasiz'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의 성품은 말할 나위 없이 좋다.

Uning ichki sifatleri yaxshiligidan aytishga ortiqcha so'zning hojati yo'q.

작성한 보고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Yozilgan hisobot ortiqcha qo'shimchalarga zarurat tug'dirmaydigan darajada mukammal.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의 제품이니 품질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Jahon talabiga javob bergan korxona mahsulotiligi uchun sifatiga shubhalanishga hojat yo'q.

234 -(으)ㄴ 듯 말듯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goh(yoki), goh(yoki)', '-mi, -mi' deb tarjima qilinadi. Sodir bo'layotgan ish harakati holatining noaniqligini ko'rsatadi.

→ 예

그가 상점에 들어갈 듯 말 듯 서성이고 있다.

U do'konga kirsammi yo'qmi deb ikkilanib turibdi.

블록으로 쌓은 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

G'ishtdan qurilgan minora yiqilayotgandek xavfli ko'rinadi.

235 -(으)ㄴ 따름이다

Mavjud holatda qandaydur qarorning chiqarib tashlanishini ko'rsatadi. Fe'l, sifat va kesim bo'lib keladigan otlar bilan qo'llaniladi. O'zbek tiliga 'hech qanday chora qolmadi' deb tarjima qilinadi.

→ 예

저는 선생님만 믿을 따름입니다.

Men faqat sizga ishona olaman.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Bu kishi menga shunaqa gapni aytganiga hayron bo'lmaslikni iloji yo'q.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Shunday katta yordam beraman deganingizga minnatdor bo'lmaslikning iloji yo'q.

236 -(으)ㄴ 락

Iloji bo'lgan asosga nisbatan notinchlik yoki xavotirni ifodalaydi. Munosabatlarda betakalluf shaklda ishlatiladi. O'zbek tiliga '-dan ko'rish, xavotir olmoq, hayajonlanmoq' deb tarjima qilinadi.

→ 예

조심해라, 다칠라.

Ehtiyot bo'! Shikastlanasan!

빨리 가 봐. 벌써 팔렸을라.

Tezroq borib ko'r! Sotib yuborishgan bo'lsa kerak!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릴라.

Bu ketishda shamollab qolishing mumkin.

237 -(으)ㄴ 래(요)

Bir va ikki shaxs birikmasida qo'llaniladi. I -shaxs birikmasida gapiruvchining xohishini ifodalasa, II-shaxs birikmasida esa biror bir harakatga bo'lgan suhbatdoshining fikrini so'rayotganda ishlatiladi.

→ 예

이 음식을 다시는 안 먹을래요.

Bu ovqatni boshqa yemayman.

난 학교 갈래.

Men maktabga ketdim.

내일 뭘 할래?

Ertaga nima qilasan?

제 말 좀 들어주실래요?

Mening gapimni ozgina eshitasizmi?

238 -(으)ㄴ 리

Biror bir fakt sababining sof ma'nosini ifodalaydi. So'roq shaklida kinoyaviy ma'no beradi. O'zbek tiliga 'ham, mumkin, ethimol'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 분은 건강해서 편찮으실 리가 없다.

U kishi sog'lom, kasal bo'lishi mumkin emas.

그 사람이 약속을 잊을 리가 있습니까?

Bu kishi va'dasini unutishi ham mumkinmi?

오늘은 눈이 올 리가 없어요.

Bugun qor yog'ishi mumkin emas.

239

-(으)ㄹ 리 만무하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da tarjima qilinganda 'bo'lishi mumkin emas' degan ma'noni bildiradi.

예

네가 그것을 모를 리 만무하다.

Sen bu haqda bilmagan bo'lishing mumkin emas.

그것이 사실일 리가 만무하네요.

Bu haqiqat bo'lishi mumkin emas.

그럴 리가 만무해요.

Bunday bo'lishi mumkin emas.

240

-(으)ㄹ 만큼/정도로

To'liq 'to'g'ri keladigan, belgilangan miqdor'ni bildirsada lekin 'boshqa narsaga taq-qoslangan vaqtda undan ustun' kabi taxmin ma'nosini beruvchi qo'shimcha hisoblanadi.

예

며칠 전에 친구 집들이에 갔었는데, 먹을 수 없을 만큼 음식을 많이 장만했더라.

Bir necha kun oldin do'stimning uy ko'rdisiga borgandim eb tugatib bo'lmas darajada ko'p taom tayyorlabdi.

이 강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Bu dengizning suvi tubi ko'rinarli darajada tiniq.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다 아플 정도이다.

Ko'p kitob o'qiganimdan boshim juda ham og'riyapti.

241

-(으)ㄹ 만하다

Yetakchi fe'lda ifodalangan harakat yoki holatni ma'lum baho, darajada bor bo'lishi-ni ifodalaydi.

예

이 식당에는 먹을 만한 음식은 별로 없어요.

Bu restoranda yeyish mumkin bo'lgan ovqat deyarli yo'q.

이 학자는 노벨상을 받을 만합니다.

U olim nobel mukofoti olishga loyiq.

242

-(으)ㄴ 망정

Aniq bir asosga boshqa birmuncha yaxshiroq asosni qarshi qo'yil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ga qaramay, bolsa ham, lekin' deb tarjima qilinadi.

예

그 사람은 키가 작을망정 힘은 아주 세다.

U kishining bo'yi past bo'lsa ham, lekin juda kuchli.

우리는 죽을망정 적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Biz o'lsakda, lekin dushmanga bosh egmaymiz.

그는 머리는 나쁠망정 게으르지 않는다.

U aqlli bo'lmasada dangasa emas.

243

-(으)ㄴ 무렵

Ushbu qo'shimcha qandaydir ish harakati yoki holatning taxminiy vaqtda bo'lib o'tishini bildiradi. O'zbek tiliga 'vaqtlarda, vaqtd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ㄴ/을 무렵

명사 + 무렵

예

내년 꽃이 필 무렵에 다시 만나요.

Kelasi yil gullar ochilgan vaqtga qayta uchrashamiz.

아마 이 무렵이 그녀의 생일이었죠.

Taxminan shu vaqtlar u qizning tug'ilgan kuni edi.

244

-(으)ㄴ 바에는/바에야

Bosh gap tomonidan ifodalangan ish harakatining amalga oshirilishi, ergash gap to-

monidan ifodalangan ish harakatini amalga oshirishdan ko'ra qulayroqligini ko'rsatadi. O'zbek tiliga 'yarasha, o'rniga'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산책이라도 나가요.

Hech narsa qilmaganingga yarasha, hech bo'lmaganda sayrga chiq.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게 낫다.

Bunday qilgandan ko'ra, qilmaganing yaxshi.

245 -(으)ㄴ 법하다

Haqiqiy, odatiy yoki doimiy taxminni ta'kidlovchi jarayonni ko'rsatadi. O'zbek tiliga 'taxminan, chamasi'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가 내일은 올 법한데.

U ertaga kelishi mumkin ekan.

저녁에 비가 올 법해서 행사를 다음날로 연기하기로 했다.

Kechqurun yomg'ir kutilayotganligi sababli, tadbirning o'tkazilishini ertaga qoldirishga qaror qildik.

벌써 다섯 번째 보는 시험이니 이번에는 합격할 법도 해요.

U beshinchi marotaba imtihon topshirayotganligi sababli bu safar kirib qolar.

246 -(으)ㄴ 뻔하다

Ushbu qo'shimcha haqiqatda sodir bo'lmagan, biroq bo'lishiga ozgina qolgan biror bir ish harakatni taxmin qiladi. Odatda o'tgan zamonda qo'llanganligi sababli -았/었/였-suffikslari bilan keladi.

→ 예

거의 죽을 뻔했어요.

Deyarli o'lib qolay dedim.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Zinadan yiqilishimga sal qoldi.

247 -(으)ㄴ 뿐

'Faqat', 'xolos' degan ma'noni bildirib, shu qo'shimcha qoshilgan qismdagi harakatgina bajarilganini anglatadi.

동사/형용사 + ㄹ/을 뿐
명사 + 일뿐

→ 예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Hamma tomosha qildi xolos, yordam beradigan hech kim yo'q edi.

조상호 씨는 그 일을 기획한 사람일 뿐이지 실무 책임자는 아닙니다.

Cho Sang Ho faqatgina ishni rejalashtiruvchi shaxs, ishga ma'sul shaxs emas.

248 -(으)ㄹ 뿐더러

Qandaydir harakat o'sha narsagagina bog'liq bo'lmay undan boshqa narsalarga ham bog'liq bo'lishini bildiradi. -(으)ㄹ 뿐만 아니라 bilan bir xil ma'noga ega.

→ 예

철수는 노래도 잘할뿐더러 미술 실력도 대단하다.

Cholsu nafaqat qo'shiqda balki san'atda ham tengi yo'q

김 교수님의 강의는 재미있을뿐더러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Professor Kimning ma'ruzalari qiziqarli bo'libgina qolmay foydali hamdir.

이곳의 여름 날씨는 몹시 더울뿐더러 습기도 많아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Bu yerning yoz havosi nafaqat juda issiq balki namlik darajasi kattaligidan juda yoqimsiz.

249 -(으)ㄹ 뿐만 아니라

아니다 yoki 더러 bilan qo'shilib, odatda o'zbek tilida 'nafaqat bu, -gina emas, hatto-ki' degan ma'nolarni beradi.

동사/형용사 + ㄹ/을 뿐(만) 아니라/더러
명사 + 뿐(만) 아니라/더러

→ 예

시간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 없었습니다.

Nafaqat kechikdik hattoki mashina ham yo'q edi.

겨울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눈도 많이 내립니다.

Qishda sovuqqina bo'lib qolmay, hattoki qor ham ko'p yog'adi.

사랑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빛입니다.

Muhabbat hayotgina bo'lib qolmay, hattoki nur hamdir.

250

-(으)ㄴ 뿐이다

Oddiy nimadir qilish yoki qanday ta'sir qilish ma'nosini bildiradi. O'zbek tiliga '-gina, faqat, faqatgina' deb tarjima qilinadi. 'yagonalik' ma'nosiga ega bo'lgan **뿐** qo'shimchasi bilan bog'liq bo'lgan otning orqasidan yoziladi.

→ 예

제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뿐입니다.

Men bilgan narsa u kishini ismigina xolos.

어제는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뿐입니다.

Kecha kayfiyatim birozgina yaxshi emasdi xolos.

그 사람은 돈만 없을 뿐이지 좋은 사람이에요.

Bu odamning faqatgina puli yo'q, lekin yaxshi odam.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So'zsiz faqat ko'z yoshlarigina oqardi.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Mening holatimni tushunishingizni istayman xolos.

251

-(으)ㄴ 성싶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chamasi, aftidan'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날이 흐린 걸 보니 눈이 올 성싶다.

Bulutli havo bo'lganiga qaraganda, aftidan bugun qor yog'adi.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닐 성싶다.

Pul bilan hamma narsani hal qilsa bo'ladi deyishsa ham, baribir, pul bu hamma narsa emas.

웬지 낮이 익은 걸 보니 그를 어디선가 한 번 본 성싶다.

Negadir tanish ko'rinishiga qaraganda uni qayerdadir ko'rganman chamasi.

252

-(으)ㄴ 세라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eb o'ylab, hisoblasak, taxmin

qilib'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버스를 놓칠세라 숨도 쉬지 않고 뛰어갔다.

Avtobusni o'tkazib yuboraman deb o'ylab, nafas olmasdan yugurdim.

그의 마음이 아플세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Uning ko'ngli og'rimasin deb hech nima demadim.

집에 무너질세라 재빨리 뛰쳐나갔습니다.

Uy qulab ketadi deb o'ylab, u yerdan yugurib chiqdik.

253

-(으)ㄴ 수록

- (1) Harakat yoki holatni tezlik bilan o'sishini ya'ni oshishini ifodalaydi. O'zbek tiliga 'sayin, sari'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 친구는 만날수록 더 믿음이 가요.

U do'stim bilan uchrashganim sari unga ishonchim ortayapti.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Ahvol og'irlashgan sayin sovuqqon bo'lish kerak.

- (2) -(으)면 -(으)ㄴ 수록

-(으)면 shakli bosh fe'lga qo'shilsa -(으)ㄴ 수록 shaklini olgan keyingi fe'l harakat o'sishini jadalligini yanada kuchliroq ifodalaydi. 'Qanchalik, shunchalik' deb tarjima qilinadi.

→ 예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 집니다.

O'qigan sari kamtarlashib boradi.

그 사람은 사귀면 사귄수록 더 마음에 들어요.

U odam bilan qanchalik do'stlashsang shunchalik yoqaveradi.

254

-(으)ㄴ/는 수밖에 없다

-수밖에 ibora singari qo'llanilib qilingan ishdan boshqa hech narsa qolmagan holatni ifodalaydi. O'zbek tiliga 'boshqa iloji yo'q' deya tarjima qilinadi.

동사 + 는 수밖에 없다
형용사 + ㄹ/을 수밖에 없다

→ 예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Menning sabr qilishdan boshqa ilojim yo'q.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Kuchada kutishdan boshqa iloji yo'q edi.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Boshqa chorasini qidirishdan o'zga iloji yo'q.

255

-(으)ㄴ 양으로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fikir-mulohazalardan kelib chiqqan holda, niyat qilgan holda' deb tarjima qilinadi.

→ 예

마음껏 쉴 양으로 제주도에 갔다.

Yaxshi dam olish niyatida, Chechjudoga ketdim.

그를 볼 양으로 그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다.

Uni ko'rish niyatida, uning uyiga ogohlantirishsiz bordim.

256

-(으)ㄴ 적에

Ushbu qo'shimcha hozirda ro'y berayotgan yoki bo'lib o'tgan ish harakatini eslab gapir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vaqtida, paytida' deb tarjima qilinadi.

동사/형용사 + ㄹ/을 적에

→ 예

저는 어릴 적에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Men yoshlik vaqtimda uchuvchi bo'lishni orzu qilardim.

길에 건널 적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Yo'lni kesib o'tayotgan vaqtda ehtiyot bo'lish kerak.

주무실 적에는 불을 끄세요.

Uxlayotgan vaqtingizda chiroqni o'chiring.

257

-(으)ㄴ 정도

Bajarilayotgan harkatning o'lchovi va darajasining holati yoki asosini ko'pincha qiyoslash ma'nosida ishlatiladi. Asosan -로 yuklamasi bilan ishlatiladi. Ba'zan esa, boshqa yuklamalar bilan ham ifodalanishi mumkin. 'qila olish darajasida' ma'nosini bildiradi. O'zbek tilida o'lchov darajas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 리/을 정도
명사 + 정도

→ 예

사과는 1킬로그램 정도 주세요.

Bir kilocha olma bering.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세요.

Bajara olganingizcha bajaring.

달빛이 신비로울 정도로 고운 빛깔을 하고 있었다.

Oy sirli darajada go'zal nur sochib turardi.

바람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덜했으나,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바깥 공기가 싸늘했다.

Shamol ovozi boyagiga qaraganda ozgina kamaydi, lekin tashqari kishini junjiktiradigan darajada sovuq edi.

258

-(으)ㄴ 줄 알다/모르다

- (1) Biror bir ishga qodirlik, qodir emaslik, bilish-bilmaslik, imkoniyatli yoki imkoniyatsizlik ma'nolarini ifodalaydi.

동사/형용사 + 리/을 줄 알다/모르다

→ 예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Mashina boshqarishni bilaman.

제 친구는 저를 이해할 줄 압니다.

Do'stim meni tushunishini bilaman.

- (2) Qandaydir harakatni kutilayotganini yoki o'ylayotganini bildiradi, ya'ni qandaydir bir asos haqida o'ylagan, ammo o'ylagandan boshqacharoq bo'lib chiqmaganda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니/리/는/은/을 줄 알다/모르다
명사 + (이)니 줄 알다/모르다

→ 예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 몰랐습니다.

Bunaqa tasodifan uchrashib qolishimizni bilmagandim.

직장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Ish hayoti bunaqa qiyin bo'lishini bilmagandim.

발소리로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Oyoq ovoizidan sizligingizni bilgandim.

피아노로 이 노래를 연주 할 수 있으세요?

Bu qo'shiqni pioninada chalishni bilasizmi?

259 -(으)ㄴ 줄 알았더라면 -(으)ㄴ 걸

O'ylamagan vaziyat sababli o'tgan zamon dagi harakatni o'ylab afsuslanish push-oymon bo'lgan vaziyatda ishlatiladi. -(으)ㄴ 걸 그랬다 bilan birga yozilishi ham mumkin.

→ 예

주말 내내 비가 내릴 줄 알았더라면 그냥 집에서 쉬걸.

Dam olish kuni bunday yomg'ir yog'ishini bilganimda uyda dam olardim.

이렇게 돈이 빨리 떨어질 줄 알았더라면 좀 아껴서 쓸걸 그랬어.

Pulim bunchalik tez tugashini bilganimda tejab sarflagan bo'lardim.

260 -(으)ㄴ 지경이다

Qandaydir og'ir holat yoki ahvolga tushib qolish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gu(n)day bo'lib qoldim, -b(-ib) qolayozdim' deb tarjima qilinadi.

→ 예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다.

Judayam charchaganimdan yiqilguday bo'lib qoldim.

어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Kecha qornim ochligidan o'lib qolayozdim.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 죽을 지경입니다.

Imtihondan o'tganim uchun hursandligimdan o'lib qolayozdim.

261 -(으)ㄴ지라도

Bu qo'shimcha 'ham' deb tarjima qilinib, holatdagi qa'tiy irodaviylikni bildiradi.

→ 예

내일은 비가 올지라도 가겠습니다.

Ertaga yomg'ir yog'sa ham boraman.

아무리 바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Qanchalik band bo'lsangiz ham, va'dani ustidan chiqish kerak.

누가 부탁할지라도 이 일은 안 하겠습니다.

Kim iltimos qilsada, bu ishni qilmayman.

262 -(으)ㄴ지언정

Aniq asosning unga qarama-qarshi qo'yilgan boshqa asos bilan tanishlik yoki ehtimollikni ko'rsatadi. Fe'l, sifat va ot kesim otlar bilan ishlatiladi. O'zbek tiliga 'mayli, lekin, bolsa ham, lekin' deb tarjima qilinadi.

→ 예

아무리 바쁠지언정 자기가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anchalik band bo'lsang ham, baribir o'z ishingni esdan chiqarish mumkin emas.

그 사람은 실력이 없을지언정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U kishining qobiliyatlari yo'q bo'lishi mumkin, lekin u yomon odam emas.

그가 잘못했을지언정 실망하지 않는다.

U noto'g'ri qilgan bo'lsa-da, umidsizlikka tushmayman.

263 -(으)ㄴ진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agar, demak'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제대로 된 지도가 없을진대 어떻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Yaxshi ilmiy raxbar bo'lmasa qanday yaxshi diplom ishi yozish mumkin?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줄진대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Shuncha ko'p kishilar yordam berayotgan ekan, demak oxirigacha harakat qilish kerak.

가난이 죄가 아닐진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Kambag'allik - gunoh emas, demak undan uyalish kerak emas.

264 -(으)ㄴ 테이다

Fe'l bilan kelgan 터 qaram oti gapda quyidagi so'zlar bilan kelganida 'reja, istak, taxmin, oldindan aytish' va boshqa ma'nolarda keladi. Shuningdek bog'lovchilarga (sabab) qo'shilib, holat va ahvol ma'nosini beradi.

→ 예

나 혼자 돌아갈 테다.

Men yolg'iz ketmoqchiman.

친구가 기다릴 텐데 빨리 가보세요.

Do'stingiz kutayotgandir tez boring.

밖이 추을 테니까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

Ko'cha sovuq bo'lgani uchun qalinroq kiyining.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만나 보시겠어요.

Yaxshi odam bilan tanishtirmoqchiman, uchrashib ko'rasizmi?

이가 아플 텐데 치과병원에 가보세요.

Tishingiz og'riyotgan bo'lsa shifokorga boring.

265 -(으)ㄴ 덕이 없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uchun sabab yo'q, uchun asos yo'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가 이런 말을 할 덕이 없다.

Bunday so'zlarni aytishga unda asos yo'q.

의심할 덕이 없다.

Shubha qilishga sabab yo'q.

협정 체결을 더 이상 연기할 덕이 없다.

Kelishuv imzolanishini cho'zishga sabab yo'q.

266

-(으)ㄴ 테니까

Atributiv sifat -(으)ㄴ ga qaram ot ㅅ, bog'lovchi qo'shimcha -(으)니까 larning qo'shilishdan paydo bo'lgan qo'shimchadir. Kelasi zamonda -(으)ㄴ orqali so'zlovchi I -shaxs bo'lganda rejalashtirilayotganligini bildirsa, III-shaxs taxminni bildiradi.

(1) So'zlovchining taxmin va fikrini bildiradi.

→ 예

너는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걱정하지마.

Sening albatta omading keladi, shuning uchun havotir olma.

죄 없는 너희들을 혼내지는 않을 테니까 이리로 오너라.

Aybing yo'qligi uchun urishmayman shuning uchun bu erga kel.

(2) So'zlovchining biror bir ma'lumotga nisbatan fikrini bildiradi.

→ 예

지금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내일 회사에 나가셔서 천천히 하세요.

Hozir hamma uyga ketganligi sababli ertaga ishxonaga kelib sekin asta bajaring.

봐 봤자 재미없을 테니까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Ko'rgan bilan qiziq bo'lmasligi sababli ko'rmagan yaxshi.

267

-(으)ㄴ 텐데

Hozirgi vaqtda, o'shanda shunday qila olmaganligidan afsuslangan paytda -(으)ㄴ 텐데 qo'shimchasida, o'tgan zamonda shunday qila olmaganligidan afsuslanganda -았/었 을 텐데 qo'shimchasidan foydalaniladi. Qaram ot ㅅ foydalangan ibora faqatgina -(으) ㄴ 텐데, -(으)ㄴ 테니까 qo'shimchalaridan iborat.

→ 예

이상도 있고 포부도 크셨을 텐데요.

Maqsadingiz ham niyatingiz ham katta bo'lganida edi.

진작 경찰에라도 신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Tezda militsiyaga xabar berganingizda bunday ish bo'lmagan bo'lardi.

268

-(으)ㄴ 필요가 있다/없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qilishi kerak/qilishga kerak emas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Ushbu muammo haqida yaxshilab o'ylab ko'rish kerak.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Bugun maktabga borishim shart emas.

그에게 이 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Unga bu gapni aytish kerak.

이것은 나에게 줄 필요가 없다.

Bu narsani menga berishning keragi yo'q.

269

-(으)라고 하다

Buyruq so'zni o'zlashtirilgan ko'rinishi bo'lib so'zlashuv nutqida qisqarlirilgan ko'rinishi -랍니다/-래요 dir.

→ 예

나보고 여기서 기다리래.

Menga 'shu yerda kut' dedi.

엄마가 너한테 빨리 와서 밥 먹으래.

Onang senga 'teztoq kelib ovqat ye' deb aytdilar.

270

-(으)랴 -(으)랴

Bir vaqtda bir necha xil ish harakatilarning amalga oshiril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ham... ham' deb tajima qilinadi.

→ 예

이 사람도 만나랴 저 사람도 만나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

Bu kishi bilan ham uchrash ana u kishi bilan ham uchrash bo'lib, juda bandman.

학교도 다니랴 아르바이트도 하랴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Maktabga ham qatnab, ishga ham borib, ko'z yumishga ham vaqt yo'q darajada bandman.

271

-(으)랴마는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argumon, shunday bo'lsada' de-

gan ma'noni bildiradi.

→ 예

이 시간에 그가 집에 있으라마는 그래도 가 보자.

Bu vaqtda u uyda bo'lishi dargumon, shunday bo'lsada borib ko'ramiz.

영이가 일을 다 끝냈으라마는 그래도 연락해 봐.

Yogni ishini tugatganligi dargumon, shunday bo'lsada telefon qilib ko'r.

그가 완벽하라마는 일단 믿어 봅시다.

Uning mukammalligi dargumon, lekin ishonib ko'ramiz.

272 -(으)려거든

Nisbatan xohish yoki maqsad shartlarini bildiradi. O'zbek tiliga 'agar qilmoqchi bo'lsang (xohlasang), unda' deb tarjima qilinadi.

→ 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거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Yaxshi kompaniyaga ishga kirmoqchi bo'lsangiz, g'ayrat bilan o'qishingiz kerak.

건강하려거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Sog'lom bo'lishni istasangiz, muntazam sport bilan shug'ullaning.

그를 만나려거든 일찍 나가야 됩니다.

U bilan uchrashmoqchi bo'lsangiz vaqtliroq chiqish zarur.

남의 존중을 받으려거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O'zganidan hurmat olmoqchi bo'lsang, boshqalarni hurmat qilishni bilish kerak.

273 -(으)려나 (모르겠다)

Taxmin yoki kutish ifodalanayotganda ishlatiladi. Asosan oddiy nutq uslubi yoki o'z fikrlarini og'zaki ifodalashda ishlatiladi.

→ 예

내일 비가 오려나 모르겠다.

Ertaga yomg'ir yog'armikan, bilmadim.

그가 벌써 집에 와 있으려나?

U allaqachon uyiga kelganmikin?

내일은 덜 힘들려나?

Ertaga kamroq qiyin bo'larmikin?

274 -(으)려나 보다

Qandaydir bir harakat asosi orqali boshqa kishining fikrini taxmin qilib gapirganda ya'ni tabiiy ta'sirni aytganda ishlatiladi.

→ 예

빌리 씨가 회사를 옮기려나 봐요. 경력 증명서를 떼어 가던걸요?

Billi boshqa ishga o'tmoqchiga o'xshaydi. Mehanat daftarchasini olib ketgan-kan?

275 -(으)려니 하다

Aniq bir asosga nisbatan taxminni ifodalaydi. 하다, 싶다 ning o'rniga 생각하다, 여기다 so'zlari ishlatilishi mumkin. O'zbek tilida 'ehtimol-, o'ylashimcha' degan ma'nolarni bildiradi.

→ 예

내가 그것을 못 하려니 생각했지?

Men u narsani qila olmaydi deb o'ylading-a?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가 안 오려니 싶다.

Juda kech bo'lgani uchun kelmaydi deb o'ylayman.

276 -(으)려다가

So'zlovchining fikrini to'ldirib qandaydir bir harakatni qilmoqchi bo'lib bosh natija boshqa natijani kelib chiqishiga yordam bo'lganligini bildirganda ishlatiladi.

→ 예

집에 가려다가 잠깐 친구 집에 들렀어요.

Uyga kelayotib birrovga do'stimning uyiga kirdim.

아이를 달래려다가 그만 울려버리고 말았다.

Bolani ovutaman deb, yig'latib yubordim.

277 -(으)려던 참이다

Qaror qilingan maqsad yoki holatni ro'yobga chiqarishni ifodalaydi. O'zbek tiliga '-moqchi edim, -moqchi bo'lib turgandim' deb tarjima qilinadi.

→ 예

저도 친구 병문안을 갈 참이었습니다.

Men ham do'stimni ko'rishga kasalxonaga bormoqchi bo'lib turgandim.

소식이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Xabarni bilmoqchi bo'lib turgandim.

쉬려고 하던 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어요.

Dam olmoqchi bo'lib turganimda do'stim qo'ng'iroq qilib qoldi.

278 -(으)련마는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ehtimol, lekin', 'bo'lar edi, lekin-' degan ma'noni bildiradi. -(으)련마는 ning qisqartirilgan, ya'ni -(으)련만 shaklda ham ishlatilishi mumkin.

→ 예

한국에 가면 좋았으련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 못했다.

Koreyaga borsam yaxshi bo'lardi-ku, lekin hali qiladigan ishlarim ko'pligi uchun bora olmadim.

모두들 지금 집에 있으련마는 내일 시험 때문에 혼자 도서관에 남아 있다.

Hamma hozir uyda bo'lsa kerak-u, faqat men ertaga bo'ladigan imtihon sababli kutubxonada qoldim.

같이 식사를 하면 좋았으련마는 시간이 없었다.

Birga ovqatlansak yaxshi bo'lardi, lekin vaqtim yo'q edi.

279 -(으)럼 -(으)려무나

Fe'lining buyruq maylida ushbu qo'shimcha oddiy uslubga mansub bo'lib, kattalarning kichiklarga bo'lgan munosabatida ishlatiladi. Gapni tugallayotib, u ruxsat yoki buyruqning yumshoq ko'rinishini ifodalaydi. -럼 turlovchi qo'shimchasi -려무나 shaklining qisqartirilgan shakli hisoblanadi.

→ 예

빨리 가렴.

Tezroq yur.

편지를 좀 쓰렴.

Xat yoz.

배가 고프면 먹으려무나.

Qorning ochsa, yeb ol.

280 -(으)로는 -이/가 그만이다

Ushbu qo'shimcha nimadir haqida gapirilganda aynan o'sha narsa eng yaxshisi ekaniini bildiradi.

명사 + (으)로는 + 명사 + 이/가 그만이다

→ 예

고기 맛으로는 횡성고기 맛이 그만이다.

Go'sht eng mazali deganda Hoengsung go'shtini aytish mumkin.

요리 솜씨로는 김성주 씨 요리 솜씨가 그만이에요.

Eng mahoratli pazanda deganda janob Kim Sungjuni aytish mumkin.

281 -(으)로는 -이/가 제일이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an eng zo'ri'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논으로는 사마르칸트 논이 제일이다.

Nonnlar ichida eng zo'ri Samarqand nonidir.

282 -(으)로 말미암아

Otga qo'shilib, uni davomiy ish harakati yoki holat sabablari safiga qo'yadi. O'zbek tiliga 'binoan,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 예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Ko'p odamlarning yordami bilan katta ishni yaxshi hal qila oldim.

양국의 적극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이 해결되었다.

Ikki mamlakatning faol hamkorligi tufayli barcha kelishmovchiliklar hal bo'ldi.

강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들에게 비상 근무령이 내렸다.

Qo'poruvchilik harakatlari sababli, militsiya xodimlariga ish rejasini kuchaytirish buyurildi.

283 -(으)로 미루어(보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kelib chiqsak, fikriga ko'ra'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장관의 말로 미루어 보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Vazirning so'zlariga ko'ra, chet el investitsiyasini jalb etish - bu eng yaxshi tadbirdir.

사태를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Vaziyatdan kelib chiqib, quyidagi choralarni tuzib chiqdim.

284

-(으)로 보아서는

Ushbu qo'shimcha gapdagi ega vaziyatga qarab taxmin yoki qaror qilgan vaqtda ishlatiladi.

→ 예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G'alati yuz ifodasiga qaraganda nimanidir yashirayotganga o'xshaydi.

당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Ishonch bilan gapirayotganligiga qaraganda bajarishga qurbi yetadiganga o'xshaydi.

기분이 좋은 걸로 보아서는 아직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Kayfiyati yaxshiligiga qaraganda hali o'zi haqidagi yomon mish-mishlarni eshitmaganga o'xshaydi.

285

-(으)로 볼 때

Bosh gapning ma'nosidagi qarorning me'yori yoki asosi bo'lib qandaydir bir vaziyatni taxmin qilish yoki tasdiqlaganda ishlatiladi.

→ 예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차를 사는 건 무리입니다.

Iqtisodiy tomondan qaraganda hozir mashina sotib olish qiyin.

경력으로 볼 때 김지은 씨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Ish malakasi tomonidan qaraganda Kim Ji Inga teng keladigan kishi yo'q.

백화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합니다.

Magazindagi sotish darajasi ko'tarilganligiga qaraganda iste'mol darajasi qayta tiklangani aniq.

286 -(으)로 삼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eb qabul qilmoq, sifatida ko'rmoq, -ga asoslanib'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작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내년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O'tgan yilgi natijalarga asoslanib, kelgusi yil rivojlantirish dasturini ishlab chiqdik.

많은 업적을 높이 평가해 그를 수석 대표로 삼았다.

Ko'p mehnat va xizmatlarini yuqori baxolab, uni delegatsiya boshlig'i etib tayinladik.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Rossiya Koreya yarimorolining tinchligi va havfsizligini tashqi siyosatining birinchi darajali vazifasi deb hisoblaydi.

287 -(으)로 인해(서)

Ushbu qo'shimcha voqeani sababini bildirish uchun ishlatiladi. 인하다 fe'lining -(으)로 인해서, -(으)로 인한 kabilar to'liqsiz tushlangan ko'rinishi hisoblanadi. O'zbek tiliga 'tufayli,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으로 인해(서)

→ 예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Bu safargi yongin sababli inson hayotiga ko'p zarar yetdi.

해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Har yili haydovchilarning e'tiborsizligi oqibatida sodir bo'ladigan avto-halokatlar ko'payib bormoqda.

288 -(으)로 인하여/인한

Ushbu qo'shimcha sabab va natijani birlashtirib asosiy oddiy yoki badiiy uslubda foydalaniladigan iboradir.

→ 예

왕은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서 죽었고, 왕비는 왕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죽었다.
Qirol kasalligi sababli vafot etdi, qirolicha esa qirolni yo'qotish g'amidan vafot etdi.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정서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Kattalarning etiborsizligi tufayli ruhiy nogironlar yuzaga kelmasligi uchun bolalarga g'amxo'rlik ko'rsatish kerak.

289

-(으) □

- (1) Ushbu qo'shimcha so'zlarga qo'shilib ot yasovchi qo'shimcha hisoblanadi. 분명하다, 증명되다, 발견되다 kabi, 알다, 모르다, 기억하다, 느끼다, 주장하다 ma'nolardagi so'zlarda ishlatiladi.

→ 예

성적표를 보여 주지 않는 걸 보니, 이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음이 분명해요.
Baholar daftarini ko'rsatmaganligiga qaraganda bu safar baholari ancha pastligi aniq.
대리점 주인은 내가 동생과 함께 와서 세탁기를 샀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Do'kon egasi men ukam bilan kelib kir yuvish mashinasini olganimizni eslar ekan.

- (2) Guvohlik, ogohlik, telegramma, hukm kabilarda qandaydir harakat yoki ma'lumotni yetkazganda ishlatiladi.

→ 예

기상 악화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었음.
Noqulay havo sababli samalyot uchush vaqti kechiktirildi.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함.
Ayblanuvchiga bir yil qamoq jazosi berilsin.

290

-(으) □ 예/-냐에 따라서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ga bog'liq bo'lmo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Kim gapirganiga qarab natija o'zgaradi.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Qanday qaror qilinganiga qarab kelgusidagi rejalarni tuzaman.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옴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Byudjet ushbu loyihaning ma'qullanishiga qarab tasdiqlanadi.

291 -(으)ㄴ 직하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tuyulmoq, ko'rinmoq'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과일이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Mevalar juda ishtaha ochar ekan.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믿음직해 보인다.
Qanday qarama, u ishonchli odam bo'lib ko'rinmoqda.
그 사람이 갔음직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
U kishi borishi mumkin bo'lgan joylarning hammasiga borib keldim.

292 -(으)며

Bir vaqtda bo'ladigan ikki yo undan ortiq harakat va yoki makonga oid holat aloqasi uchun qo'llaniladi.

→ 예

이 가방은 값도 사며 질도 좋습니다.
Bu sumkani narhi ham arzon sifati ham yaxshi.

293 -(으)면 -는 법이다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ning sodir bo'lishi tabiiyligini bildiradi.

동사/형용사 +(으)면 + 동사/형용사 + 는 법이다

→ 예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고 운수가 있는 법이다.
Hamma ishda yaxshi aloqa va omad bo'lishi kerak.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Umid qancha katta bo'lsa umidsizlik ham shuncha katta bo'ladi.

294 -(으)면서 까지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ga, -gacha, -guncha, -ga qadar, bir nima qadar'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내가 쓰러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Men yiqilgunimcha o'qishim kerakmi?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지.

Ota-onaning roziliklarini olmaguncha turmush qurib bo'lmaydi.

295 -(으)면서 라도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ham, -ki' degan ma'noni bildiradi.

→ 예

욕을 먹으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

Haqoratlansam ham, bu ishni oxiriga yetkazaman.

조금 무리를 하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Ozgina ko'p ishlasangiz ham, maqsadga erishish kerak.

296 -(으)면 얼마나 더 -겠어요?

Ikki yoki undan ortiq narsa buyumni taqqoslab o'sha narsaning ma'nosi unchalik katta bo'lmagan holatlarda ishlatiladi.

→ 예

쌍둥이 형의 키가 크면 얼마나 더 크겠어요? / 도토리 키재기지요.

Egizaklarning akasining bo'yi uzun bo'lsa qancha ham uzun bo'lardi? Deyarli bir xil.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Kichik bola yesa qancha ham yerdi? Shuncha bo'lsa yetarli bo'lar.

297 -(으)면 -(으)ㄴ 수록

Vaziyat oz-ozdan kuchayib borgan sari uning natijasi ham kuchayishini bildiradi. O'zbek tiliga 'qanchalik, shunchalik' deb tarjima qilinadi.

→ 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Boylik ko'p bo'lgan sari havotir ham ko'payadi.

이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Bu muammoni o'ylaganing sari yanada murakkablashadi.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더 그립다.

Kunlar o'tgan sari, yillar o'tgan sari u kishini yanada sog'inyapman.

298 -(으)면 으레

-(으)면 으레 o'zbek tilida 'bir necha, ko'p vaqt davomida' ma'nosini beradi. Qandaydir bir ishni qilish yoki qandaydir vaziyatni butunlay ko'paytirib yuborgan ma'noda aytiladi.

동사/형용사 + (으)면 으레

→ 예

선옥이는 명동에 나가면 으레 영화를 보고 오죠.

Son Ok Myongdongga chiqsa bo'ldi, kino ko'rib keladi.

개는 요즈음엔 방에 들어갔다 하면 으레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어요.

U oxirgi paytlarda xonasiga kirib ketsa bo'ldi, bir necha soatlab o'tiradi.

299 -(으)므로

Bosh gap ergash gapni ergashtirib kelishi yoki uning yuzaga kelishiga sababchiligi, asosligini bildiradi. Yetaklab kelishni bildiradigan -아서/어서 qo'shimchalari ko'proq badiiy uslubga mos.

→ 예

뼈를 꺾는 노력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

Suyakni sindiradigan darajada harakat qilgani uchun unga bugun omad kulib boqdi.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Boshqalarga o'rnak bo'lganligi uchun unga maqto'v yorlig'i va sovg'a beramiz.

300 -(으)시오

So'zlashuv nutqida ko'p ishlatilmaydigan qo'shimcha bo'lsada, ko'rsatma va buyruq so'zlarda ko'p ishlatiladi.

예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Ekin dalasiga kirmang.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Asarga qo'l tekkizmang.

301 -은/는 고사하고

-은/는 말할 것도 없고 ma'nosini beradi. Bosh gapning mazmuniga qaraganda ergash gap mazmuni yanada kuchli yoki yaxshi bo'lmaganlik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haqida gapirmasak, bir chetda qoldirib, u yoqda tursin' deb tarjima qilinadi.

예

그 책은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더니만, 1시간은 고사하고 3시간도 부족하겠다.

U kitobni 1 soatda hammasini o'qiy olaman degani bilan, 1 soat u yoqqa tursin 3 soat ham yetmaydi.

다이어트를 한다더니만 먹는 양을 줄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다.

Parhez qilaman deb iste'mol hajmini kamaytirish u yoqda tursin aksincha odatdagidan ko'proq yeganga o'xshayman.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겠다.

Qiyinchiliklar bilan biznesni boshlagandim lekin foyda olish u yoqda tursin xarajatlarni ham qoplay olmayapman.

새로 이사 간 집에는 나무는 고사하고 꽃 한 송이 심을 땅이 없었다.

Yangi ko'chib borgan uyda daraxt u yoqda tursin hattoki gul ekishga yer yo'q. 주말에 여행 가는 것은 고사하고 회사에 출근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Dam olish kuni sayohatga borish u yoqda tursin ishga chiqmasam yaxshi bo'lardi.

302 -은/는 -대로

Ushbu qo'shimcha 'boshqa narsa bilan birga taqqoslagandek' ma'nosini beradi.

→ 예

영호 씨는 영호 씨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Yong Honi o'ziga yarasha o'z tashvishi bo'lgan bo'lishi kerak.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Rosa ish qilib, mashaqqatni o'ziga yarasha chekdim.

303 -은/는 말할 것도 없고

O'zbek tiliga 'aytmasa ham bo'ladi-' deb tarjima qilinadi.

→ 예

철수는 성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Cholsuning sadoqatini aytmasa ham bo'ladi va ko'ngli ham juda ochiq.

우리 아이는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미술에도 소질이 있어요.

Farzandimda musiqani aytmasa ham bo'ladi tasviriy sa'natga ham qobiliyati bor.

한국에서는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야구도 아주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Koreyada fudbolniku aytmasa ham bo'ladi beysbol ham mashhur sport turiga kiradi.

304 -을/를 막론하고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biror narsani ikkinchisidan farqlamasdan', 'hammasi' degan ma'noni bildiradi.

→ 예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Erkak-ayol, yosh-qariga farqlamay...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Yuqori-quyi martabaga ajratmay...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Sabablarni inobatga olmay, zo'ravonlik maxv etilishi kerak.

305 -을/를 무릅쓰다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ga qaramay, hech narsaga rioya qilmay, pisand qilmay, xilof ravishda' deb tarjima qilinadi.

예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갔다.

Xavfga qaramay oldinga ketaverdim.

추위를 무릅쓰고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Sovuqqa qaramay, tog'ga chiqishga qaror qildim.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Jiddiy qarshiliklarga qaramay, men baribir qarorimni ko'rsatdim.

306

-을/를 비롯해서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an boshlamoq, jumladan' degan ma'noni bildiradi.

예

이 책을 비롯해서 다 읽어야 된다.

Mana bu kitobdan boshlab hammasini o'qish kerak.

애국가가 울리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Davlat madhiyasi yangragach prezidentdan boshlab barcha o'rnidan turdi.

우리 제품은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립니다.

Bizning mahsulot Koreyadan boshlab janubi-sharqiy Osiyo mamlakatlarida ham yaxshi sotiladi.

307

-을/를 위하여/위해(서)/위한

-을/를 위하여 va -을/를 위해(서) mustaqil o'zaro o'rindosh hisoblanadi. -을 위한 otlashgan so'z turkumlari, o'zidan keyin keluvchi otlarni aniqlab, aniqlovchi shakl hisoblanadi. O'zaro o'rindosh uchun (kimdir/nimadir) otlarni aniqlailinadi.

예

친구를 위하여 못할 게 없어요.

Do'stim uchun ilojisiz narsani o'zi yo'q.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Biz vatanimiz uchun sidqi dildan xizmat qilaylik.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Sizlar nima uchun yashayapsiz?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

O'zi uchun yashasa baxtli bo'lolmaydi.

308

-을/를 통해(서)

통하다 fe'lining -을/를 통한, -을/를 통해서, -을/를 통하여 kabi to'liqsiz tuslanagan ko'rinishidir.

(1) 'biror narsani vosita qilib' ma'nosini bildiradi.

→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Parlament a'zolari xalq saylovi orqali saylanadi.

이것이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경제 원리의 예입니다.

Bu sizlar darsliklar orqali o'qigan iqtisodiy tamoyilga bir misoldir.

(2) 'qandaydir bir tajriba borligi' ma'nosini beradi.

→ 예

속담이란 옛날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이다.

Maqol qadimgi kishilarning uzoq tajribasi orqali yiqilgan hayotiy bilimdir.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법이다

Har kim ham qilgan xatolari orqali o'rganadi.

309

-이/가 다 뭐예요?

(1) 'Biror narsaga so'zsiz bo'ysina olmaslik' ma'nosini beradi.

→ 예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은 받으셨어요? / 초콜릿이 다 뭐예요? 사탕 한 개도 구경 못 했는걸요.

Sevishganlar kuniga shokolad oldingizmi? / Shokolad nimasi? Xatto bitta konfet ham olmadim.

여행을 자주 다니시겠네요. / 여행이 다 뭐예요? 잠 잘 시간도 없는데요.

Sayohatga ko'p chiqib turasiz shekilli. / Sayohat nimasi? Uxlashgayam vaqt yo'qku.

(2) Boshqa bir muammo bo'lib, o'sha narsa haqida gapirish kerak ham bo'lmay qolgan ma'noda gapiriladi.

→ 예

예습이 다 뭐예요? 숙제도 다 못했는데요.

Tayyorgarlik nimasi? Uy vazifasini ham qilmabdi-ku.

일도 아직 안 끝났는데 휴가가 다 뭐예요?
Ish hali tugamadi-ku ta'tili bu nimasi?

310 -(이)나 -(이)나 할 것 없이

Maqsad aniq tanlangan bo'lmasdan boshqalarga o'xshash asosiylikni aks etganligi bildiradi.

명사 + (이)나 + 명사 + (이)나 할 것 없이

→ 예

너나 나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Sen han men ham bir xil qiynalamiz.

요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성형 수술이 대 인기이다.

Hozirda ayolmi, erkakmi yuzini plastik jarrohlik qildirish juda rusm bo'lgan.

311 -(이)나마

Bu yordamchi qo'shimcha bor asoslarga ichki qarshilik yoki norozilik bilan majbur-iy rozilik berishni anglatadi. Gapda ega va to'ldiruvchi bilan quyidagi qo'shimchalar - (으)로, -에, -에서, -에게 bog'lovchi -에서 va -에게 qo'shimchalari bilan birgalikda qo'llanilishi mumkin. O'zbek tiliga 'hech bo'lmasa' deb tarjima qilinadi.

→ 예

먼저 전화로나마 미팅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Avval telefon orqali bo'lsa ham majlis natijasini e'lon qilish kerak.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방해는 말아야지.

Yordam berolmaganingga yarasha, hech bo'lmasa halaqit berma.

312 -(이)든지

So'zlovchi aniq tanlamagan, hali o'ylab ko'rmagan holat haqida gapiriladi. Ba'zan -(이)든지 -(이)든지 tuzilmasi hamda -(이)든 shakli ham qo'llaniladi. O'zbek tiliga 'nima bo'sa ham', deya tarjima qilinadi.

→ 예

책이면 무엇이든지 읽겠다.

Kitob bo'lsa har qandayini ham o'qiyveraman.

밥이든지 빵이든지 무엇이랴도 먹어야 힘이 나지요.

Ovqatmi, nonmi nima bo'lsa ham yesang kuch to'planadi.

모르는 것이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Bilmagan narsangiz bo'lsa hammasini so'rayvering.

313 -(이)라고는

O'zi qo'shilgan otga urg'u berib keladi va odatda uning ketidan inkor ma'noli gap keladi. Uning qisqa formasi-(이)라곤 tez-tez qo'llaniladi.

→ 예

내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Men qilib bera oladigan hech nima yo'q.

옷이라고는 고작 이제 전부야.

Atigi mana shu kiyim.

314 -(이)라도

Ahamiyatsiz tanlash qaysidir ma'noda shartlilik yoki yaroqsizlik, umuman, tanlashning iloji bo'lmagan yuklama ko'rsatkichi, ot so'z turkumi bilan ifodalanadi. Boshqa yuklamalar bilan ham ifodalanishi mumkin: -에게라도, -에라도, -에서라도.

→ 예

심심하시면 책이라도 읽으세요.

Zerikayotgan bo'lsangiz hech bo'lmasa kitob o'qing.

점심식사를 못 하셨죠? 그러면 과일이라도 드세요.

Tushlik qilmadingiz-a? Unda hech bo'lmasa meva yeng.

아이가 계속 우니까 과자라도 주세요.

Bola tinmay yig'layotganni uchun hech bo'lmasa pecheniye bering.

315 -(이)라야

Bajarishi shart bo'lganlik ma'nosida gapirganda ishlatiladigan qo'shimcha hisoblanadi.

→ 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저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Koreys tilini bilgan odamgina bizning korxonamizda ishlay oladi.
눈썰매장은 겨울이라야 문을 여나 봐요.
Konki uchish joyi qishdagina ochiladi.

316 -(이)란

Bu qo'shimcha biror tushunchani asosiysini ajratib olishda qo'llaniladi. U ko'proq 'bu' formasida tarjima qilinadi. O'zbek tiliga 'bu, deb atalgan, deb nomlangan, degani, deyiladi' deb tarjima qilinadi.

→ 예

친구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다.
Do'st degani menga qiyin daqiqalarda yordam beradigan odamdir.
진리란 무엇입니까?
Haqiqat nima o'zi?
인생이란 무엇인가?
Hayot nima o'zi?

317 -(이)야

Ushbu qo'shimcha chegaralangan taqqoslash mazmuniga ega bo'lib, 'albatta, shubhasiz' yoki 'tabiyki, shunday' ma'nolarini ta'kidlaydi. O'zbek tiliga 'nihoyat, faqat, -gina' deb tarjima qilinadi.

→ 예

그가 떠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Uning jo'nab ketganiga bir oy o'tib xabar keldi.
꼭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겠습니다.
Albatta imtihondan o'taman.

318 -(이)야말로

Taxmin ma'nosida yozilib 'oxir oqibat' ma'nosini bildiradi. Kirish so'zda -은/는 qo'shimchasi yanada taxminni kuchaytirib beradi.

명사 + (이)야말로

→ 예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된다.

O'zi o'qib oyoqqa turish haqiqiy bilim bo'ladi.

319

-(이)요, -이다

Ushbu qo'shimcha otdan kesim yasovchi qo'shimcha hisoblanadi.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dir' deb tarjima qilinadi.

→ 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Yoshlarga kerakli bo'lgan narsa kelajakka bo'lgan umid, kelajakka bo'lgan nazardir.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현명함입니다.

Haqiqatni haqiqatdek ko'rish odamzodning ongi, aqlidir.

320

-(이)자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ham, ham' degan ma'noni bildiradi.

→ 예

그는 나의 친구이자 사업 협력자이다.

U mening ham do'stim, ham biznes hamkorim hisoblanadi.

이곳은 내 집이자 사무소이다.

Bu mening ham uyim, ham ishxonam.

그는 작곡가이자 음악가이다.

U ham shoir, ham bastakor.

321

-자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shi bilan' deb tarjima qilinadi.

→ 예

사장의 연설이 끝나자 회사 홍보가 시작되었다.

Direktorning ma'ruzasi tugashi bilan korxona e'loni boshlandi.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Qarg'a uchishi bilan nok tushadi.

322 -자고 하다

Ushbu qo'shimcha birgalikda ma'nosini bildirib, ko'chirma gapni hosil qiladi. So'zlashuv nutqida qisqartirilib -잡니다/재요 ko'rinishida yoziladi.

동사 + 자고 하다

→ 예

커피나 한 잔 하재요.

'Bir piyola kofemi ichaylik'-dedi.

김 선생님이 언제 다 같이 한번 보재요.

O'qituvchi Kim 'biror kun hammamiz birga ko'rishaylik'-dedi.

323 -자니

Rejalashtirilayotgan ish harakatiga nisbatan qarshilikni bildiradi. O'zbek tiliga '-moqchi (qilmoqchi), lekin' deb tarjima qilinadi.

→ 예

일을 하자니 피곤하고 잠을 자자니 잠이 안 와.

Ishlamoqchi edim charchadim, uxlamogchi edim - uyqu yo'q.

먹자니 먹을 것이 없어요.

Yemoqchi edim, yeydigan narsa yoq.

324 -자마자

Asosiy faoliyat ikkinchi darajali gapdan keyingina sodir bo'lishini ko'rsatadi. O'zbek tiliga 'bilanoq, darxol, zudlik bilan, -gina' deb tarjima qilinadi.

→ 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닷가에 갔습니다.

Koreyaga yetib borishimiz bilanoq dengiz bo'yiga bordik.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Uni ko'rishim bilanoq, sevib qoldim.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왔습니다.

Xabarni eshitishim bilanoq, keldim.

325 -자면

Ushbu qo'shimcha o'zbek tiliga 'ay desam, -sam' deb tarjima qilinadi.

→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Davlat taraqqiyoti uchun kadrlar tarbiyalay desam ta'limga ko'p investitsiya ajratish kerak.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도 막상 설명을 하자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niq bilgan haqiqatni ham to'liq tushuntiray desam gapda tutulib qolyapman.

326 -잖아요

So'zlovchi so'zini tinglovchiga aytayotib tog'riligini tasdiqlagan ma'noda aytiladi. -기 때문이다 orqali sababni aytganda ibora hisoblanib, qarama-qarshi fikrga ham bilib javob bergan vaqtda ishlatiladi.

동사/형용사 + 잡아요

→ 예

제가 어제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Men kecha shunaqa dedim-ku.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Bu kitobni bolalar o'qishi juda qiyin-ku.

327 -적

'Qandaydir masofa yoki uslubni o'z ichiga oladi' ma'nosida keladi. Bu so'z ieroglif so'z bo'lib otdan keyin qo'shilib undan keyin esa -이다 yoki -으로 qo'shimchalari qo'shiladi.

명사 + 적

→ 예

과학적 / 생산적 / 한국적

ilmiy / ishlab chiqaruvchilik / koreyscha

시골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Qishloq ko'rinishini haqiqiy tasvirlagan.

그 범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U jinoyat boshidan rejalashtirilgan edi.

328 -조차

-조차 qo'shimchasi biror bir asos bilan birlashib mos bo'lmagan va kutilmagan asosni ko'rsatib 'hatto(ki), shunday bo'lsa ham' deb tarjima qilinadi. Buyruq gap va undov gapda bu shakl ishlatilmaydi.

→ 예

어린이조차 다 아는 사실이에요.
Hatto yosh bola biladigan harsa.
당신조차 나를 못 믿겠습니까?
Hatto sen ham menga ishonmaysanmi?
그는 자기 이름조차 못 쓴다.
U hatto o'z ismini yoza olmaydi.

329 -중

Turli narsalar orasidan biror nimani tanlash ma'nosini ifodalaydi. 'Orasida, o'rtasidan'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중

→ 예

꽃 중에서 장미가 제일 예쁩니다.
Gullar orasida eng chiroylisi atirgul.
운동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테니스입니다.
Sport turi orasida eng qizig'i tennis.

330 -지

O'zaro boshqarilgan harakatni bajarganda ishlatiladi. Boshqariladigan haqiqat -지만, -(으)나 bilan bir xil qo'shimcha bo'lib ham ishlatiladi. Lekin -지 ishlatilish joyi boshqacha.

동사/형용사 + 지

→ 예

지금 호적에 올라 있는 바가 중요하지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Hozir ro'yxat daftariga yozilgan ma'lumot muhim buni tekshirib nima qilasiz?
농사짓느라고 1년 내내 고생만 했지 추수를 해도 남는 것은 없었던다.
Dehqonchilik bilan shug'ullanaman deb 1 yil davomida faqatgina mashaqqat chekdi, hosilni yig'ib olsa ham, hech nima orttirmadi.

331 -지 그래요?

Suhbatdoshning xohishini bajarishiga undash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buyruq ma'no ham kelib chiqishi mumkin.

동사 + 지 그래요?

→ 예

배고프면 더 시키지 그래요?

Qorningiz ochgan bo'lsa yana buyuring.

시간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같이 당구나 한 게임 하지 그래요?

Vaqtiniz bo'lsa bugun kechqurun birga bir bilyard o'ynaymizmi?

332 -지요

- (1) So'zlovchi, tinglovchi ham biladigan biror faktni tasdiqlash uchun ishlatiladi. Hurmat shaklida -지요? bo'ladi, u ba'zan -죠 tarzida qisqarishi mumkin.

→ 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Siz menga yordam bera olasizmi?

당신은 안바르라는 학생이지요?

Sen Anvar degan talabasan-a?

- (2) Bu shakl bilan kelgan gaplar so'roq bo'lmasligi ham mumkin.

→ 예

늦었는데 빨리 가시지요.

Kechikdingiz tezroq boring.

333 -짜리

Bu qo'shimcha sanoq so'zlarga qo'shilib, 'qancha, qanday narxda, qanday hisobda, -lik, -li, -dagi' deb tarjima qilinadi.

→ 예

100숨짜리 우표를 두 장 주세요.

100 sumlik markangizdan 2dona bering.

이 공책은 50장짜리입니다.

Bu daftar 50 betlik.

이 유치원은 다섯 살짜리 아이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Bu bog'chaga besh yoshli bolalargina qabul qilinadi.

이 사과는 한 개에 100숨짜리입니다.

Bu olma 100 so'mga 1 dona keladi.

100숨짜리 만년필을 샀어요.

100 so'mlik ruchka sotib oldim.

334

-쯤

- (1) -쯤 sanoq so'zlar bilan birlashib, shu darajada, taxminan ma'nosini ifodalaydi. 한, 약 so'zlari bilan birga kelganda taxmin ma'nosini yanada kuchaytirib ifodalaydi.

예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Hozir soat taxminan necha bo'ldi?

지하철까지 걸어서 몇 분쯤 걸리나요?

Metrogacha piyoda taxminan necha minut kerak?

한 15분쯤 걸려요.

Taxminan 15 minut ketadi.

내일 5시쯤 만나기로 했습니다.

Ertaga soat 5lar atrofida uchrashadigan bo'ldik.

- (2) Bu holatda otlarga qo'shilib kelgan -쯤 qo'shimchasi o'zbek tiliga '-lar' deya tarjima qilinib, taxmin ma'nosini turli darajada ifodalashga xizmat qiladi.

예

하루에 3킬로미터쯤은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Bir kunda 3kilometrcha piyoda yursa ham qiyin emas.

*Bu holatda -쯤 qo'shimchasidan -은 yordamchi qo'shimchasi qo'shilib keladi.

하루쯤은 굶어도 죽지 않아.

Bir kunlar och yursang ham o'lmayсан.

*Ba'zida taxmin ma'nosi -쯤 formasi qo'llanilgan so'zda emas, o'sha gapda bo'ladi.

그 사람쯤은 문제없어요.

Bu odamda muammo yo'q bo'lsa kerak.

335

-쯤 해서

Ushbu qo'shimcha joy haqida gapirilganda ishlatilsada vaqt ma'nosi kuchliroq bo'ladi. Qandaydir vaqt yoki soatlarda deb tarjima qilinadi.

명사 + 쯤 해서

→ 예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해서, 학교 뒷산에서 내려왔다.

Dars deyarli tugay deganda maktabning orqasidagi tog'dan tushib keldi.

336

-처럼

Ushbu qo'shimcha ikki narsani taqqoslaganda o'xshashlikni ko'rsatadi, va 'kabi, singari, o'xshash' degan ma'nolarni beradi.

→ 예

이 물건은 쇠처럼 무거워요.

Bu buyum temirga o'xshab og'ir.

나처럼 따라해 보세요.

Menga o'xshab takrorlang.

337

-치고/치고는

Ushbu qo'simchalar 'nimadandir mamnun bo'lish' degan ma'nolarni beradi. Qandaydir kategoriya o'rtasida narsaga nisbatan fikr bildirganda ishlatiladi. Ergash gapdagi ma'no bir necha marotaba inkor ko'rinishida kelishi odatiy hol hisoblanadi. O'ylaganiga qaraganda boshqacha chiqqanligini ifodalaganda ishlatiladi.

명사 + 치고/치고는

→ 예

그는 외국인치고는 한국말을 잘 하는 편이야.

U chet ellik sifatida koreys tilini yaxshi biladi.

338

-커녕

-은/는 quyidagi yordamchi yuklamalar otdan keyin ishlatiladi. Shuningdek harakat nomidan keyin -기는 keltiriladi. Bu yuklama so'zlovchining beradigan ma'lumot holatini ifodalaydi. O'zbek tiliga -커녕 'nafaqat, u yoqda tursin' deb tarjima qilinadi.

→ 예

한국말은커녕 러시아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U nafaqat koreys tilini, hatto ruschani ham yomon gapiradi.

이리나가 결혼은커녕 연애 연애할 생각도 안 합니다.

Irina nafataq turmushga chiqish, hatto sevgi hagida ham o'ylamaydi.

저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없습니다.

Menda mashina u yoqda tursin, hatto veloseped ham yo'q.

339 통

Ushbu qo'shimcha biror bir ish harakatini umuman qila olmasligini ifodalaydi. O'zbek tiliga 'umuman' deb tarjima qilinadi.

예

가게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 봤지만 사려고 하는 물건을 통 찾을 수가 없었다. Magazinga ham bordim, bozorga ham borib ko'rdim, lekin sotib olmoqchi bo'lgan narsani umuman topa olmadim.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U kishi nimani o'ylayotganligini umuman bilib bo'lmaydi.

양복 좀 새로 사 입으라고 그래도 통 말을 듣지 않네요.

Yangi kostyum shim olib kiy desam ham umuman gapga quloq solmaydi.

340 -투성이

Ushbu qo'shimcha faqatgina otga qo'shilib yoziladi. Unchalik yaxshi bo'lmagan narsalarni u yer bu yerda ko'p yig'ilib turganlik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uyasi' deb tarjima qilinadi.

예

밖에서 놀다 들어온 아이의 옷이 먼지투성이였어요.

Ko'chada o'ynab qaytgan bolaning kiyimi changlar uyasi bo'lgan edi.

어릴 때 얼마나 장난이 심했던지 온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성처투성이였죠.

Bolaligimda shunday sho'x edimki, kaltak yemagan kunim yo'q edi. Jarohatlar uyi edi.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투성이입니다.

Onamning yuzlarida ajinlar ko'paydi.

341 하도 -아/어서

Vaziyat juda kuchli bo'lganda ishlatiladi. Talab yoki taklifning darajasi kuchli bo'lgan vaqtdagi o'rtacha tuyg'u o'zgaradi. 너무 -(으)면,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 kabi qo'shimchalari bilan bir xil darajaga ega.

하도 + 동사/형용사 + 아/어서

예

나는 하도 기가 막혀 말을 잃었다.

Men juda to'lib ketganimdan gapni unitdim.

그 사람 얘기가 하도 이상해서 믿을 수 없었다.

U kishining gapi judayam g'alati bo'lgani uchun ishona olmadim.





III. 조사

Qo'shimchalar

조사 Qo'shimchalar

I 이/가/께서

- (1) Bosh kelishik qo'shimchasi otga qo'shilib ega vazifasida keladi.

→ 예

눈이 내린다.
Qor yog'ayapti.
날씨가 추워요.
Havo sovuq.

- (2) -께서 bosh kelishik qo'shimchasining hurmat shakli bo'lib, egaga nisbatan hurmatni ifodalaydi. Egaga -께서 qo'shilganda kesim -(으)시 ehtirom shaklini oladi.

→ 예

선생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십니다.
O'qituvchimiz hozir xat yozayaptilar.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십니다.
Bobom ovqatlanayaptilar.

- (3) Gap tashkilot, birlashma yoki jamoat haqida ketganida, bosh kelishik qo'shimchasi chiqish kelishigi (-에서) shaklida keladi.

→ 예

우리 학교에서 승리했습니다.
Bizning maktab g'olib chiqdi.
정부에서 물가를 인상했습니다.
Hukumat narxni ko'tardi.

- (4) Shaxsga nisbatan sanoq sonlardan keyin bosh kelishik qo'shimchasi bilan -서 shakli ham keladi.

→ 예

너희 둘이서 뭐하니?
Sen ikkoving nima qilayapsan?
우리 둘이서 힘을 합해봅시다.
Biz ikkimiz kuchimizni birlashtirib ko'raylik.

- (5) Ba'zi gaplarda bosh kelishik qo'shimchasini olgan ega, gapda ikki marotabadan ortiq qo'llanilishi mumkin. Bunday holatda koreys tilidagi gaplardagi I -ot ega, II -si esa ot-kesim tarkibi bo'lib keladi. O'zbek tiliga tarjima qilinganda I -si aniqlovchi, II -si ega tarzida tarjima qilinadi.

→ 예

아파트가 난방이 잘 된다.

Xonadonning isitish tarmog'i yaxshi ishlayapti.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많으시겠니?

Bobomning qanaqasiga puli ko'p bo'lishi mumkin?

2

을/를

- (1) Tushum kelishigi otga qo'shilib vositasiz to'ldiruvchi vazifasini bajaradi. Tushum kelishigida kelgan so'z fe'l anglatgan ish harakatini bevosita o'ziga qabul qilishini ifodalaydi. Agar ot negizi unli bilan tugagan bo'lsa 을/를 qo'llaniladi. Ba'zan tushum kelishigi -ㄹ tarzida qisqartirib yoziladi.

→ 예

그 분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U kishi rasmni yaxshi chizadi.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Men seni sevaman.

- (2) Ba'zan boshqa yuklamalar yoki inkor qo'shimcha shakllari birlashib kuchaytiruvchi ma'noni ifodalaydi, ba'zan -을/를 qisqargan shaklda -ㄹ kuzatiladi.

→ 예

몇 시쯤 집에를 가세요?

Soat nechalarda uyga qaytasiz?

전 지방에 자주 출장 갑니다.

Men viloyatga tez-tez xizmat safariga boraman.

날 따라오세요.

Meni orqamdan keling.

3 은/는

Bu qo'shimcha suhbat mavzusini ajratishda qarama-qarshi ifoda kabi qo'llaniladi. Ot bilan qo'llanganda ega va to'ldiruvchi vazifasini bajarib, bosh va tushum kelishigi qo'shimchalari -은/는 ga o'zgaradi.

→ 예

저분은 화가입니다.

Anavi kishi rassom.

마빠서 일찍은 못 가요.

Band bo'lganim uchun ertaroq bora olmayman.

4 예/에서

- (1) -에 payt kelishigida vaqt ma'nosidan tashqari o'rin va joy ma'nosi ham bor. Bu qo'shimcha ba'zan -에서 qo'shimchasi bilan sinonim bo'ladi.

→ 예

제가 산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Men sotib olgan kitobim qayerdaligini bilmaysizmi?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Maktab oldida uchrashamiz.

우리는 주말에 학교 앞에서 몇 시에 만날 거예요?

Biz dam olish kuni maktab oldida soat nechada uchrashamiz?

O'rin-payt kelishigi bo'lgan -에서 qo'shimchasi xuddi shu shakldagi chiqish kelishigidagi gapning ma'nosiga ko'ra farqlanadi. 교육원 근처에서 삽니다 gapini 'Men ko-reys ta'lim markazi yaqinidan yashayman' deb tarjima qilinmaydi. Bu qoidadan tashqari holat ko'rinishi hisoblanadi.

- (2) -에서 qo'shimchasini olgan so'z shaxs va narsa-buyum chiqish o'rni, harakat va holatining boshlanish nuqtasi kabi ma'nolarni ifodalay.

→ 예

시장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Bozordan mevalar sotib oldim.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Men Koreyadan keldim.

(3) -에 qo'shimchasi jo'nalish kelishigidan tashqari quyidagi hollarda qo'llaniladi.

- ① Kengaygan harakatdagi ob'ektning ish harakati yo'nalishi, vaqtini ifodalash uchun qo'llanadi. Ob'ektning o'zi suhbat mavzusi bo'lganda -에 관하여, -에 대하여, birikmalari qo'llaniladi va ortiqroq, ko'proq anqlik ma'nolarini beradi.

나는 학교에 갑니다.

Men mektabga borayapman. (o'rin)

새벽에 일어났다.

Erta tongda turdim. (vaqt)

너의 의견에 찬성한다.

Sening fikringga qo'shilaman.

전통 악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Milliy musiqa asboblari haqida gapirib bering.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요.

Bu odam haqida yangilikni eshitdim.

- ② Ushbu qo'shimcha harakat sababi yoki manbasini ko'rsatadi.

빗소리에 잠을 잤습니다.

Yomg'ir tovushidan uyg'onib ketdim.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Shamoldan daraxt sinib ketdi.

그만한 일에 화를 내지 마세요.

Arzimaydigan ishga jahl qilmang.

- ③ Ushbu qo'shimcha usul yoki vositani ko'rsatadi. -에 의한 tuzilmasi bilan qo'llanganda yanada aniqroq ma'noni beradi.

당근을 물에 씻으세요.

Sabzini suvda yuving (suv bilan).

불에 의한 사고는 정말 끔찍합니다.

Yong'in balosi rostdan dahshatli.

사랑에 의한 충고는 값진 것입니다.

Sevgi bilan berilgan maslahat qimmat bo'ladi.

- ④ Baholash mezoni.

과일을 얼마에 사셨어요?

Mevani qanchaga oldingiz?

계절에 따라 날씨가 바뀐다.

Faslga qarab tabiat o'zgaradi.

이 약은 내 건강에 아주 필요해요.

Bu dori sog'lig'im uchun juda zarur.

- (4) -에서, -에 qo'shimchalari sinonim bo'lib ularning har ikkisi ham o'rinni bildiradi. Biroq ularning qo'llanishi turlicha bo'lib, ular bir-birini o'rniga almashib kela olmaydi. Kesim talab qilgan ma'noga ko'ra ot -에 yoki -에서 shaklidan birini oladi. Quyida ularni qo'llanish usuli keltirilgan:

→ 예

시장에 갑니다.

Bozorga borayapman. (Yo'nalish)

시장에서 야채를 샅습니다.

Bozordan sabzavotlar sotib oldim. (harakat o'rni)

운동장에 갑니다.

O'yin maydonchasiga borayapman.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Maydonchada futbol o'ynaymiz.

어제 극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Kecha teatrga bordik va u yerda qiziqarli spektakl tomosha qildik.

5

와/과, 하고, 랑

Bog'lovchi qo'shimchasi -와/과 gapda ikkita so'zni bog'laydi va o'zbek tiliga 'va' deb tarjima qilinadi. -와 qo'shimchasi so'zning oxiri unli harf bilan tugasa, -과 esa undosh harf bilan tugaganda ishlatiladi. -하고, -(이)랑 bular -와/과 ga o'xshaydi, lekin faqat og'zaki nutqda ko'p ishlatiladi.

→ 예

나와 너

Men va sen

책과 공책

Kitob va daftar

6

도

-도 qo'shimchasi birini boshqasiga o'xshashligini bildiradi yoki bog'lovchilik ma'nosiga ega bo'lishi mumkin.

예

저도 학생입니다.

Men ham talabaman.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

Shamol ham esayapti yomg'ir ham yog'ayapti.

7

으로/로

- (1) -으로 chiqish kelishigi asosiy ma'nosi biror bir harakatning vositasi yoki usulini ko'rsatadi. Ot unli bilan tugagan bo'lsa -로, 르 dan boshqa undosh bilan tugasa -으로 qo'shiladi. 르 bilan tugagan otlardan keyin -로 yoziladi.

예

대학교에 지하철로 갑니다.

Universitetga metroda boraman.

사진으로 설명합니다.

Rasm orqali tushuntiraman.

산에는 돌로 만드는 집이 많다.

Tog'da toshdan yasalgan uylar ko'p.

- (2) -(으)로(서) qo'shimchasi otga qo'shilib, kishining mavqei va maxorati, malakasi-ni ifodalaydi.

예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Ona bolalarini ajoyib shaxs qilib tarbiyaladi.

그 분은 의사로 병원에서 일합니다.

U shifoxonoda shifokor bo'lib ishlaydi.

- (3) -(으)로 turli ma'nolarni beruvchi qo'shimcha kelishik sifatida ham ishlatiladi.

- ① Qandaydir harakatning so'ngi qismini (yo'nalishini) ko'rsatadi.

어디로 가세요?

Qayerga borayapsiz?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어요.

Suv sovuqdan muzga aylandi.

- ② -(으)로 Biror bir ish harakati va hodisaning asosini yoki sababini ifodalash uchun qo'llaniladi.

무슨 일로 오셨어요.

Qanday ish bilan keldingiz?

회사 일로 한국에 왔어요.

Firma ishi bilan Koreyaga bordim.

8 의

Qaratqich kelishigi ot so'z turkumlariga qo'shilib ushbu ot, odatda boshqa bir so'zni o'ziga qaratib keladi va 'qaratuvchi' deb ataladi qaratilgan so'z 'qaralmish' deyiladi, gapda aniqllovchi vazifasida keladi. Qaratqich kelishigini olgan so'z kimning? nimaning? so'roqlariga javob bo'ladi. Koreys tilida atoqli qo'shma ot turiga kelishik digan otlarda qaratqich kelishigi belgisiz shaklida kelishi mumkin.

예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Bu mening sumkam.

*Qaratqich kelishigini olgan olmoshlar o'zgarishi mumkin.

나의 = 내 men = mening,

너의 = 네 sen = sening.

*Belgisiz qaratqich otlar gapda birdan ortiq bo'lib uyushib kelganida -ning afiksini olishi ham olmasligi ham mumkin. Turdosh otlar, olmoshdan iborat bo'lgan so'zlar xususiy xoslikni ifodalaydigan bo'lsa qaratqich kelishigi belgisiz qo'llanadi.

예

아버지께 안부 전해 주세요.

Otamga salom aytib qo'ying.

9

에게/께/한테

- (1) Odam va hayvonga nisbatan -에게 va -한테 ishlatiladi. Qolgan barcha holatlarda -에 ishlatiladi.

→ 예

나는 친구에게 결혼 선물을 보냈어요.
Men do'stinga to'y sovg'asini yubordim.
사랑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Sevgilimga hat yozdim.

- (2) -께 qo'shimchasi -한테 va -에게 nisbatan hurmat ma'nosi kuchli shu sababli ham bu ko'rinishni o'zidan kattalarga nisbatan gapirganda qo'llanilinadi.

→ 예

선생님께 안부를 전해 주세요.
O'qituvchimizga salom aytib qo'ying.
시아버지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Qaynotamga ahvolni tushuntirib berdim.

- (3) -에게(서), -한테(서) kelishik qo'shimchalari otga qo'shilib jonli narsalarga nisbatan chiqish o'rni va manbaini bildiradi.

→ 예

그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Bu xabari kimdan eshitding?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O'qituvchidan koreys tilini o'rgandim.
개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요.
Undan yomon hid kelayapti.

10 만

Ushbu qo'shimcha aynan mana shu ob'ektni tanlash ma'nosini kuchaytiradi va cheklangan farqni beradi. Otdan keyin keluvchi -만 qo'shimchasi 1-o'rinda ega va to'ldiruvchi bilan qo'shilib keladi. Shu tufayli deyarli barcha bosh va tushum kelishiklari tushib qoladi.

→ 예

듣기만 해서는 알 수 없다.
Faqat eshitish bilan bilib bo'lmaydi.
빵으로만 살 수 없다.
Faqat non bilan yashab bo'lmaydi.

그 편지를 저에게만 보여 주세요.

Bu xatni mengagina ko'rsating.

11 이나/나

Ushbu qo'shimcha tanlash ma'nosini beradi. Matnga qarab katta bo'lmagan farq va ma'no beradi.

- (1) Ikki ot orasida qo'llanilib ikkisidan birini tanlashni ifodalaydi va bilinganlik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yo, yoki' deb tarjima qilinadi.

→ 예

커피나 홍차를 주십시오.

Kofe yoki qorachoy bering. iltimos.

일본이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

Yaponiyaga yoki Koreyaga borishni xohlayman.

- (2) Agar -(이)나 qo'shimchasi otga qo'shilsa undan keyin keladigan fe'l asosiy farqni olib, biror bir narsa-buyumni chegaralangan tanlovni ifodalaydi.

→ 예

주말인데 극장에나 갑시다.

Bugun yakshanba-ku, teatrga ketdik.

놀지만 말고 책이나 읽으세요.

Faqat o'ynamasdan kitobni o'qing.

- (3) -(이)나 qo'shimchasi so'roq gaplarga qo'shilganda ot yoki otlashgan so'zlarga qo'shilib, asosan, hisobni, bildiradi. O'zbek tiliga '-lar' deb tarjima qilinadi.

→ 예

손님이 몇 명이나 오세요?

Mehmonga necha kishilar keladi?

그 아기가 몇 살이나 되었어요?

Bu bola necha yoshlarga to'ldi?

- (4) -(이)나 qo'shimchasi umumiy sanoqni ifodalaydi. Kutilgandan ortiq sondan ajalanishni ifodalaydi. O'zbek tiliga 'naqd' deya tarjima qilish mumkin.

→ 예

저는 어제 열 시간이나 잤습니다.

Men kecha naqd o'n soat uxlabman.

하루에 커피를 일곱 잔이나 마십니까?
 Bir kunda naqd yetti chashka kofe ichasizmi?

- (5) -(이)나 qo'shimchasi so'roq olmoshlari bilan qo'llanganda aniqlanmagan nimanidir tanlashni ko'rsatadi va o'zbek tiliga o'zi qo'shilgan olmoshga qarab 'har kim, har nima, har qanday, har qachon, har qancha' deb tarjima qilinadi.

→ 예

누구나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Har kim u kutubxonada o'qishi mumkin.
 그 사람은 무엇이나 할 줄 알아요.
 U odam har narsani qila oladi.



IV. 수사
V. 부사
VI. 접속사

Son

Ravishi

Bog'lovchilar



수사 son

I 기수사 Miqdor son

Koreys tilida son ikki turga bo'linadi: Koreyscha son, Xitoycha son

(1) Koreyscha son

1 하나	6 여섯	20 스물	70 일흔
2 둘	7 일곱	30 서른	80 여든
3 셋	8 여덟	40 마흔	90 아흔
4 넷	9 아홉	50 쉰	99 아흔 아홉
5 다섯	10 열	60 예순	100 백

Ushbu miqdor soni yoshni, soatni aytganda 100 gacha koreys sonidan, 100 dan ortiq narsalar hisobida xitoy sonlaridan foydalaniladi.

Biror bir narsani sanaganda ishlatiladi, sanoq so'z bo'lib kelgan o'zlashma so'zlardan foydalaniladi. Bunday vaqtda to'rtta raqam 하나, 둘, 셋, 넷 - 한, 두, 세, 네 deya o'zgaradi.

*Koreys tilida son va sanoq so'zlar aniqlanishdan keyin qo'yiladi.

→ 예

우유 한 잔	Bir piyola sut
물 두 컵	Ikki stakan suv
국 여섯 그릇	Olti kosa sho'rva

*Bir vaqtning o'zida ikki va undan ortiq sonlar o'zgarib qo'llaniladi.

→ 예

양복 한 두 벌
Bir-ikki juft kostyum shim.
강아지 서 너 마리
Uch-to'rtta kuchukcha.

(2) Xitoycha sanoq son

1 일	6 육	20 이십	100 백
2 이	7 칠	30 삼십	1,000 천
3 삼	8 팔	40 사십	10,000 만
4 사	9 구	50 오십	1,000,000 백 만
5 오	10 십	60 육십	1,000,000,000 억

Koreys va xitoy sonlari o'zining turlicha qo'llanilishiga ega. M: ular yil, oy, kun, ma'nosini bildirgan son va sanoq so'zlar bilan qo'llaniladi.

→ 예

2005년 3월 15일	이천 오년 삼월 십오일	
20쪽	이십 쪽	20 bet
600g	육백 그램	600 gramm
15Km	십오 킬로미터	15 kilometr
3인분	삼 인분	3 portsiya

*Vaqtni aytish soat, yosh, narsalarning hisobi koreys sonlarida, daqiqa, yil, oy, kun sanalar xitoy sonlarida aytiladi.

2시 15분 - 두 시 십오 분
7시 30분 - 일곱 시 삼십 분
12시 45분 - 열두 시 사십오 분

2 서수사 Tartib sonlar

(1)

첫(번)째	birinchi	다섯(번)째	beshinchi
두(번)째	ikkinchi	여섯(번)째	oltinchi
세(번)째	uchinchi	스무(번)째	yigirmanchi
네(번)째	to'rtinchi	마흔(번)째	qirqinchi

Koreys tarib sonlari tuzilmasiga ko'ra tartib son + (번)째 qo'shiladi. Bunda 하나 (한) raqami 첫 bilan almashadi. To'rtta raqam esa o'zgaradi.

(2) Xitoy tilidan o'zlashgan tartib sonlar:

제 일	birinchi	제 사	to'rtinchi
제 이	ikkinchi	제 십	o'ninchi
제 삼	uchinchi	제 백십이	bir yuz o'n ikkinchi

→ 예

저희 집은 골목 첫 번째 집입니다.
Bizning uy tor ko'chadagi 1-uy.
이 책은 세 번째 읽는 책입니다.
Bu kitob uchinchi bor o'qiyotgan kitobim.

(3) Koreys sonlarida oy kunlari quyidagicha bo'ladi:

1일	하루	6일	엿새	11일	열하루	21일	스무하루
2일	이틀	7일	이레	12일	열이틀	22일	스무이틀
3일	사흘	8일	여드레			23일	스무사흘
4일	나흘	9일	아흐레			27일	스무이레
5일	닷새	10일	열흘			30일	그믐

초하루 va 그믐 oyning 1 va oxirgi kunini bildiradi. Shuningdek, oyning 15-kunini 보름 deb aytiladir.

*Koreys tilida hisob so'zlari ko'p uchraydi:

꽃 - 송이	나무 - 그루	방 - 칸
꽃 - 다발	동물 - 마리	배 - 척
꽃 - 묶음	음식 - 분	집 - 채
종이 - 장	음식 - 그릇	책 - 권
양말 - 켤레	포도 - 근	옷 - 벌
자동차 - 대	연필 - 다스	컵 - 잔
펜 - 자루	편지 - 통	구름 - 점

부사 ravish

I 일반부사 Umumiy ravishlar

Harakatning qay tarzda yuz berish holatini bildiradi. Qanday?, Qay tarzda? kabi so'roqlariga juvob bo'ladi.

→ 예

아주 기분이 좋다
 Kayfiyatim juda yaxshi.
 매우 아름다운 여인
 Juda ham go'zal ayol.
 더욱 중요한 것은
 Yanada muhim narsa.
 겨우 합격하다.
 Zo'rg'a imtihondan o'tish.
 돈을 많이 쓰다.
 Pulni ko'p sarflash.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다.

U umuman yomon odam emas.

마침 제가 전화 하려던 참이었어요.

Endi men telefon qilmoqchi bo'lib turgandim.

*전혀, 별로, 결코, 여간, 절대로 ravishlari doim inkor ma'nolarda qo'llaniladi.

→ 예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Bu mutlaqo ishonib bo'lmaydigan ish.

별로 위험하지는 않다.

Unchalik havfli emas.

여간 일이 아니다.

Shunchaki ish emas.

2

상태부사 Ovozga va harakatga taqlid so'zlar

Bu ravishlar ovozga va harakatga taqlidni ifodalaydi.

→ 예

시계가 땡땡 치다.

Soat chiq-chiq qilmoq.

눈물이 툭툭 떨어지다.

Ko'z yoshlari tik-tik to'kilmoq.

개가 멍멍 짖다.

It vov-vov deya hurdi.

살금살금 다가간다.

Sekin-asta yaqinlashmoq.

엇금엇금 기어간다.

Urinib surinib o'rmalardi.

3

장소부사 O'rin ravishi

O'rin ravishi harakat va holatning bajarilish o'rnini va harakat yo'nalgan tomonni bildiradi. 요리, 고리, 조리 ravishlari 이리, 그리, 저리, larning qisqartirilgan so'zlari bo'lib farqli xususiyati yo'q. '이리, 그리, 저리' harakat yo'nalgan tomonni bildirsa ham

① 누구 이리(요리) 떠드느냐? da 'bu yerda' va ② 이리 오너라 da 'bu yerga' ni taqqoslab ko'rsak qo'llanilishidagi farqni ko'ramiz.

① Kim bu yerda shovqin qilayapti.

② Bu yerga kel.

*여기, 거기, 저기 lar umuman olganda o'rin ko'rsatuvchi olmoshlar (장소지시대명사) bo'lsa-da, qo'shimchalarisiz kelsa, ravishlik xususiyatini ifodalaydi.

→ 예

여기 앉았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Bu yerda o'tirgan odam qayerga ketdi?

이리 와서 자세히 이야기나 합시다.

Bu yoqqa kelib batafsil suhbatlashib olaylik.

4

시간부사 Payt ravishi

Payt ravishi harakat va holatni bajarilish vaqtini bildiradi va 'qachon, qaysi vaqtda, qanchadan beri?' kabi so'roqlariga javob bo'ladi.

→ 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Hozir vaqtim yo'q.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Bugun barvaqt turdim.

내일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Ertaga oraliq yozma ishi bor.

나는 가끔 그로부터 소식을 듣는다.

Men ba'zan undan yangilik eshitaman.

어제부터 병이 났다.

Kechadan boshlab mazasi yo'q.

요새 흔히 볼 수 없는 책이다.

Keyingi vaqtda bu kitobni topib bo'lmayyapti.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지금 kabilar qo'shimcha olsa ot hisoblanadi, qo'shimchalarsiz kelganda ravish hisoblanadi.

→ 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Bugun chorshanba.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Bugungi ishni ertaga qoldirmang.

내일은 내 생일 날입니다.

Ertaga mening tug'ilgan kunim.

내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Ertaga kino ko'rgani bormoqchiman.

5 부정부사 Inkor ravishi

Fe'ldan anglashilgan mazmunni inkor etuvchi ravishlar.

어제 잠을 안 잤습니다. Kecha uxlamadim.

저는 수영을 못 합니다. Men suza olmayman.

- (1) Fe'ldan anglashilgan ish harakatiga qodir bo'lmaslik holatida (unga bog'liq emaslik) 못 (ingliz tilida can not-can't modal fe'li) inkor ravishi qo'llaniladi.

→ 예

불의를 보면 저는 못 참습니다.

Nohaqlikni ko'rsam chiday olmayman.

- (2) 안 shakli esa o'sha anglashilgan harakatni bila turib qilmaslik (unga bog'liqlik) ma'nosini beradi.

→ 예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봅니다.

Men qo'rqinchli kinolarni ko'rmayman.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봅니다.

Men qo'rqinchli kinolarni ko'ra olmayman.

6 양태부사 Modal ravishlar

Gap oldida kelib, butun bir gap haqidagi muxokama, fikr mulohazani ifodalydi. Bu ravishlarni ma'nosiga ko'ra 3 turga bo'lish mumkin.

Modal ravish turlari:

과연 darhaqiqat	아마 chamasi, ehtimol	설마 nahotki (shubhali)
물론 rostdan	모름지기 albatta	부디 iltimos
실로 haqiqatdan	비록 garchi, mabodo	아무쪼록 iloji boricha
설령 hatto(ki), mabodo	제발 xudo haqqi, iltimos.	marhamat qiling.

→ 예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Darhaqiqat bu xabar haqiqat ekanda.

나는 정말 슬펐다.

Men rostdan hafa edim.

나는 실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

Men so'zsiz ahmoqlik qildim.

그는 학식은 물론 경험도 많다.

U bilimli, albatta tajribali ham.

설마 그가 도둑질을 하랴.

Nahotki u o'g'rilik qilsa.

제발, 떠들지 마라

Itimos, shovqin solma.

부디, 안부 전해 주십시오.

Itimos, salomimni yetkazing.

아무쪼록, 빨리 오십시오.

lloji boricha, tezroq keling.

7

접속부사 Bog'lovchi ravishlar

Bu ravishlar so'z bilan so'zni, yoki gaplarni bir-biriga bog'lash uchun ishlatiladi.

(1) 즉

Bu ravish huddi, ayni, naq, chunonchi, masalan, ya'ni, aynan kabi ma'nolarni beradi.

예

시간은 즉, 금이다.

Vaqt bu oltin.

그것이 즉 내가 바라는 바다.

Bu men aynan orzu qilgan narsam.

(2) 또, 또한

Yana, yana qaytadan, shuningdek, shu bilan birga kabi ma'nolarni beradi.

예

그 밖에 또 다른 비용이 있을 것도 생각해야 한다.

Bundan boshqa yana chiqim bo'lishi mumkinligi haqida ham o'ylash kerak.

비 오는데 또 바람까지 분다.

Yomg'ir yog'ayapti, shuningdek shamol ham esayapti.

그는 오늘도 또 나타나지 않았다.

U bugun ham qayta ko'rinmadi.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또한 착하다.

U qiz go'zalgina bo'lib qolmay oq ko'ngil hamdir.

(3) 도리어

Aksiga, aksincha, boshqacha, kutilmagan, aksiga kabi ma'nolarni beradi.

→ 예

도와주려고 한 일이 도리어 폐가 되었다.

Yordam bermoqchi edim aksincha halaqit qildim.

도리어 아우가 형보다도 크다.

Aksincha, ukasi akasidan baland.

(4) 오히려

Aksiga, aksincha, qarama-qarshi, o'ylagandan boshqacha.

→ 예

이것이 저것보다 오히려 낫다.

Bu narsa unisiga qaraganda aksincha yaxshi.

그는 시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소설가다.

U shoirdan ko'ra aksincha yozuvchi.

(5) 더구나, 더군다나

Buning ustiga, qo'shimcha ravishda, -ga qaraganda kuchliroq.

→ 예

비가 오는데 더구나 바람까지 분다.

Yomg'ir yoq'ayapti buning ustiga shamol ham esayapti.

그는 부모도 없고 더군다나 나이도 어리다.

Uning ota-onasi ham yo'q buning ustiga yoshi ham kichkina.

기침이 심해요. 더구나 열도 나요.

Yotali kuchli, buning ustiga issig'i chiqyapti.

(6) 하물며

Ayniqsa, buning ustiga, xususan-ku.

→ 예

쌀 살 돈도 없는데 하물며 옷 살 돈이 있으랴.

Guruch sotib olishga pulim yo'q-ku, kiyimga pul qayerda bo'lsin.

그는 영어도 모르거늘 하물며 불어를 할 수 있으랴.

U ingliz tilini bilmaydi-ku, fransuz tilini qayerdan gapira olsin.

접속사 Bog'lovchilar

1 그리고

- (1) Bu teng bog'lovchi teng huquqli gap bo'laklarini va gaplarni bir-biriga bog'lashga xizmat qiladi. Bu bog'lovchi bir vaqtlilik, munosabat, ketma-ketlik, natija, ziddlik munosabat ma'nolarini bildiradi. Gapda 'va, hamda, bilan, ham' deya tarjima qilinishi yoki umuman tarjima qilinmasligi mumkin.

→ 예

동생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은 차를 좋아합니다.
Ukam kofeni yaxshi ko'radi, akam esa choyni hush ko'radi.
어젯밤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왔습니다.
Kecha tunda shamol bo'ldi hamda yomg'ir ham yog'di.

- (2) Ketma-ket bo'lib o'tgan hodisani, bir harakat ketidan sodir bo'lgan harakatni bog'laydi.

→ 예

자, 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시다.
Xo'sh besh daqiqa dam olamiz so'ng yana davom ettiramiz.
방을 먼저 치우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Avval xonani tozalab, keyin o'qishni boshladim.

2 그렇지만

Ikkinchi gapdagi harakat, birinchisiga zid bo'ladi. O'zbek tiliga 'ammo, biroq' deb tarjima qilinadi. 그렇지만 bog'lovchisidan keyingi ot 은/는 yordamchi qo'shimchasini oladi.

→ 예

나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렇지만 부채춤은 출 수 없습니다.
Men qo'shiqni yaxshi kuylayman, ammo yelpig'ich raqsini ijro eta olmayman.

3 그러나

Mazmunan bir-biriga qarama-qarshi bo'lgan bo'laklarni yoki gaplarni bog'lash uchun xizmat qiladi. "Biroq, ammo, lekin" deb tarjima qilinadi.

예

제 여자 친구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좋습니다.

Mening yaxshi ko'rgan qizim chiroyli emas, ammo fe'l-atvori yaxshi.

그들은 다 낚시질하러 갔다. 그러나 나는 집에 있었다.

Ular baliq tutgani ketishdi lekin men uyda qoldim.

4

그래서

Bosh gapdagi asosiy fikrni yuzaga chiqishi uchun amalga oshirilish sababini ifodalaydi. O'zbek tiliga 'shuning uchun, shu sababli' deb tarjima qilinadi.

예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Shamollab qoldim, shuning uchun maktabga borolmayman.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Onam kasal bo'lib qoldilar, shu sababdan o'rmlariga men keldim.

*Birinchi gap, suhbatdosh tomonida aytilgan bo'lsa ikkinchi kishi uning gapi sababini izohlagandek 그래서 bilan davom ettirsa bo'ladi. Boshqacha aytganda mantiqiy boshlanishi avval aytilgan bo'ladi.

예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Shuning uchun shunday gapirganding-a.

5

그러면

Bosh gapga izoh berish, hulosa qilish, tushuntirish kabi ma'nolarda qo'llaniladi. Bu bog'lovchi deyarli barcha hollarda dialoglarda foydalanilib, "unday bo'lsa, unda, u holda" deya tarjima qilinadi.

예

사장님, 손님들이 다 왔습니다.

Janob direktor, mehmonlarning hammasi keldi.

그래요? 그러면 회의를 시작합시다.

Shunaqami? Unda majlisni boshlaymiz.

자 그러면 안녕히들 계시오.

Bo'pti unda yaxshi qolinglar.

6

그런데

- (1) Ergash gap bosh gapga nisbatan mazmun jihatdan qarama-qarshi bo'lsa yoki gap tarkibida ziddiyat bo'lsa, ushbu bog'lovchi ishlatiladi.

→ 예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외투가 없어요.

Havo sovuq, biroq palto'yim yo'q.

인물은 좋아, 그런데 키가 좀 작구나.

Ko'rinishi yaxshi, biroq bo'yi past ekan.

- (2) Bosh gapga qo'shimcha izoh, tushuntirish berganda qo'llaniladi.

→ 예

어제는 수박을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배탈의 원인이 되었다.

Kecha tarvuz yegandim va shu qorin og'rishiga sabab bo'ldi.

어제는 친구 말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친구는 벌써 결혼을 했다.

Kecha Malik o'rtog'imni uchratgandim, o'sha do'stim allaqachon uylanib bo'libdi.

7

그러니까

Bosh gapda sabab, ergash gapda uning natjasini ifodalaganda foydalaniladi.

→ 예

그 사람은 화가 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U odam jahli chiqsa qo'rqinchli bo'lib ketadi, shu sababdan ehtiyot bo'ling.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Ingiliz tilini tez o'rganmoqchiman, shuning uchun har kuni o'qiyapman.

8

그러면서

Bosh va ergash gapdagi ish harakati bir vaqtda ro'y berayotganligini ifodalash ush-un foydalaniladi.

→ 예

내일은 우즈베키스탄의 명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Ertaga o'zbeklarning bayrami deb shu bayramga bizni taklif qildi.

9 그래도

Asosan diologlarda qo'llaniladi, so'zlovchi, so'zlovchining savoliga javob tariqasida ma'lumot berishni yoki bosh gapdagi holatga zid ravishda ishlatiladi. O'zbek tilida bu to'siqsiz ergash gapli qo'shma gap deyiladi va 'shunda ham, shunday bo'lsada, shunga qaramay' deb tarjima qilinadi.

→ 예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Qornim ochdi, shunga qaramay kutaman.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Koreys tili qiyin shunday bo'lsa-da, g'ayrat bilan o'qiyman.

10 그러므로

Bu bog'lovchi o'zbek tiliga 'demak, bas, shunday ekan, shuning uchun' deb tarjima qilinadi.

→ 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Men o'ylayapman, demak men yashayapman.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Bu safar u qanday nojo'ya ish qilib qo'yganini bilmayman.

11 그렇지 않으면

Biror bir ish-harakatni qilishga undash yoki ogohlantirish ma'nosini bildiradi.

→ 예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낙제할 거야.

Qattiq o'qi, bo'lmasa imtihondan yiqilasan.

12 그러다가

Biror bir ish-harakatni bajarib, ushbu ish-harakatdan kelib chiqishi mumkin bo'lgan natija haqida gapir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shunda, shundan keyin, oqibatda' deb tarjima qilinadi.

→ 예

덜도라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Dildora dars vaqtida hazillashdi. Oqibatda o'qituvchidan gap eshitdi.



Koreys tili grammatika

lug'ati

Vig'unchi Jo In-hwa
역음 조인화

우즈베크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참고도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I II / 중급 I II / 고급 I II
동방대학교 한국어 문법 맞춤법 발음법

도와주신 분들

사무소 딜라푸르즈, 성천 아흐메도브 아크바르쇼, 경제대 자밀라, 알리베크,
페루자, 무야싸르, 딜어바르, 돈요르, 보부르 토라상, 동방대 돈요르,
에르도노바 홀카르, 아흐메도브 오토키르베크,

역음·편집 조인화

KOICA 51기 타슈켄트 국립 경제대학교 한국어 센터
E-Mail : ernesto0231@gmail.com

번역

Miyliева Nasiba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졸업
E-Mail : inhe85@gmail.com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2011년 9월 26일

제 작

주 우즈베키스탄 KOICA 사무소
2, Afrosiab st., Tashkent, Uzbekistan, 100031
Tel : 998-71-2523561
Fax : 998-71-1400648
E-Mail : uzkoica@gamil.com

편집·인쇄

(주)디자인인트로
Tel : 82-2-2285-0789 www.gointro.com

저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